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3호 (2014년 5 · 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월간 북한동향

제8권 제3호 (2014년 5·6월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KINU 통일연구원

Contents

5 May 2014

❶ 주차_05.01-05.04

1. 대내 동향 ····· 6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0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1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❷ 주차_05.05-05.11

1. 대내 동향 ····· 16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22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25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❸ 주차_05.12-05.18

1. 대내 동향 ····· 30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40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43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❹ 주차_05.19-05.25

1. 대내 동향 ····· 50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61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65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❺ 주차_05.26-05.31

1. 대내 동향 ····· 72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80
3. 대남 동향 ····· 84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인쇄: 2014년 7월 **발행:** 2014년 7월
발행처: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편집인:** 북한연구센터 **편집간사:** 김아영 연구원
등록: 제2-02361호(911.4.23) **주소:** (142-728) 서울시 강북구 4.19로 123(수유동) 통일연구원
전화: (대표) 900-4300 / (직통) 901-2525 / (팩시밀리) 901-2544
홈페이지: http://www.kinu.or.kr **인쇄:** (주) 예원기획 02)745-8090
〈비매품〉

6 June 2014

❶ 주차_06.01-06.08
1. 대내 동향 ····· *88*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96*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01*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❷ 주차_06.09-06.15
1. 대내 동향 ····· *106*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16*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21*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❸ 주차_06.16-06.22
1. 대내 동향 ····· *126*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34*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37*

❹ 주차_06.23-06.30
1. 대내 동향 ····· *140*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150*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159*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 5월 일지 / *166*

■ 6월 일지 / *168*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5.01-05.04

5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황병서, 軍 1인자 총정치국장에 임명…최룡해 해임(5/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5·1절 경축 노동자연회가 1일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에서 열린 소식을 전하며 이 자리에서 연설한 황병서를 "인민군 총정치국장"으로 소개함.

● **'총정치국장 해임' 北 최룡해, 노동당 비서로 좌천(5/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2일 강원도 원산의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을 전하면서 준공사를 한 최룡해를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함.

● **北 오수용 노동당 비서·안정수 당부장 임명 확인(5/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3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 준공식이 현지에서 진행됐다며 참석 간부 가운데 오수용을 당 중앙위원회 비서로 소개하고 안정수 전 경공업상은 당 중앙위 부장으로 호명함.

김정은동향

- 5/2,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과 야영소 준공식 참석(5.3,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당중앙위 비서/제막 및 준공사), 한광상, 리일환, 최휘, 마원춘, 김여정, 전용남(「청맹」위원장) 참석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 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소년 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및 축포 발사 관람(5.3,중앙통신,중앙방송)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5.3,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로경준, 김진근 참가
- 5/3,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3일 황순희(항일혁명투사·조선혁명박물관 관장)에게 95세 '생일상' 전달(5.3,중앙통신)
- 5/4,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주의전사 '야코프 노비첸코' 생일 100주년 즈음 화환 전달(5.4,중앙통신)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 저작(직업동맹 사업을 더욱 강화할 데 대하여) 발표 30주년('84.5.3) 기념보고회, 5월 2일 현상주(「직총」 위원장/보고)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에서 진행(5.2,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평안남도 숙천군의 봄철 영농실태(열두삼천농장 방문 및 협의회 진행)와 은파광산(황해북도) 현지 요해(5.3,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황해남도 물길공사 정형 현지 요해 및 해주 연결농기계공장을 돌아보고 더 많은 농기계를 농촌에 보내줄 데 대하여 언급(5.4,중앙통신·중앙방송)
- 국가 책임일꾼들, 5월 4일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와 軍 1월8일수산사업소 참관(5.4,중앙통신)
  · 박봉주, 로두철, 태종수, 김용진·리무영·리철만(내각 부총리들) 등 참관

나. 경제

● 중국 옌볜에 북한 예술품 교역시장 생긴다(5/1, 연변일보)

- 북한과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접경한 중국 지린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에 북한 예술품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시장이 생긴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1일 전함.

● 北, 노동절 맞아 경제성과 독려…"분발 또 분발"(5/1, 조선중앙통신; 노동신문)

- 조선중앙통신은 "각지 근로자들이 5·1절을 뜻깊게 맞이했다"라며 전역의 근로자들이 체육·유희·오락경기와 민속놀이, 예술공연무대 등을 펼치며 명절을 즐겁게 보냈다고 1일 전함.
- 또 노동신문은 1일 1면에 게재한 사설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쳐 나아가자'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사랑하는 우리 조국을 하루빨리 사회주의 강성국가로 세계에 빛낼 불타는 애국심을 지니고 분발하고 또 분발해야 한다"고 주문하며 경제 성과를 독려함.

● 北 '취약계층 전문' 수산사업소 조업 개시(5/1, 조선중앙통신)

- 북한 취약계층에 수산물을 공급할 동해 포구의 '1월8일수산사업소'가 장정남 인민무력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4월 30일 조업식을 열고 조업을 시작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보도함.

- "사업소는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보장하게 된다"며 "김정은 동지의 인민사랑의 결정체"라고 통신은 보도함.

"UNDP, 올해 대북사업에 200만 달러 지원"(5/1, 미국의소리(VOA))

- 유엔개발계획(UNDP)의 샤브남 말릭 평양사무소 부소장은 2014년 북한의 농촌 에너지 발전, 종자 생산 개선, 곡물 손실 감소 등의 사업에 200만 달러(약 20억 6천만원)를 투입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일 전함.
- 이 가운데 가장 많은 55만 달러가 사회경제 개발과 생태계 복원 사업에 지원되며 53만 달러는 풍력·태양열 등의 확대를 위한 농촌 에너지 사업에 배정되고 또 곡물을 수확하고 나서 농기구 재정비 등으로 손실을 줄이는 사업과 종자생산 개선에 각각 50만 달러와 42만 달러를 지원한다고 VOA는 전함.

북·중, 국경지역 자가용 관광코스 '줄다리기'(5/2, 경화시보)

- 북한과 중국이 6월 시작될 예정인 평안북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중국인 자가용 관광의 코스 결정을 놓고 미묘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고 중국 경화시보(京華時報)가 2일 전함.
- 단둥의 한 여행사 관계자는 "중국측은 단둥 출발 자가용 북한관광코스를 총 200㎞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북한은 관광코스 개방에 엄격하고 많은 제한사항을 내세우고 있어 자가용 관광코스가 국경지역 전체로 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함.

北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 개최(5/2, 조선중앙통신)

- 경제개발구 전문가 토론회가 2일 조선경제개발협회 주최로 조선경제개발협회 간부와 교수·연구자 등 북한 관계자들, 중국·인도·캐나다·필리핀·미국의 경제특구 전문가들, 북한 주재 외교관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평양 양각도국제호텔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토론회가 특수경제지대의 선진 경험들을 자체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조선의 경제개발구들을 세계적인 경제협력지대로 만드는 데 이바지하는 계기로 됐다"고 강조함.

● **'자전거 북한 관광' 등장…중국인 35명 첫 유람(5/3, 중국방송망)**

- 중국인 35명이 노동절 연휴인 전날 오후 각자 자전거를 타고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투먼(圖們)시를 출발, 북한 함경북도 남양시로 건너가 남양 기차역, 항미원조열사기념비, 김일성 주석 동상 등을 둘러보고 3시간가량 북한에 머문 뒤 중국으로 돌아왔다고 중국방송망(中國廣播網)이 3일 보도함.

기타 (대내 경제)

- 장정호(농업성 처장), 전국적인 벼모판씨뿌리기가 4월 26일 현재 94%의 성과로 마감단계에 들어섰다고 소개(5.1,중앙방송)
- 각지 노동계급, 4월 인민경제계획 수행 선전(5.2,중앙통신)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쇳돌증산(4월 공업총생산계획 102.5% 수행) 선전(5.2,중앙방송)
- 온성지구 탄광연합기업소, 4월 석탄생산계획 완수(5.2,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 봄 가뭄 '심각'…32년 만에 강수량 최저(5/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조선의 대부분 지방에서 현재까지 심한 가물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2월 중순부터 지난달 30일까지 북한 전역의 평균 강수량은 23.5㎜로 평년(83㎜)의 35% 정도에 불과했다고 전함.
- 이 같은 강수량 수치는 1982년(20.5㎜) 이후 32년 만에 최저치로, 통신은 "물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시기에 가뭄 피해를 받아 작물들의 작황이 매우 낮을 것"이라며 이번 가뭄으로 북한 전역에서 수천 정보의 밀, 보리, 감자 등 이모작 작물이 피해를 봤다고 밝힘.

● **北"수십년 만의 아주 심한 가뭄"…대책 독려(5/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가물(가뭄) 피해를 철저히 막자'라는 제목의 글에서 "각지 농촌들에서 가물 피해를 막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가물이 들고 있다"며 "서해 지구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 보는 왕가물(아주 심한 가뭄)은 농사에 매우 불리

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 "물 원천을 모조리 찾아 가물 피해를 막는 데 효과있게 이용해야 한다"며 지하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양수 설비도 총동원해야 한다고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2차 보건부문 체육경기대회 폐막식, 5월 1일 김용진(내각부총리)·한광복(黨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체육관에서 진행(5.1,중앙통신·평양방송)
- 제29차 중앙과학기술축전 폐막식, 5월 2일 김용진(내각 부총리)·한광복(당중앙위 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5.2,중앙통신)
- 제17차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 5월 12일~15일 3대혁명전시관에서 진행 예정(5.2,중앙통신)
- '올해부터 전반적12년제 의무교육이 실행단계에 들어갔다'며 '국가적인 관심 속에 전민교육 사업이 활기 있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5.2,중앙통신)
- 모자이크벽화 준공식, 평안북도 박천군·연변군·삭주군·염주군·신도군에서 진행(5.4,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기타 (대외 일반)

- 일본의 '北 미사일발사 동향 추적·요격능력 확보'를 위한 이지스함 2척 추가 배치계획 관련 '미사일방위체계 구축을 정당화하고 군사적 침공의 구실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며 '침략과 전쟁으로 줄달음치는 대미추종은 화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고 주장(5.1,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총무상과 국회의원 146명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에 대해 '일제의 침략범죄를 전면부정하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군국주의 사상을 심어 그들을 해외침략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것'이라고 비난(5.2,중앙통신)
- 일본 '아베' 총리의 '독일식 전후처리방식을 따를 수 없다' 발언 관련 "과거청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한 방증"으로 "그릇된 과거를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은 일본 자신을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충고(5.3,중앙통신)
- 北, 日 극우익정객들이 야스쿠니신사를 뻔질나게 찾아다니며 군국주의 열을 고취하고 있다고 비난(5.4,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기타 (6자회담(북핵))

- 윤병세 「외통부」장관의 '북핵문제' 발언(4차 핵시험가능성, 국제사회가 더는 허용하지 않을 것 등) 관련 '얼빠진 넋두리', '외세의 가련한 주구의 맥빠진 푸념질로 밖에 여기지 않는다'고 비난 (5.1,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신문, '신뢰프로세스' 비난…"대결인가 신뢰인가"(5/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일 '대결과 신뢰는 절대로 양립될 수 없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아시아침략 전략에 적극 편승하여 동족압살의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극악한 대결정책"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신뢰프로세스라는 것은 결국 우리를 무장해제시키고 외세와 함께 북침전쟁을 도발하기 위한 호전적 구호일 뿐"이라고 비난하며 박 대통령을 겨냥해 "대결인가 신뢰인가, 어느 쪽인가", "허튼 말장난을 작작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개질문에 명백한 대답을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단체,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검토 비난(5/3,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3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4월 25일 방한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2015년 12월로 예정됐던 전시작전통제권을 또다시 연기했다며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도 다 줘버린 추악한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전함.
- 담화는 또 "박근혜 패당이 남조선을 미국의 군사적 식민지로 영구히 내맡기고 상전의 대아시아 전략과 북침전쟁 책동의 돌격대, 하수인으로서 더

충실히 복무해나가려는 속심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하며 "우리는 범죄적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 놀음을 결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며 핵억제력을 비롯한 선군위력을 일층 강화하는 것으로 단호하게 맞받아나갈 것"이라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남북 노동단체 공동결의문 발표…"민족화해 추동"(5/1, 조선중앙통신)

- 북측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와 남측 한국노총, 민주노총은 1일 노동절을 맞아 "북과 남의 노동자들은 우리민족끼리의 기치 밑에 굳게 연대·연합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적극 추동해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남북관계에 관한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결의문에서 남북공동선언 정신에 배치되는 상호 비방중상을 저지할 것과 남북 간 신뢰와 관계개선의 출발점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존중임을 강조하고 세월호 참사에 애도를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파주시 북녘 어린이돕기 도담도담사업에 3천만원 지원(5/2, 연합뉴스)

- 경기도 파주시가 통일부 대북 지원단체로 지정된 대한불교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이하 민추본)의 북한 어린이 영양지원 '도담도담' 사업에 남북교류협력기금 3천만원을 지원, 구충제 등 의약품을 북녘 어린이에게 전달할 방침이라고 연합뉴스가 2일 전함.

● 개성공단 첫 방문 한인 경제인들 귀환…"투자하겠다"(5/2, 연합뉴스)

- 2일 하루 일정으로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재외동포 경제단체 세계한인무역협회(월드옥타)의 회원 17명과 재외동포재단이 주관하는 제13차 세계한상대회의 운영위원 및 리딩 CEO 12명이 밝은 표정으로 귀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는 판문점을 통과한 이들은 "투자하겠다", "북쪽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에 나섰다", "저임금, 고품질로 투자환경이 아주 좋다"라고 사상 첫 재외동포 기업인 단체 방북에 대한 감회를 쏟아냈다고 전함.

기타 (대남)

- 우리 정부의 對日 "군사적결탁(군사정보교류 움직임 등)"을 주장하며 이는 '韓美日 3각 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국화를 재촉하고 재침야망을 더욱 부추기는 후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비난(5.3, 중앙통신·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5.05-05.11

5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신문, '젊어지는 김정은 시대' 예찬(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김정은 시대를 '젊어지는 시대'로 규정하고 북한이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까운 장래에 부유하고 문명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함.
- 이어 "김정은 시대는 몇 십 년의 시간을 몇 년으로 단축해놓는 비상한 기적을 이룩하고 있다"라며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영도는 모든 분야가 한꺼번에 단숨에 달라지게 하는 "거대한 정치적 가속도"를 안고 있다고 강조함.
- 신문은 또 "말보다 일을 많이 하는 젊음, 해놓는 일과 경험보다 해야할 일의 계획과 착상을 더 많이 논하는 젊음이 얼마나 좋은가"라고 젊음을 예찬하면서 혁신과 창조, 애국으로 젊음이 넘치게 하자고 촉구함.

● **北 김정은, 방직공장 기숙사 건설 군인과 기념사진(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를 건설에 참여한 제966군부대, 제462군부대, 제101군부대, 제489군부대 군인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전했으나 구체적인 촬영 일시와 장소는 밝히지 않음.
- 기념사진 촬영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김정관 중장도 함께 함.
- 김 제1위원장은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 기숙사가 "인민군대의 애국적 헌신성과 일본새(작업태도)가 낳은 자랑찬 창조물"이라며 "인민군대의 영웅적 투쟁에 의해 나라의 이르는 곳마다 세인을 놀래우는 기적이 연이어 창조되고 있다"고 평가함.

● **北, 마식령속도 이어 '조선속도'…새 동원구호 등장(5/1; 5/6, 노동신문; 연합뉴스)**

- 노동신문은 '5·1절'(노동절)인 지난 1일 1면에 '전체 근로자들이여, 위대한 당의 영도 따라 조선속도를 창조하며 폭풍 쳐나가자'라는 제목의 사

설을 게제하고 북한군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 만에 '1월 8일 수산사업소'를 건설한 것을 조선속도의 대표적인 예로 듦.

- 연합뉴스 6일 보도에 따르면 북한 매체에서 '조선속도'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올해 1월 23일이며 지난달 10일 김정은 제1위원장 재추대를 기념하는 평양시 경축대회에서 김기남 노동당 비서의 입에 오르면서 급속히 퍼져 나가고 있다며 향후 북한의 경제 현장에서 주민들의 노력을 동원하는 핵심 구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함.

北 노동신문 "언론인, 사상전 나팔수 돼야"(5/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기자, 언론인들은 혁명적인 사상공세의 기수, 나팔수가 되자'라는 제목의 7일 1면 사설에서 "우리 당 출판보도물은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과 위업실현에 복무하는 사상적 무기"라며 "모든 당 출판보도물은 온 사회에 김일성-김정일주의를 힘있게 뿜어주는 선도자, 나팔수가 돼야 한다"라고 촉구함.
- 신문은 또 "정치사상선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여기에 경제선전을 밀접히 결합하여 선군조선의 번영기를 열어나기 위한 투쟁으로 전체 인민을 고무추동해야 한다"라고 밝힘.
- 더불어 "기자, 편집원, 방송원들이 언론활동에 전심전력하여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사업조건, 생활조건 보장에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며 언론인에 대한 지원 강화의 필요성도 지적함.

김정은동향

- 5/6,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966군부대·제462군부대·제101군부대·제489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5.6,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장정남, 김정관 참가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특류 영예군인들과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감사(5.8,중앙방송)
- 5/8,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선물 전달(5.8,중앙통신)
  - 선물 전달모임, 5월 8일 리일환(당중앙위 부장)·전용남(「청맹」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송도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진행

기타 (대내 정치)

- 「조국광복회」창립('36.5.5) 78주년을 맞아 '조국광복회는 김일성이 창립한 첫 반일민족 통일전선 조직이었다'며 '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뒤집어엎고 조국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성취하는데 불멸의 공적을 쌓았다'고 선전(5.5,중앙통신)
- 김정일 저작 발표(5.7) 40주년 기념보고회, 5월6일 봉화예술극장에서 김기남(黨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6,중앙방송·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압록강체육단·기관차체육단·평양체육단·선봉축구단 등 여러 체육단들의 축구장들에 '축구발전을 위해 인공잔디를 보내주었다'고 선전(5.7,중앙통신)

나. 경제

● 北, 4월 주민 배급량 420g…3월과 같아(5/6, 자유아시아방송(RFA); 미국의 소리(VOA))

- 북한이 지난 달 주민 1인당 하루 평균 420g의 식량을 배급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를 인용해 보도함.
- RFA는 지난 달 북한의 최대 명절인 '태양절'이 있었음에도 배급량은 3월과 같았다며 이는 세계식량계획 권고량 600g에는 못 미치는 규모라고 설명함.
- 한편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지난 달 북한에 지원한 식량은 2,405톤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전월(1,600톤)보다 50% 많지만 작년 동기(4,093톤)에 비하면 대폭 감소한 것이라고 6일 전함.

● 北, 중국인 관광객 입국수속 간소화(5/6, 중국신문사)

- 북한이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올해부터 입국 수속을 간소화했다고 중국의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가 6일 보도함.
- 통신은 지난 달 30일 운행이 재개된 중국 지린성 투먼~북한 칠보산 열차 관광코스 기사에서 140명의 중국인 관광객이 투먼에서 도보로 두만강 교량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에 도착, 입국 수속을 마치는 데 2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전함.

● 유럽 기업인들, 투자처 물색 차 9월 방북(5/7,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대북투자 자문 전문업체인 네덜란드 'GPI컨설턴시'의 폴 치아 대표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북한을 찾아 재생에너지,

의류, 광물 등 다양한 분야의 산업현장을 둘러볼 계획이라고 7일 보도함.
- 이들은 방북 기간에 열리는 평양무역박람회에도 참가하며 북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을 만나 북한에서 사업할 때 따르는 혜택과 어려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함.
- 폴치아 대표는 유럽기업들이 경제위기에 따른 사업 부진에 대비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북한 내 사업을 고려할 수 있다면서 이미 일부 유럽 기업이 북한에서 계란과 감자, 꽃, 과일 등을 생산해 현지 주민에게 판매하거나 아시아 국가에 수출하고 있다고 설명함.

● **北, 지난 해 對 EU 교역액 반등…광물 수출 34배 급증(5/7, 미국의소리(VOA))**
-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해 북한과 교역액이 1억4천400만 유로(약 2천 50억원)로 집계되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전함.
- 북한과 EU의 교역액은 2011년 1억 6천만 유로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두 배로 늘었으며 교역량이 회복된 것은 북한의 광물 수출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VOA는 밝힘.
- EU가 지난해 북한에서 수입한 광물은 1억 200만 유로 어치로 2012년 300만 유로의 34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 수출 철광, 중국 항만서 중량 미달 또 적발돼(5/9, 연합뉴스)**
- 북한의 최대 대(對)중국 수출 품목인 무연탄과 철광 등 광물이 애초 계약한 양보다 실제로 수출한 양이 적은 경우가 빈발해 무역 마찰을 빚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함.
- 9일 중국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쑤성 양저우 검사검역국은 최근 북한이 수출한 자철정광분을 검사한 결과 배에 실려 중국 항만에 도착한 화물의 무게가 계약한 것보다 726t이 적은 것을 발견해 수입한 자국 업체가 북한 측에 클레임(배상청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증명서를 발급함.

● **北, 경제건설 독려 활동 강조…"경제선동 공세 펴자"(5/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사설을 통해 경제강국 건설을 위해 경제부문의 선전, 선동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함.

- 신문은 “전체 인민을 우리 당의 경제건설 노선과 정책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는데 경제선동의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라며 대중의 열의와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격식과 틀이 없이 박력 있고 생기발랄하게” 선동하라고 주문함.
- 신문은 또 모란봉악단을 예로 들면서 “(이들) 공연이 언제나 천만군민의 심장을 순간에 틀어잡고 폭풍같은 반향을 불러 일으키는 것은 중요하게 그 내용과 형식이 참신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함.

기타 (대내 경제)

- “21세기 첫해에 탄광과 광산, 농촌 등지에 자원진출 한 청년들은 15만여 명”이라며 ‘청년들의 오지로 자원진출 소행’ 선전(5.6,중앙통신)
- 北, 단천제련소(유색금속생산기지) 생산공정 현대화 공사 진행(5.7,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 北도 피부미용 큰 관심…기능성화장품·미용식 인기(5/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7일 북한에서 다양한 종류의 자외선 차단 화장품이 새로 출시되고 피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 책이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고 보도함.
- ‘은하수’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자외선 피부보호 화장품’ 10종을 내놓는가 하면 피부에 좋은 음식을 소개한 책 ‘미용과 건강에 좋은 요리’가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누리고 있음.

● 세계기금, 北 결핵퇴치에 4천300만 달러 지원(5/8,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세계기금’(세계기금)이 북한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해 4천 300만 달러(약440억원)을 배정했다고 8일 보도함.
- 이에 따라 북한은 유엔아동기금(UNICEF)등 국제기구들과 협의해 활동계획서를 작성 중이며, 계획서가 최종 승인되면 앞으로 3년간 결핵퇴치 사업 자금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VOA는 전함.

● 北, 김정은 체제 첫 예술인대회 이달 중순 개최(5/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8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5월 중순 평양에서 진행되며 대회에는 문학예술부문과 연관단위의 창작가, 예술인들, 일꾼(간부)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전함.
- 조선중앙방송도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당 사상전선의 전초선인 문학예술부문에서 일대 혁명을 일으킬 목적"으로 예술인대회 개최를 지시했다고 설명하면서 "한 편의 영화나 한 건의 글이 수 천t의 식량이나 수 만 발의 포탄을 대신할 수 있다"며 "우리 당의 뜻이 모란봉악단의 혁명적이고 참신한 예술활동에서 뚜렷이 증명되고 있다"라며 모란봉악단을 본보기로 내세움.

● 北, 의학도서 '자연치료자원총람' 발간(5/8,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광천, 감탕(진흙), 풍경 등 자연치료에 관한 정보를 종합한 5권짜리 의학도서 '조선자연치료자원총람'이 발간됐다고 조선중앙통신이 8일 전함.
- 통신은 이 도서에 대해 "효능 높은 약수와 온천, 예방치료에 효과적인 감탕과 니탄, 건강장수수단인 산천수, 효과가 확신되는 기후치료, 풍경치료자원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히며 널리 이용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제16차 국내외 동포 평양의학과학 토론회, 5월 5일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5.5,중앙통신·중앙방송)
- 제2차 전국교육부문 체육과학기술연구성과 전시회(5.5~9) 개막식, 5월 5일 전극만(교육위원회 부위원장/개막사) 등이 참가한 가운데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5.5,중앙방송)
- 北 마신아 학생, '제9차 라흐마니노프 국제 피아노 콩쿠르'(4.21~24, 러시아)에서 1위 수상(5.5,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평양관광대학(4.1 개교, 평양 동평양지구에 위치) 새로 설립(5.5,중앙통신)
- 제10차 전국기계설계축전(5.6~12, 설계 및 산업미술창작기관·과학연구기관 등 130여개 단위 등 참가) 개막식, 5월6일 중앙경공업제품견본관에서 리종국(기계공업상)·최상건(국가과학기술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6,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국가우표발행국, 2014년 청도세계원예박람회(중국에서 진행, 4.25~10.25)를 기념한 우표(개별우표 1종)와 은하계를 반영한 우표(묶음전지 1종) 발행(5.7,중앙통신)

- 북한 리명수체육단의 남자축구팀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주최 2014 프레지던트컵 조 예선 1차전에서 무승부를 기록(5.8,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2014년 국제빙상연맹(ISU) '세계발전컵'빙상피겨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포함해 메달 5개를 기록(5.9,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日 집단자위권 지지한 미국 비난(5/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판도라의 함을 열 셈인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공식적인 지지를 표명했다고 지적하며 "이것은 일본을 세계제패전략 실현의 돌격대로 써먹으려는 강도적 본성의 집중적 표현으로서 불행을 제 스스로 불러오는 행위"라고 주장함.
- 이어 통신은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배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군사력증강은 물론 집단자위권 행사와 같은 전쟁수행의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일본의 책동을 적극 밀어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또한 일본은 전범국이고 "과거의 죄행을 청산할 대신 예나 지금이나 재침의 칼만 벼리는 위험국가"라며 "일본은 국제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로, 온갖 불행과 재앙의 불씨를 안고 있는 '판도라의 함'과 같은 존재"라고 강조함.

● **北통신,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MOU 체결 논의 비난(5/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7일 논평을 통해 최근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양해각서(MOU)체결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비난함.
- 이어 통신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은 일본의 군국화를 재촉하고 재침의 길을 열어주는 반민족적 범죄행위"라고 지적함.
- 또 "여기에는 미국, 일본, 남조선 3각 군사동맹에 기초한 반공화국 공조와 북침전쟁 준비를 완성하려는 속셈이 깔려있다"고 강조함.

● **북한-나이지리아, 경제협력 강화 9개항에 합의 (5/9, 자유아시아방송(RFA); 올아프리카)**

- 북한과 나이지리아가 정보통신기술(IT)과 무역 등의 경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아프리카 언론을 인용해 9일 보도함.
- '올아프리카' 등 아프리카 언론에 따르면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과 마르틴 우호보이비 나이지리아 외교부 차관은 지난 6일 나이지리아 수도 아부자에서 열린 '북한-나이지라아 공동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과학, 기술, 농업, 지질학, 원유, 가스, 산업기술 등 분야에서 공동 연구 등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관심사를 조율하기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함.

● **北 통신, 美 MD예산 확대 방침 비난(5/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9일 북한 미사일의 '미국 본토 공격설'은 "군사적 패권을 위한 궤변"이라며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예산 확대 방침을 비난함.
- 이어 미국이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는 것은 "유치한 언어유희에 불과하다"라며 "우리는 각종 미사일을 개발·보유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자신을 건드리지 않는 나라에 대고 총탄 한 방 날려본 적이 없는 평화애호국가"라고 주장함.

기타 (대외 일반)

- 미국의 '북조선의 도발'설은 '우리(北)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고 도전'이라며 "미국이 제아무리 '北 도발'에 대해 떠들어도 우리의 자위적 전쟁억제력은 백배·천배로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5.5,중앙통신·노동신문)
- 주북 인도네시아 대사, 5월 5일 '北-인도네시아 외교관계 설정' 50주년을 즈음하여 연회 마련(5.5, 중앙통신·중앙방송)
  - 리길성(외무성 부상), 서호원(대외문화연락위 부위원장) 초대
- 미국의 '北, 도발·위협' 제기에 대해 '미국의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 등에 대처한 우리(北)가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는 것은 너무도 응당하고 정정당당한 권리행사'라고 강변 및 '이를 부정(*北의 자위적 조치)할수록 무서운 재앙을 입게 될 것'이라고 협박(5.6,중앙통신)
- 조선평화통일 지지 亞-太지역위원회, 4월25일 김일성 사망('94.7.8) 20주년 즈음 '지역·국가별 회고위원회 결성' 등 '호소문' 발표(5.6,평양방송)
- 세계적십자 및 적반월의 날(5.8)에 즈음한 친선모임, 5월 8일 北 적십자회와 주북 적십자 및 적반월회 국제연맹대표단·적십자국제위원회 대표단의 공동주최로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진행(5.8, 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신문 "핵 억지력은 자위권…핵에는 핵"(5/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5일 북한의 '핵 억제력 보유'는 미국의 위협에 맞선 자위권 행사라는 주장을 반복하며 누구도 이를 침해할 수 없다고 역설함.
- 신문은 '미국은 침략자, 도발자의 정체를 감출 수 없다'라는 제목의 개인 필명 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주요 인사들이 최근 북한의 위협과 도발 가능성을 잇달아 거론한 데 대해 "날조선전"이라고 반박하며 이같이 주장함.
- 이어 "날로 강위력하고 정교해지는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믿음직한 방패, 보검"이라며 "그 누구도 이 권리를 빼앗을 수 없으며 침해하지 못한다"고 주장함.

● 풍계리 갱도 입구에 가림막 설치돼(5/7, CNN)

- CNN은 미국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가림막이 갱도 입구에 설치된 모습이 최근 미군 정찰위성에 잡혔다고 7일 전함.
- 이어 가림막 설치는 핵실험을 앞두고 갱도입구를 봉쇄하기 위한 전 단계 조치에 해당하며 지하 핵실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활동을 노출하지 않으려는 의도도 있다면서 조만간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CNN은 전함.

● 조선신보 "6자회담 노력 결실 없으면 정세 격화"(5/8,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8일 중국이 주도하는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의 대화 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한반도 정세가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함.
- 조선신보는 "오바마 행정부가 심사숙고하지 못하고 조선을 핵시험으로 떠미는 사태가 또다시 일어난다면 큰 나라들의 패권경쟁, 영토와 역사문제를 둘러싼 인국간 대립으로 가뜩이나 불안한 이 지역 전체가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게 된다"고 주장함.
- 이와 함께 "미국의 전쟁소동이 중단되지 않는 한 조선은 이미 공언한 대로 '다종화된 핵억제력을 각이한 중장거리 목표들에 대하여 각이한 타격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형태의 훈련'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대남기구 "美는 민족의 원수…경거망동 말라"(5/5,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조국전선) 중앙위원회가 '미국의 인권범죄 비망록'을 발표하면서 미국에 대해 "불구대천의 원수"라며 "최후 핵대결전"을 준비하는 이유를 똑바로 알고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위협했다고 5일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조국전선은 이번 '비망록' 발표는 "미국이 역사적으로 조선민족에게 저지른 반인륜적, 반인권적 대범죄를 만천하에 폭로, 단죄하기 위해서"라며 "미국이 그 무슨 인권재판관 행세를 하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을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정의와 양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주장함.

● **北, '통일대박론' 또 비난…"용납 못할 북침전쟁론"(5/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8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평화통일과 민족 공동번영에 역행하는 '체제대결론'이자 '북침전쟁론'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거듭 비난함.
- 신문은 또 "박근혜는 통일문제를 가지고 민족을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한편 '대박'이라는 표현에 "돈으로 모든 것을 유혹하고 돈이면 만사가 다 된다는 황금만능의 저열하고도 추악한 속물적 근성이 진하게 배여 있다"라며 통일문제를 장사치들의 흥정물이나 도박놀음에 묘사한 것은 통일 염원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난함.

● **추락 소형무인기 3대 모두 북한지역서 발진 확인(5/8,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방부가 우리 지역에서 추락한 채 잇따라 발견된 소형 무인기 3대가 모두 북한에서 발진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8일 보도함.
- 뉴스에 의하면 국방부는 "무인기 3대 모두 다수의 남측 군사시설 상공을 이동하도록 사전에 좌표가 입력됐다"면서 "백령도와 파주에 추락한 무인기에서 비행경로의 근거가 되는 사진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통신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반민족 범죄"(5/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8일 남한과 미국정부가 최근 한반도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 시기를 사실상 무기한 재연기했다고 비난함.
- 통신은 전작권 전환 재연기는 "남조선을 미국의 영구주둔지, 전쟁도발지로 내맡김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의 긴장을 격화시키고 군비경쟁을 촉진시키는 망동"이라고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로 온 남조선 땅이 초상집으로 된 시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연기를 강행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특대형 반민족적 범죄"라고 덧붙임.

● **北, '금수산궁전 참배자 실형 판결'은 "극악한 도발"(5/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은 서기국 보도를 통해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유기고가에게 실형이 선고된 데 대해 "최고존업에 대한 도전"이자 "극악한 도발"이라고 맹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9일 전함.
- 조평통은 "모처럼 마련됐던 북남관계 개선의 분위기가 또다시 파국에 처하고 조선반도 정세가 대결의 극한점으로 치닫고 있다"라며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세월호 참사 거론하며 연일 南 정부에 독설 (5/7, 노동신문; 우리민족끼리)**

- 노동신문은 7일 '인권유린, 패륜패덕의 무리들을 단호히 쓸어버리자'는 제목으로 북한 주민이 세월호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남한 정부를 비난한 3건의 글을 게재함.
- '우리민족끼리'도 7일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권이 또 어디 있는가'라는 글을 싣는 등 연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남 비난을 이어가고 있음.

● **北, '세월호와 대비' 34년 전 여객선 구조 선전(5/10, 통일신보)**

- 통일신보 최신호(5월10일 발행)는 '눅음의 날에 구원된 여객선'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1980년 10월 북한이 동해상에서 여객선 '삼지연호'를 구조한 사건을 소개함.

- 같은 면에서 최근 원산 해변에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가 들어선 것과 세월호 참사를 대비하며 "북과 남의 어디가 천당이고 지옥이며 민족의 밝은 미래가 어디에 있는가를 극명하게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함.

기타 (대남)

- 청와대의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에 반환한 문화재(국새 9점)는 '6.25 당시 북한군이 약탈한 것' 설명에 대해 "미제가 저지른 범죄적 만행마저 北에 넘겨씌워 동족을 모해하기 위한 너절한 모략이고 유치한 도발"이라고 재차 비난(5.6,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무분별한 단계의 反北 인권모략소동'으로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북남관계를 더욱 파국에로 몰아넣고 한반도 정세를 일촉즉발의 초긴장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책임 전가 비난(5.6,중앙통신·노동신문)
- 「조평통」 서기국 보도 제1061호(5.8)]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에 대해 '지난 대선은 협잡판, 모략판이었다'며 '국정원 해체와 남재준과 박OO를 심판해야 할 것'이라고 선동(5.8,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5.12-05.18

5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군사
   - 라.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또 공군부대 시찰…비행훈련 독려(5/14,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항공 및 반항공군 제 447부대를 시찰하며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렴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보위사령관,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홍영칠·마원춘 당 부부장이 수행했으며 항공 및 반항공군의 리병철 사령관과 장동운 정치위원이 이들을 안내함.
- 이밖에 김정은 제1위원장은 평안남도의 '1월18일기계종합공장'도 방문해 공장 현대화 공사를 지시했으며 공장 현지지도에는 황병서, 렴철성, 윤동현, 홍영칠, 마원춘이 동행했으며 박태성 평안남도 당 위원회 책임비서가 이들을 안내함.

● **北 '신실세' 박태성, 평남도 당 책임비서에 임명(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한 소식을 전하면서 김 제1위원장을 현지에서 맞이한 박태성을 "조선노동당 평안남도위원회 책임비서"로 소개함.

● **北 김정은, 축구경기 관람…"축구기술 수준 높여야"(5/16,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인들과 함께 만경대상 체육경기대회 축구 1급 경기에 참가한 '만경봉팀'과 '소백수팀'의 남자축구경기를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경기를 관람하고 "우리 식의 체육기술과 전술체계, 훈련방법을 완성해 축구기술 수준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축구경기 후에 북한군 국방체육단과 압록강 국방체육단의 양궁 남녀 단체전도 관람했다고 통신은 전함.

● **'총살설' 北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 건재 확인(5/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평양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린 소식을 보도하면서 "모란봉악단 단장 현송월이 토론했다"고 전하면서 현송월이 처형됐다는 일부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이날 대회에서 군복을 입고 첫 토론자로 나선 현송월은 "원수님께서 문학예술 부문의 침체와 부진을 놓고 얼마나 애타하시고 계십니까"라며 "모란봉악단의 창조정신, 창조기풍은 원수님의 혁명시간에 우리의 일과를 맞추고 한편의 명작을 위해서라면 한몸을 깡그리 부수고 목숨까지 바치려는 각오"라고 말했다고 중앙TV는 전함.

● **北 전국예술인대회 개막…김정은 찬양 작품 독려(5/1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16일 저녁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 렴철성 군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안동춘 문학예술총동맹 중앙위원장 등 고위간부들과 모란봉악단, 공훈국가합창단 등 예술단체가 참가한 전국예술인대회가 열렸다며 행사 모습을 방영함.
- 김기남 비서는 보고에서 "김정은 동지의 천출위인상을 격조 높이 칭송한 명작들을 많이 창작하여 천만군민의 가슴에 원수님을 따라 이 세상 끝까지 가려는 신념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께서 문학예술부문에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영원히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당의 유일적 영도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고 중앙TV는 전함.

● **北 김정은 "영화혁명으로 세계적 영화 만들자"(5/17, 노동신문)**

- 17일자 노동신문에 의하면 김 제1위원장은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전달한 서한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 문학예술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자'에서 "무엇보다 먼저 영화 부문에서 영화혁명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야 하겠다"고 밝힘.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금 문학예술 부문 사업이 당과 혁명의 요구, 시대의 부름에 따라서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 당은 현시기 문학예술 부문이 주저앉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문학예술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명백히 강조해 문학예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이번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했다"고 밝힘.

● **北, '張숙청'으로 공석된 쿠바 대사에 박창율 임명(5/1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쿠바 주재 대사에 박창율이 임명됐다고 보도함.

김정은동향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 시찰(5.14,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렴철성, 조경철, 윤동현, 홍영칠, 마원춘 동행
- 5/14,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하고 현대화 과업을 제시(5.14,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렴철성, 윤동현, 홍영칠, 마원춘 동행 및 박태성(평안남도당책) 맞이
- 5/15,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5일 윤석천 노인(함경북도 청진시 청암구역 거주)에게 '100세 생일상' 전달(5.15,중앙통신·중앙방송)
- 5/16,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봉팀↔소백수팀의 남자 축구경기 관람(5.16,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변인선, 박영식, 렴철성, 조경철, 김영철, 오금철, 박정천, 마원춘 등 관람
- 5/16,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정은 당 제1비서, 조선인민군 국방체육단↔압록강 국방체육단 활쏘기 선수들의 활쏘기경기 관람(5.16,중앙통신·중앙방송)
- 5/17,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계단식발전소 등 중요대상 건설 지원에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5.17,중앙방송)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이 정립한 '주체적 문예이론' 설파 및 주체사실주의는 '김정은의 영도밑에 새로운 주체 100년대의 예술창조 활동에서 변혁을 일으키게 하는 불변의 추동력 으로 되고 있다'고 강조(5.12,중앙통신)
- 김영남 등 당과 국가 책임일꾼들, 5월 13일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참관(5.13,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정형을 현지요해하고 현지에서 내각·성·중앙기관 일꾼협의회를 진행(5.14,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 생전, '영화예술론('73.4.11) 및 무용·음악예술론과 미술론' 등 '문예발전에 관한 수많은 저작들을 발표, 주체적 문화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환희 밝혀주었다'고 칭송(5.15,중앙통신)

나. 경제

● **北, 모내기 본격 돌입…'먹는 문제' 해결 총력전(5/12,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2일 "개성시안의 일꾼과 농업근로자들이 일제히 모내기전투에 진입해 성과를 높여 나가고 있다"라며 "기계 모내기와 손 모내

기를 배합해 시작부터 모내기를 일정계획대로 내밀기 위한 투쟁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올해 쌀 생산량 190만t 전망…작년과 비슷"(5/13,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3일 FAO가 웹사이트에 공개한 '식량전망'(Food Outlook)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은 190만t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전함.
- 이로써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북한의 연간 쌀 생산량은 평균 170만t으로 집계됐으며 올해 가을부터 1년 동안 북한 주민 1인당 쌀 소비량은 67.8㎏으로, 지난해(65.4㎏)보다 소폭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北 "절약이 곧 생산"…'에너지 절약형' 기술 강조(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절약'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극 개발·도입해야 한다"고 밝힘.
- 신문은 "사회주의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있는 지금 어디서나 가장 절박하게 요구되는 것이 전력이고 에너지"라며 "에너지를 10% 절약하는 것은 10% 생산하는 것보다 사회경제적 효과가 더 크고 원가도 훨씬 적게 든다"고 강조함.

● **호주, 대북 식량지원 위해 28억원 기부(5/14, 자유아시아방송(RFA))**

-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호주 정부가 북한 취약계층 식량지원을 위해 지난주 300만 호주달러(약 28억 7천만원)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기부했다고 전함.
- RFA는 호주 국제개발청의 제나 핸드 대변인은 2013 회계연도(지난해 7월~올해 6월)에 300만 호주달러를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를 위한 인도주의 지원 예산으로 편성했으며 이달 초 WFP와 기부를 위한 서류 작업을 마무리 했다고 밝힘.
- 이어 호주 국제개발청 관리들이 지난해 말 방북해 WFP를 통한 식량분배와 감시 상황을 점검하는 등 모니터링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전함.

● **北 "원산은 동해의 진주"…대규모 리모델링 추진(5/17, 통일신보)**

- 북한 외자 유치 기구인 합영투자위원회의 리성혁 부국장은 지난 12일 평양 고려호텔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서 북한이 추진 중인 '원산-금강산 지구 총계획'을 공개했다고 대외선전용 주간지 통일신보가 17일 보도함.
- 리 부국장은 "원산시의 도시중심축을 새롭게 형성하고 주변에 상업봉사 구역과 문화휴식구역, 과학기술교류구역을 배치할 것"이라며 "수영관, 수족관, 곱등어교예장(돌고래서커스장), 문화오락휴식장 등 관광시설들을 해안을 따라 집중적으로 배치하며 송도원해수욕장에 1만2천여 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봉사시설을 증설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그는 "원산비행장은 하루 수천 명 능력으로 새로 건설하며 원산-금강산 관광도로와 병행해 새로운 고속관광철도를 건설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다"며 "가까운 기간에 원산시 중심부와 마식령스키장, 울림폭포, 석왕사, 금강산지구를 연결하는 국제관광로를 형성할 것"이라고 소개함.

● **北학술지 "김정은 경제노선 핵심은 기업 독자성 강화"(5/18, 연합뉴스; 경제연구)**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4월 30일 발행)에 실린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밝혀주신 우리 식의 경제관리 방법의 본질적 특징'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3가지 본질적 특징 중의 하나로 "국가의 통일적 지도 밑에 모든 기업체들이 경제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가게 하는 것"이라고 밝힘.
- 논문은 "모든 기업체들이 경영활동을 독자적으로, 창발적으로 해나간다는 것은 매개 기업체들이 자체의 구체적 실정과 특성에 맞게 자기 단위의 경영활동을 창조적으로 진행하여 자기 단위의 발전은 물론, 나라의 전반적 경제발전을 위하여 온갖 예비와 잠재력을 최대로 동원하도록 한다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함.
- 또한 논문은 김정은 경제노선의 나머지 2가지 본질적 특징으로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다는 주체사상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과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고히 고수해나가게 하는 것"을 꼽음.

기타 (대내 경제)

- 평양시 양어관리국, 대동강의 자연수역을 이용한 이동식 그물우리 양식 성과 선전(5.13,중앙통신)
- 北, '박연 - 영통사 관광도로건설이 완공되어 개통되었다'고 보도(5.16,중앙통신)
- 평안북도 및 황해남도 농촌들, 벼 모내기에 주력(5.16,중앙방송)
- 北, 박경애(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교수가 특수경제지대 개발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5.16,중앙통신)
- 양강도에서 중소형발전소 건설(2년 남짓 기간 10여 개소 준공)과 국토관리사업(리명수혁명사적지 주변 25만8천 그루 식수 등) 성과 선전(5.18,평양방송·중앙방송)

다. 군사

●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북한군 일부 장성 진급 확인(5/10; 5/12,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0일 발행한 김정은 부부의 전투비행기술 경기대회 관람 사진에서 김명식 해군사령관과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이 상장(별3개)계급장을 단 모습이 포착됨.
- 박정천 포병사령관도 4월 26일 김 제1위원장이 장거리 포병부대 포사격 훈련을 참관한 사진에서 한 계급 오른 상장 계급장이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이어 김명식은 김정은 체제가 공식출범한 2012년 해군사령관에 임명되면서 중장 계급장을 달았으며 2년 만에 또 한 계급 진급해 탄탄대로를 걷고 있으며 윤동현과 박정천은 계급이 강등됐다가 복귀한 경우라고 뉴스는 전함.

라. 사회·문화

● 北 노동신문 "전사회적 책 읽는 기풍 확립해야"(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사설을 통해 "적들과의 싸움은 곧 사상과 신념의 대결"이라며 "혁명적인 책을 많이 읽어야 사상정신적 노쇠와 변질을 모르고 애국 충정의 한 길을 억세게 걸어나갈 수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무엇보다 김일성·김정일·김정은 노작(논문)과 '혁명역사' 관련 서적 등을 우선적으로 읽고 그대로 실천에 옮겨야 한다고 강조하는 한편

"전공분야의 최신과학기술지식을 얻기 위한 책읽기를 통해 실무적 자질을 높여야 한다"고 요구함.

● **北, 전역에 전자도서관 '미래원' 건설 붐(5/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최근 완공돼 문을 연 자강도 전천군의 미래원을 소개하며 "지식경제시대의 요구에 맞게 전자도서관으로 훌륭히 개건된 전천군 미래원으로 많은 근로자와 청소년·학생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전함.

● **캐나다 NGO, 8월 평양서 의학학술회의 추진(5/13, 자유아시아방송(RFA))**

- 캐나다 비정부기구(NGO)가 올해 여름 평양에서 서양·북한 의료진 등 100여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의학 학술회의 개최를 추진 중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전함.
- RFA에 따르면 캐나다 NGO '평양 프로젝트'는 오는 8월 1일부터 열흘간 김일성종합대학 산하 평양의학대학에서 '의학과 여성보건'이란 주제로 열리는 학술회의를 개최해 산후 조리, 산모 사망률, 영유아 보건 등 세부 주제로 나뉘어 진행되며 북한 의료진을 상대로 의료 연수와 전문가 교육도 이루어 짐.

● **北, 예술인대회 분위기 고양…"예술은 사상적 무기"(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이 평양역에 도착했다는 조선중앙통신기사를 사진과 함께 실었으며 김기남 노동당 비서 등 간부들이 평양역에 나가 예술인을 환영했다고 전함.
- 신문은 또 이번 대회가 "우리의 문학예술을 선군혁명 위업수행의 위력한 사상적 무기로 더욱 강화 발전시켜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라고 소개하는 한편, 모란봉악단이 지난달 대홍단군, 혜산시 등의 양강도 공연을 통해 주민에게 활력을 줬다며 사상일꾼들의 분발을 촉구함.

● **北 탁구지도자 2명 올 여름 인도서 기술전수(5/1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북한 탁구 지도자 2명이 인도 탁구협회의 초청으로 올해 여름 인도에서 탁구 선수들을 지도할 계획이라고 16일 보도함.

- 인도 탁구협회는 2011~2012년 북한 탁구 대표팀 감독을 지낸 안종선과 청소년 대표팀 감독 출신의 김성한을 인도 청소년 탁구 선수 교육 프로글매에 초청했으며 이들 2명은 이번 여름 3개월 동안 인도 델리를 비롯한 12개 도시를 돌며 청소년 탁구 선수들에게 북한의 탁구 기술을 전할 예정이라고 RFA는 전함.

● **北 신문 "문학예술 혁명으로 제국주의 문화 짓부수자"(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개막을 맞아 문학예술 혁명을 통한 사상 무장을 강조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전투'를 독려함.
- 신문은 문학예술은 식량과 무기를 대신할 수 있다며 "사상의 힘으로 진격로를 열어가는 지금 우리에게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투지를 안겨주는 문학예술이 요구된다"고 주장함.
- 신문은 또 "김정은 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문예사상과 이론, 업적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주체 문학예술의 영재"라며 "지금이야말로 1970년대와 같이 문학예술 부문에서 일대혁명을 일으켜야 할 때"라고 역설함.

● **北 예술인대회 폐막…"문학예술 새 전성기" 다짐(5/17, 조선중앙TV)**

- 북한에서 김정은 시대 들어 처음 개최된 전국예술인대회가 17일 폐막했다고 조선중앙TV가 보도함.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6일 대회 참가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우리 당은 현시기 문학예술 부문이 주저앉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 문학예술의 사명과 목적을 다시금 명백히 강조해 문학예술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해 이번 전국예술인대회를 소집했다"고 밝힘.

● **北 모란봉악단 가수에 또 공훈배우 칭호(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라유미에게 공훈배우 칭호를 수여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17일 발표됐다며 라유미에 대해 "김정은 시대의 정신이 맥박치는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함으로써 조선의 군대와 인민을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으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18일 보도함.

● **北교과서 '업그레이드' 주목…그림으로 호기심 자극(5/18, 연합뉴스; 교육신문; 민족통신)**

- 연합뉴스가 18일 입수한 북한의 주간지 교육신문 최신호(5월8일자)는 새 교과서에 대한 교육일꾼들의 반향이라며 교육 간부들이 기고한 글을 여러 건 실음.
- 교육위원회 보통교육성의 전혜선 국장은 '세계적 수준의 우리식 교재'라는 글에서 새 교과서가 어린이와 학생이 친근하면서도 흥미를 갖고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소개함.
- 앞서 재미동포가 운영하는 친북 성향의 인터넷 매체 '민족통신'도 지난달 30일 기사에서 소학교 1학년 교과서의 사회주의 도덕과 김일성 가문의 일화를 묶은 부분에 그림이 많이 포함됐다고 전함.
- 교육신문과 민족통신의 내용을 종합할 때 새 어린이 교과서에서 두드러진 점은 그림 등 시각적 이미지를 많이 활용한 것이 눈에 띄며, 어린 학생들이 친근감을 갖고 교과서를 보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수업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려는 목적으로 보인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공사장 사고 이례적 보도…인민보안부장 사과(5/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13일 평양시 평천구역의 건설장에서는 주민들이 쓰고 살게 될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로 엄중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났다"고 전함.
- 이어 생존자 구조와 부상자 치료를 위한 국가적인 비상대책기구가 꾸려졌고 최부일 인민보안부장, 선우형철 인민내무군 장령(장성) 등의 간부들이 지난 17일 사고현장에서 유가족과 평천구역 주민을 만나 위로·사과했다고 덧붙임.
- 최부일 부장은 이 사고의 책임은 노동당의 '인민사랑의 정치'를 받들지 못한 자신에게 있다며 사과하고 "인민보안부가 언제나 인민의 이익과 생명·재산을 철저히 보위하는 진정한 인민의 보안기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고 다짐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세계 철새의 날(5.11·12)」 관련 '최근 나선일대에서 100여종의 철새들이 관찰, 세계 조류전문가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며 '北,철새 보호를 위한 국제적 교류와 협조 실천' 선전(5.12,중앙통신)
- 리금철 선수(남자 자유형 42kg급), 2014년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 금메달 획득(5.12,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2015년 9월에 제19차 태권도 세계선수권대회 주최 결정 보도(5.13,중앙통신)
-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강습, 5월17～18일 평양에서 진행(5.18,중앙통신)
-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창립 40주년 기념대회, 5월17일 평양에서 세계인민들과의 연대성조선위원회 책임일꾼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5.18,중앙통신)
-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의 고구려벽화무덤(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새로 발굴(돌칸흙무덤: 무덤길과 안길·죽음칸으로 구성된 외칸무덤) 보도(5.18,중앙방송)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美, 무인기 사건 南입장 비호 말라"(5/12,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은 12일 판문점대표부 대면인 담화를 통해 무인기 추락 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한미공동조사결과를 거듭 반박하며 미국이 이 사건에 대한 남한의 입장을 '비호두둔'하고 있다고 비난한 것을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담화는 유엔군사령부가 무인기 사건 조사 결과를 토대로 북한이 정전협정 제2조 16항과 17항을 위반했다고 북측에 '확성기'로 통보했다면서 미국이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 때처럼 남한의 '확성기'노릇을 하고 있다고 비난함.
- 이어 미국이 북한 영공에 수시로 정찰기를 진입시키고 '핵전략타격비행대'로 '도발'을 일으키는 등 "정전협정을 계통적으로 파괴, 유린, 위반하고 있다"며 "누구의 정전협정 위반에 대해 떠들 한 조각의 체면이나 나격이라도 있는가"라고 반문함.

● **北 외무성 "오바마에 격분 표시는 응당한 대응"(5/12, 조선중앙통신)**

- 외무성 대변인은 12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신공격성 막말을 지적한 데 대해 "최근 우리 개별적 주민들이 오바마에 대한 격분을 표시한 것은 그가 남조선에 기어들어 존엄 높은 우리를 악랄하게 모독하고 중상한 데 대한 응당한 대응"이라고 밝힘.
- 또한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버림받은 국가', '비정상적인 국가' 등으로 험담하고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언급했다며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며 우리 인민들의 분노는 하늘에 닿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변화 거절한 美 정권의 말로는 어둡다"(5/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시론'에서 임기 후반에 들어선 오바마 정권이 북한에 대한 '대결노선'의 도수를 높이며 전 정권의 전철을 밟고 있어 "변화를

거절한 정권의 말로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전망하며 북한이 2006년 10월 제1차 핵실험을 한 것은 부시 미국 행정부가 중간선거를 앞두고 북미대결을 격화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함.

● **北 통신,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는 "패권주의적 책동"(5/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위험천만한 패권주의적 책동'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한미일 3국이 국방부 장관 회담 등으로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미국을 겨냥해 "'아시아판 나토'를 조작하여 주변대국들을 견제하고 기울어져 가는 '유일초대국'의 지위를 부지해보려는 불순한 전략"이라고 주장함.

● **北 신문 "자위권 주장하는 日, 먼저 불벼락 맞을 것"(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집단자위권 행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일본 자민당 간사장의 발언과 관련해 "일본이 선불(먼저 불벼락)을 맞을 수 있다"고 위협함.
-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해밖에 가져다주는 것이 없는 매우 위험한 망동"이라며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면 지난 세기 전반기보다 더 혹심한 전쟁 상태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함.

● **北 새 외무상, 중국보다 러시아 대사 먼저 만나…왜(5/1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5일 리수용 외무상이 취임 한 달 만에 '의례방문'으로 찾아온 류훙차이(劉洪才)북한 주재 중국 대사를 면담했다고 보도함.

● **北, 日 집단자위권 추진 비난…"해외침략 첫 걸음"(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일본이 집단자위권행사를 추진하는 것을 "해외침략의 첫 걸음"으로 규정하며 일본이 '군국주의 우경화 책동'을 중단해야한다고 주장함.
- 이어 "일본 정부가 조선인 강제연행과 성노예 범죄를 비롯한 과거 일제의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올바로 반성하지 않고 역사와 정의를 거스르며 계속 군국화, 우경화의 길로 나간다면 일본이라는 나라는 영원히 국제사회의 적국으로 배격당할 것"이라고 신문은 경고함.

● **北, '이란-北 핵 협력 언급' 이스라엘 총리 비난(5/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6일 조선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에서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에 대해 "이스라엘이 최근 유대인정착촌 확장책동, 중동평화회담 결렬 등으로 저들에게 쏠리는 국제여론 비난의 초점을 딴 데로 돌리고 중동지역에서의 팽창주의적 야망을 계속 추구하려는 얕은수"라고 주장함.

기타 (대외 일반)

- 김영남(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5월12일 만수대의사당에서 駐北 스위스 대사(쟝-쟈끄 드 다르델) 신임장 접수(5.12,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12일 駐北 러시아 대사와 담화(5.12,중앙통신)
- 김영남, 5월 13일 駐北 터키대사(아르쓸란 하칸 옥찰) 신임장 접수 및 담화(5.13,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5월 1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주북 수단 대사(오마르 에이싸 아흐마드) 신임장을 접수하고 대사와 담화(5.14,중앙통신)
- 駐北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과 무관단들, 5월 16일 가족들과 강원도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 참관(5.16,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쿠바 주재 北 대사에 박창율 임명(5.17,중앙통신)
- 北-방글라데시 '2014-2019년 문화교류계획서', 5월 14일 방글라데시 다카에서 조인(5.17,중앙방송·중앙통신)
- 박춘일 예멘 주재 北 대사, 5월 7일 주재국 대통령에게 신임장 제출(5.17,중앙방송·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美 핵위협 대비 자위적 억제력 계속 확대"(5/1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4일 "우리의 핵은 미국의 핵위협에 대비해 유지하고 더욱 확대해야 할 자위적 억제력"이라며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포기를 거듭 촉구함.
- 신문은 "우리는 그 누구의 인정을 받기 위해 핵을 가지지 않았고, 허리띠를 조이며 다져온 우리의 핵억제력은 결코 대화에 목이 메고 관계개선에 현혹돼 써먹을 거래수단도, 흥정물도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미국이 남조선에서 해마다 합동군사연습을 벌이고 있는 조건에서 핵 및 미사일 시험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위협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무인기 도발 대북경고' 판문점서 확성기로 전달(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군의 한 고위관계자가 12일 "유엔군사령부가 지난 9일 오후 5시30분께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군사분계선(MDL) 앞에서 확성기를 통해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한국군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힘.
- 뉴스는 또 유엔사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작년 3월 정전협전 정전협정 백지화를 선언하면서 판문점대표부 활동을 중단하고 유엔사와 직통전화를 차단하겠다고 주장한 이후 지금까지 직통전화가 가동되지 않고 있다"면서 "북한군과 전화나 팩시밀리가 차단되어 있고 사람을 통해 직접 전달도 불가능해 기존 관례대로 확성기를 이용했다"고 설명했다고 전함.

● **국방부 대변인 "北, 빨리 없어져야 돼" 강력 비판(5/12,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12일 무인기 도발 책임을 전면 부인하는 북한을 고강도로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내었다고 보도함.
- 뉴스에 따르면 김 대변인은 "북측이 국방위검열단을 내세워 우리 측에 공동조사를 요구한 것은 마치 범법자가 자신이 저지를 범죄행위를 스스로 조사하겠다는 적반하장격의 억지주장에 불과한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포문을 연 뒤 북한을 "있을 수 없는 나라"라고 비판하면 빨리 없어져야 된다고 강력 비판함.
- 또한 김 대변인은 AN-2 위협에 대해서도 "AN-2는 1세대적인 무기로, 동구권에서 농약을 치던 항공기"라며 "북한은 그것을 가져와서 유사 시 특수부대를 침투시키기 위해 많은 양을 갖고 있다"고 전하며 속도가 매우 늦어 넘어올 때 요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힘.

● **北 신문, '통일대박론' 거듭 비난…"황금만능 논리"(5/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3일 개인 필명의 논평에서 "건달뱅이(양아치)나 좋아하는 '대박'이란 말을 통일이란 신성한 말에 갖다 붙인 것은 겨레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라고 지적함.

- 이어 “통일을 경제문제의 종속물로 만드는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논리가 깔린 통일대박론은 민족의 자주권 실현을 위한 조국통일 위업에 먹칠하는 반통일론”이라며 박 대통령을 “투전판에 나선 사기협잡꾼”, “민족의 운명 문제, 조국통일 문제를 수판 위에 올려놓고 손익을 따지는 정치간상배”라고 비난함.
- 또한 “조국통일 문제의 유일한 해결방도는 민족 분열을 꾀하는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나가는 것”이라며 “박근혜는 통일대박론을 입에 올리기 전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도모하며 자주통일과 평화번영의 앞길을 열어놓은 6·15통일시대에 대해 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함.

北 국방위, 국방부 대변인 발언에 ‘전민보복전’ 위협(5/13,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국방위가 13일 발표한 ‘중대보도’에서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전날 ‘북한은 없어져야 할 국가’라고 한 발언을 “전면적 체제대결 선포”로 비난하며 ‘전민 보복전’을 위협했다고 전함.
- 국방위는 이어 김 대변인 발언에 격노한 북한 주민들이 ‘서울타격명령’을 요구하고 있으며 김 대변인 발언의 배후에 군부와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하고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모면해 보려는 어리석은 타산(계산) 밑에 김민석과 같은 밥통을 내세워 우리와의 전면대결의 불집을 터트려 보려고 작정한 것”이라고 비난함.

北, 南정부에 국방부 대변인 ‘엄벌’ 거듭 요구(5/1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4일 논평을 통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의 발언을 “침몰해가는 박근혜 정권의 단말마적 발악의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틀째 강하게 비난함.
- 논평은 “박근혜 정권이 조금이나마 목숨을 연명하려거든 민족을 불행의 도가니에 몰아넣는 대역죄인인 김민석을 당장 엄벌에 처하라”며 “그것이 국방부는 물론 청와대가 살아남는 길”이라며 남한 정부에 그를 엄벌하라고 거듭 촉구함.

● **北, 국방부 대변인 비난에 주민까지 동원 파상공세(5/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전쟁을 불러오는 악의 화근, 민족의 재앙거리'라는 제목으로 주민들이 김 대변인과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글을 여러 건 실음.
- 평양시의 한 의사는 김 대변인을 '벌레만도 못한 놈' 등으로 표현하며 "우리 국방위원회 검열단의 정당한 요구에 도전하다 못해 우리 공화국의 사상과 제도를 악랄하게 헐뜯는 폭언을 서슴없이 쥐쳐댔다(떠들었다)"고 전함.

● **北여성단체 "지방선거를 반정부 심판장 만들자"선동(5/1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 중앙위원회가 6·4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첫날인 15일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정부의 책임으로 내세우며 이번 선거를 "반정부 심판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여맹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여성이라면 감정도 있고 눈물도 있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청와대를 찾아온 피해자 가족들을 만나주지조차 않고 도리어 야수적으로 탄압했다"면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신문, 5·16 맞아 朴대통령에 "독재 부활" 비난(5/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6일 5·16을 '불법무도의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박근혜 정부가 '유신독재'를 부활시키고 있다고 비난함.
- 신문은 또 "현 괴뢰집권세력에 의해 남조선에서 유신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가 최악의 파국 상태에 빠져 핵전쟁 위험마저 고조되고 있는 것은 실로 통탄할 일"이라며 "박근혜야말로 온갖 악의 근원, 민족의 재앙거리"라고 주장함.

● **北, 5·18 기념일 맞아 南에 '반정부 투쟁' 선동(5/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대중적 항쟁의 불길을 지펴올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 지배와 군사파쇼 독재를 반대하고 자주, 민주, 통일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영웅적 항쟁"이라고 평가함.

- 이어 박근혜정부를 겨냥해 "정치, 경제, 문화 등 남조선의 모든 분야를 미국에 더욱 철저히 내맡기고 있으며 과거의 유신 파쇼독재체제를 부활시키면서 인민들이 피로써 쟁취한 민주화의 초보적인 성과마저 깡그리 말살하고 있다"고 비난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단체 "南정부 언론통제 심각…언론인 저항해야"(5/17, 연합뉴스)**

- 조선기자동맹 중앙위원회는 17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 패당이 여객선 침몰 대참사로 인한 최악의 위기에서 벗어나보려고 언론통제와 여론조작 책동에 매달림으로써 내외의 분노를 더욱 자아내고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내세워 침몰사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소식들을 왜곡날조하는 한편 보도 기사들에 대한 심의를 대폭 강화하면서 저들의 구미에 맞는 것들만 내보내도록 단속통제를 엄격히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담화는 무인기 사건이 불거진 것도 박근혜 정부가 여론의 이목을 돌리기 위해 '어용보수언론'을 동원한 결과라며 "우리는 남조선의 양심적인 기자, 언론인들이 정의의 필봉을 더 높이 들고 박근혜 패당의 반인민적 악정과 동족대결 책동을 규탄단죄하며 살인마 무리들을 심판대에 끌어내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더욱 과감히 떨쳐나서리라는 것을 확신한다"고 덧붙임.

기타 (대남)

- 세월호 참사 관련 세월호의 증축과 과적 등을 거론하며 '세월호 참사는 南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폐단과 비리, 황금만능의 사회현실이 초래한 재난'이라고 주장(5.14,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방미 기간 중 대북발언(4차 핵실험 시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처, 가장 값비싼 대가 등) 관련 '외세의 힘을 빌어 동족을 해치려는 박OO 패당의 흉계'라며 '적대세력의 도전에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포함한 자위적 조치로 대응해 나갈 입장을 표명한 것은 천백번 정당하다'고 주장(5.14,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정부의 유엔 '북인권사무소' 유치 움직임에 대해 '동족대결 광신자들의 도발적 음모'라며 '우리(北) 공화국의 대외적 영상을 흐리고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공조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비난(5.14,평양방송)

- 대통령의 팽목항 재방문(5.4) 시 발언(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에 대해 '유신 독재자를 잃은 자기의 추한 모습을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세월호 피해자 가족들의 슬픔과 동일시 한 것으로서 그들에 대한 또 하나의 기만이며 범죄행위'라며 '가소롭고 역겨운 추태'라고 비난(5.17,중앙통신)
- 청계산 '무인기 소동'(부서진 문짝 오인신고) 관련 "南사회가 '무인기병'에 걸려도 단단히 걸렸다"며 "이것이 바로 박OO 패당이 조작해낸 무인기 사건의 '北 소행'설에 의한 피해망상증"이라고 주장(5.17,중앙통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5.19-05.25

5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부부, 군인 치료 전문 대성산종합병원 방문(5/19,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군인 치료 전문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대성산종합병원은 장군님(김정일)의 직접적인 발기에 의해 세워진 군인들을 위한 종합적인 치료기지"라며 "병원을 꾸려놓은 데(건설한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치료사업과 관리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대성산종합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병원인 것만큼 당의 보건정책 관철에서도 앞장에 서야 한다"라며 병원에서 필요한 문제를 모두 해결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통신이 전함.

● **北 '신실세' 마원춘 당부부장, 국방위 설계국장 겸임(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부부의 군인 전용 치료시설인 대성산종합병원 방문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을 수행한 마원춘을 "국방위원회 설계국장, 육군 중장"이라고 밝힘.

● **北 예술인대회 축하 모란봉악단 공연…김정은 관람(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19일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 4·25 문화회관에서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석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을 관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 부부의 공연관람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김기남·최태복·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 제1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등이 동행함.

● **北 김정은, 김책공대 교육자 아파트 건설현장 시찰(5/2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 아파트 건설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1일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군인 건설자들이 당에서 비준해준 설계의 요구대로 시공을 하고 있다”고 칭찬한 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건설에서 공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며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고히 보장하는 것은 인민군 제267부대 군인건설자들의 일본새”라며 “모든 건설부문에서 이들의 투쟁기풍을 따라배워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조선총련 내에 영도체계 튼튼히 세워야”(5/2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제23차 전체대회를 하루 앞둔 23일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을 보내 ‘애국애족의 선각자’가 될 것을 주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축하문에서 조선총련이 제22차 전체대회 이후 지난 4년간 많은 성과를 이룩했다고 평가한 후 앞으로 “조직 안에 주체의 사상체계, 영도체계를 튼튼히 세우고 기층조직을 더욱 강화하는데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말함.

● **제23차 北 김정은, 전기기계공장 방문…생산공정 현대화 지시(5/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천마전기기계공장을 방문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통신은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 공장의 터를 직접 잡아주고 공장을 여러 차례 찾았다고 소개하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노동자들이 맡은 생산과제를 제때에 수행해왔다고 그들의 공로를 치하했다고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최신식 전기기계들을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자면 공장의 생산능력을 확장하고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라며 전기기계를 대량생산할 수 있도록 공장을 ‘통이 크게’ 현대화하라고 지시함.

● **北 “黨 유일사상체계 확립 위해 사상적 일색화” 강조(5/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일성 주석의 유일사상체계 관련 ‘노작’ 발표일인 25일을 맞아 “당과 혁명대오의 사상적 일색(一色)화는 모든 승리의 결정적 담보”라고 거듭 강조함.

- 신문은 25일 사설에서 김일성 주석이 1967년 5월 25일 당 사상부문 간부들 앞에서 한 '당면한 당 선전사업 방향에 대하여'란 제목의 연설에 대해 "연설의 기본정신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확립해 당을 사회주의 위업을 향도하는 정치적 참모부로 강화발전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힘.

김정은동향

- 5/19,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 시찰(5.19,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軍 총정치국장), 마원춘(국방위원회 설계국장·육군 중장) 동행
- 5/20, 김정은·리설주, 5월 19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5.20,중앙통신·중앙방송)
  - 황병서, 김기남, 최태복, 최룡해, 김여정 등 함께 공연 관람
- 5/21,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개동 46층 건물) 건설장 시찰(5.21,중앙통신·중앙방송)
  - 최태복(당중앙위 비서), 마원춘(국방위 설계국장 육군 중장) 동행
- 5/22,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김해신 등)에게 '감사' 전달(5.22,중앙방송)
- 5/23, 김정은 黨 제1비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5.24~25)를 즈음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 전달(5.23,중앙통신·중앙방송)
- 5/25,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마전기기계공장 현지지도(5.25,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황병서, 장정남, 변인선, 윤동현, 박정천, 홍영칠 동행

기타 (대내 정치)

- "조선의 백승의 원천은 맞받아나가는 공격정신"이라며 '黨 중앙委 2013년 3월 전원회의 기본정신(단호히 맞받아나가는 공격전으로 반미대결전과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에서 최후승리 이룩)'을 강조(5.21,중앙통신)
- '김정일, 금성청년출판사와 청년전위신문사 방문' 60돌 기념 보고회들, 5월 22일 최룡해(당 비서)·전용남(청년동맹 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5.22,중앙통신)

나. 경제

● 북한, 나선특구 외자유치 지원기구 설립(5/19, 중국신문사)

- 북한이 자국의 대표적인 경제특구인 나선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 투자지원기구를 설립했다고 중국신문사가 19일 전함.
- 신문은 북한이 17일 중국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에서 열린 관광전시회에 나선특별시 대표단을 파견, 나선특구의 관광자원과 산업 현황을 집중

적으로 소개하며, 배포자료를 통해 외자 유치를 위해 북한이 특별히 '나선투자복무처'를 설립했고 이는 외국 기업과 개인의 투자를 돕는 기구라고 소개했다고 전함.

● **"中 건설장비 제조업체, 北과 합작 추진"(5/19, 조선신보)**

- 중국의 국영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쉬저우 공정기계집단(XCMG)'이 북한 기업과 합작을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19일 보도함.
- 조선신보는 XCMG가 지난 12~15일 평양에서 열린 평양 봄철국제상품전람회에 참가해 북한의 조선기계무역총회사와 '합작을 위한 실무적인 사업'을 진행했다고 전함.

● **중국 창춘-북한 평양 전세기 관광 7월 개시(5/19, 중국신문망)**

- 북한과 중국이 올 들어 관광 분야 협력을 크게 확대하는 가운데 평양과 지린(吉林)성 창춘(長春)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7월 초부터 운항한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19일 보도함.

● **"이탈리아, 1년간 20만 유로 대북 인도 지원"(5/20, 자유아시아방송(RFA))**

- 이탈리아 정부가 지난 1년간 북한 임산부·신생아를 위해 약 20만유로(2억8천여만원)를 지원했다고 20일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탈리아 외무부 산하 개발협력청은 지난해 5월 말부터 유엔 산하 국제아동기금(UNICEF)을 통해 북한 임산부·신생아에게 육아용품 등을 지원함.

● **北, 러시아 밀가루 수입 급증…"中 의존 낮추기"(5/20, 연합신문)**

- 최근 러시아와의 경제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북한이 중국에 절대 의존해 온 식량 수입 루트를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20일 중국의 수출입 통관검사를 담당하는 국가질검총국 홈페이지에 따르면 북·중 간 교역량의 80%를 차지하는 랴오닝성 단둥(丹東) 세관을 통해 올해 1~4월 북한으로 반입된 러시아산 밀가루는 총 2천715t으로 집계되었으며, 이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밀가루 총량보다 41%가 많은 수치라고 전함.

● **스웨덴, 올해 대북 지원사업에 58억원 책정(5/21, 미국의소리(VOA))**

- 스웨덴 정부가 올해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에 570만 달러를 책정하기로 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1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스웨덴 국제개발협력청은 올해 대북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508만 달러보다 10% 이상 늘어난 570만 달러(58억4천여만원)를 배정했으며, 이중 지금까지 집행된 예산은 137만 달러로, 프랑스 민간구호단체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의 함경남도 일부 지역의 식수 개선사업에 30만 달러, '프리미어 위장스'의 황해남도 의료시설 개선사업에 60만 달러 등이 지원됨.

● **美 국무부, 북한 여행 주의보…"단체관광도 위험"(5/21, 미국의소리(VOA))**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거듭 강조하며 여행객에게 주의를 당부했다고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함.
- VO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해 11월에 이어 6개월 만에 북한 여행 주의보를 발표했으며, 여행사가 모집하는 단체여행에 합류하거나 관광안내인과 동행해도 여행 중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내용이 추가됨.

● **북한 전문 외국여행사들 "관광 일정 예정대로 진행"(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 위험주의보를 발령했지만 외국의 북한 전문 여행사들은 안전에 문제가 없다며 예정대로 관광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보도함.

● **작년 북한 대외무역 73억 달러…역대 최대(5/22, 연합뉴스)**

- 22일 코트라가 발표한 '북한 대외무역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남북교역을 제외한 북한의 대외교역 규모는 전년보다 7.8% 증가한 73억4천만 달러(7조5천억여원)를 기록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의 수출액은 11.7% 증가한 32억2천만 달러, 수입은 5.0% 늘어난 41억3천만 달러로 집계되었으며 무역적자는 전년(10억5천만 달러)보다 다소 축소된 9억800만 달러였다고 보도함.

● **EU, 올해 대북사업에 95억원 지원 계획(5/22,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올해 대북 사업에 총 675만 유로(약 95억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2일 전함.
- 또한 675만 유로의 대북사업 지원예산과는 별도로 5월 현재 이미 32만 유로(약 4억5천만원)를 대북사업에 지원했다고 전함.

● **"대북지원 모금 늘리려면 분배투명성 강화해야"(5/22, 자유아시아방송(RFA))**

- 국제기구가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한 모금을 늘리기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 분배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에릭 와인가트너 전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평양사무소장이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2일 전함.

● **北, 지방경공업 발전 독려…"스스로 살림살이 해결"(5/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지방 공장의 모범 사례를 내세우며 지방 경공업 발전을 독려함.
- 신문은 함경북도 회령시, 강원도 원산시, 자강도 진천군 등 지방 경공업의 '혁신' 사례를 소개함.

● **"北관료, 특구회의서 中 쑤저우공업원구에 관심"(5/23, 자유아시아방송(RFA))**

- 4월 북한에서 열린 경제특구 개발 학술회의에서 북한 관료들이 중국·싱가포르의 '쑤저우 공업 원구'에 큰 관심을 보였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싱가포르 대북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를 인용해 23일 보도함.

● **중국, 러시아 극동 자루비노항 개발 참여(5/23, 중국신문사)**

- 나진항, 청진항 등 북한 동북 지역 항만을 통한 '동해 출구' 확보에 주력해 온 중국이 러시아 극동 항만 개발사업에 직접 참여하기로 했다고 23일 중국신문사가 보도함.
- 북한, 러시아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은 최근 상하이(上海)에서 열린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에서 러시아 최대 항만운영기업인 슈마그룹과 연해주 하산구 자루비노항 개발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신문은 전함.

● **"中 투먼-北 남양 새 교량 착공 임박"(5/23, 연변일보)**

- 중국 당국이 지린(吉林)성 투먼(圖們)시와 두만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 남양구를 연결하는 새 국경 교량을 곧 착공할 예정이라고 연변일보가 23일 보도함.
- 이 교량은 투먼시 정부가 2010년 중앙과 지린성·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정부에 필요성을 보고한 뒤 조사, 기획 등 사전준비작업이 추진됐고 현재 부지 선정이 마무리돼 건설 인가를 받은 상태라고 신문은 전함.

● **北, 앙골라와 수자원개발 협력 강화 합의(5/23, 아젠시아 앙골라 프레스)**

- 북한이 앙골라와 수자원 개발사업을 비롯한 경제협력 방안에 합의했다고 앙골라 언론 '아젠시아 앙골라 프레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함.
-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 중인 리명산 북한 무역성 부상은 23일 앙골라 루안다에서 루이스 필리페 다 실바 앙골라 에너지·수자원 장관과 회담을 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양측이 "향후 추가 접촉을 통해 협력 분야를 구체화할 것"이라며 댐과 수처리 시설 건설사업 등을 주요 과제로 거론함.

● **北, 식량증산에 사활…"농업은 사회주의 최전방"(5/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제1제대 제1선 참호'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우리 당은 농업전선을 사회주의 수호전의 제1제대 제1선 참호로 내세우고 있다"고 밝힘.
- 정론은 "전선에서 제1제대라고 하면 작전 전투임무 수행의 최전방 전투서열이며 그 가운데서도 제1선 참호는 적들과 가장 가까이 대치하고 있는 전투 진지"라며 "제1선 참호가 억척이면 전 전선이 철벽이고 제1제대가 불패이면 조국이 굳건하다"고 강조함.

● **프랑스 NGO, 北 양로원 노인에 식량지원(5/24, 미국의소리(VOA))**

- 프랑스 민간구호단체인 '트라이앵글 제너레이션 휴머니테어'가 지난 3월부터 북한 양로원 노인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4일 보도함.
- 이 단체는 프랑스 외무부가 지원한 38만5천 유로(약 5억4천만 원)로 올해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북한 양로원 24곳의 노인 7천5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량 지원사업을 시행 중임.

北 경제사절단, 러시아·시리아 순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리룡남 무역상이 이끄는 '조선정부 경제대표단'이 러시아와 시리아를 잇달아 방문해 북한과의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리 무역상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북한-러시아 무역·경제·과학기술 협조위원회 제6차 회의에 참석하며 시리아 다마스쿠스에서는 북한-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에 참석함.

北, 중국산 디지털TV 수신기 수입 급증(5/25, 연합뉴스)

- 25일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에 따르면 중국은 올해 4월 북한에 LCD 디지털TV 수신기를 482만1천 달러(약 49억3천만 원) 어치를 수출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이 지난달 중국에서 수입한 물품 가운데 휘발유(1천257만 9천 달러), 디젤유(773만 달러) 등에 이어 5번째로 많은 금액으로 올해 1~4월 중국에서 수입한 LCD 디지털TV 수신기는 모두 1천766만8천 달러(약 180억9천만 원) 어치로 작년 같은 기간 402만9천 달러(약 41억2천만 원)보다 338%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황해남도에서 신원시멘트공장과 해주은정맥주공장 조업 및 생산 돌입(5.21,중앙통신·중앙방송)
- 검덕광업연합기업소, 5월 20일 20수직갱 건설 준공식 진행(5.22,중앙방송·평양방송)
- 北,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000톤 이상의 다시마를 생산하고 있다'고 보도(5.23,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北, 8월 평양서 국제프로레슬링 대회 개최(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올해 8월말 평양에서 국제프로레슬링 경기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라며 "대회에는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이름난 프로레슬링 강자들이 참가하게 된다"고 밝힘.

● **北, 문학예술인 연일 독려…"세계적 명작 창작하자"(5/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문학예술인들의 명작폭포로 당의 선군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실력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현 시기 문학예술인들의 가장 절박한 과업이고 문학예술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오래 활동한 창작가·예술인일수록 지난 경험에만 의지하지 말고 시대적 요구에 따라 실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北 평양 아파트 붕괴사고 '문책' 어떻게 될까(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사고 소식을 전하며 "살림집(주택) 시공을 되는 대로 하고 그에 대한 감독통제를 바로 하지 않은 일꾼들의 무책임한 처사"라고 언급, 이들의 과실을 지적함.

● **국제적십자사 "北, 아파트 붕괴 구호요청 없어"(5/20,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발생한 평양시내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아직 국제적십자사(IFRC)에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0일 보도함.
- IFRC 측은 북한 당국으로부터 지난 13일 발생한 아파트 붕괴와 관련해 피해 복구나 구호 요청을 받은 바가 없으며 사고 발생 사실이나 피해 규모도 아직 직접 듣지 못했지만 북한 당국이 아파트 붕괴 참사와 관련한 지원을 요청한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지원할 의사가 있다고 밝힘.

● **北, 南 아파트 사고 위로통지문 보도(5/2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20일 남조선 적십자사 총재가 위로 전문을 보내왔다"고 전함.

● **남북합작 평양과기대 내일 첫 졸업식(5/20, 연합뉴스)**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첫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연합뉴스가 20일 전함.
- 평양과기대를 북한 당국과 공동 운영하는 ㈔동북아교육문화협력재단 관계자는 20일 "내일 평양에서 제1회 졸업식이 열린다"며 "정보통신, 산업

경영, 농업식품공학 등 3개 분야에서 44명이 석사 학위를 받고 올해 가을까지 학사 과정 150명도 졸업할 예정"이라고 말함.

● **北, 창단 2년 모란봉악단 예술분야 '본보기'로 부각(5/19~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사설에서 "역사가 오랜 예술단체들에 못지않은 모란봉악단의 명성은 악단의 창작가, 예술인들의 남다른 창작·창조 기풍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며 모란봉악단을 치켜세움.
- 20일에는 1면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날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석자를 위한 모란봉악단 공연을 관람하고 나서 이 악단 배우들과 일일이 손을 잡고 격려하는 사진이 크게 실림.

● **北 '지식경제강국' 추진 핵심은 첨단기술개발구(5/21, 연합뉴스; 경제연구)**

- 북한의 계간 학술지 '경제연구' 최신호(4월 30일 발행)에 실린 '첨단기술개발구 창설은 지식경제시대의 필수적 요구'라는 제목의 논문은 "첨단기술개발구를 본보기로 해 첨단산업을 창설하고 경제 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당의 구상이며 지식경제 건설의 합법칙적 요구"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21일 전함.
- 논문은 "첨단기술개발구는 첨단과학기술과 생산이 밀착돼 연구-개발-생산-수출이 일체화된 지역적 거점"이라며 "지식과 기술, 인재가 일정한 지역에 집중되고 교육과 과학연구, 생산이 하나로 밀착되는 특징을 가지는 새로운 형의 지역으로 기술과 정보가 밀집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설명함.

● **북한 북부 지방에 최대 직경 4㎝ 우박(5/21,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1일 북한 대부분 지역이 맑았지만, 북부 지방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았다며 자강도 만포시에서는 직경 4㎝의 우박이 내렸다고 전함.

● **"평양과기대, 北 최초 4년제 간호학과 개설"(5/23, 미국의소리(VOA))**

- 남북 간 첫 합작대학인 평양과학기술대학이 북한에서는 처음으로 4년제 간호학 과정을 개설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3일 보도함.
- 평양과기대가 설립할 계획인 의과대학은 의학, 치학, 약학, 보건학, 간호학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간호학과는 4년제 학부 과정, 나머지 4개 학

과는 3년제 대학원 과정으로 운영된다고 VOA가 전함.

● **北 과학연구소 건설 붐…"지식기반 경제회생 노력"(5/25, 노동신문)**

- 북한이 평양 은정과학지구의 위성과학자거리에 각각 1만4천여㎡, 8천여㎡ 면적의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과학부문 연구소와 자연에너지연구소를 건설 중이라고 25일 노동신문이 보도함.

● **"북한 아파트 붕괴 관련 기술자 4명 총살"(5/25, 도쿄신문)**

- 북한 인민군 간부와 기술자 등 최소 5명이 평양 고층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숙청됐다고 도쿄신문이 25일 보도함.
- 신문은 '북한 관계자'를 인용, 아파트 건설 공사를 실질적으로 지휘한 인민군 7총국장은 해임과 동시에 강제수용소행 처분을 받았고, 설계와 시공을 담당한 기술자 4명은 총살됐다고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전국예술인대회는 주체문학예술발전사에 특기할 창작가·예술인들의 대회합'이라며 '문학예술부문의 전체 지도일꾼들과 창작가·예술인들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일으키며 선군혁명문학예술의 최전성기를 열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5.19,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리충일 선수, 국제권투 경기대회(러시아 하바롭스크) 남자 52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5.20, 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중앙·지방의 설계부문 일꾼들, 5월21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참관 및 현장에서 '건축미학토론회(오수용 黨 비서·김용진 내각 부총리 등 참가)' 진행(5.21,중앙통신·중앙방송)
- 제17차 평양봄철국제상품전람회 출품 "미안비누(삼건무역회사)·미래(묘향화장품공장)" 등 '미안제품·화장품들의 피부작용효과' 등 소개 선전(5.24,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日 "26~28일 북한과 국장급 회담 개최"(5/19, 연합신문;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외무성 국장간 회담을 개최한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19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협의의 의제는 일본인 납북자 문제가 될 전망이며, 일본은 자국민 납북 피해자 안부에 대한 재조사 실시 합의 등을 목표로 한다고 교도통신이 19일 보도함.

● **北 노동신문 "日경찰 조선총련 강제수색은 정치테러"(5/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0일 '총련 말살을 노린 비열한 정치 테러행위'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일본 경찰이 지난 12일 북한에서 송이버섯을 수입했다는 이유로 조선총련 관련 건물 20개소를 강제 수색했다며 "이는 총련을 말살하기 위한 악랄한 정치적 테러행위,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행위"로 "우리는 일본의 비열한 정치적 탄압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함.

● **北 노동당, 몽골 인민당과 상호협력 합의(5/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노동당과 몽골 인민당이 20일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은 20일 "조선노동당과 몽골 인민당 사이의 협조에 관한 합의서가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전함.

● **"26~28일 북일 협상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 참석"(5/22, 니혼게이자이신문)**

- 북한이 오는 26~28일 스웨덴 스톡홀롬에서 열리는 북한·일본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 국가안전보위부 인사를 참석시킬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닛케이)이 22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올해 1월 이후 본격화한 북한과 일본의 비공식 협의에서 국가안전보위부 당국자가 일본과의 창구 기

능을 했다면서 그동안 이어진 북일 협의를 사실상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국가안전보위부가 주도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함.

● **WFP 사무총장 "北변화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5/22, 연합뉴스)**

- 북한을 방문한 직후 방한한 어서린 커즌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사무총장은 22일 외교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방북시 북한 지도부의 메시지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그들(북한)은 우리가 한 모든 제안을 신중히 숙고했다"고 말하며 "기부국들로 하여금 추가 (대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변화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2일 전함.

● **北 신문 "조선총련, 북일관계 개선에 기여해야"(5/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으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전체회의가 열리는 24일 1면 사설에서 "총련은 최후 승리를 향해 나아가는 조국 인민들의 전진에 발걸음을 맞춰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과 강성국가 건설 위업을 앞당기는 데 특색 있게 이바지하며 일본 인민들과의 우호친선을 두터이 해 조일(북일)관계 개선과 자기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함.
- 또 "새 세대들과의 사업을 잘하고 그들을 애국활동의 주역으로 적극 내세워주며 새 세대 상공인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행해야 한다"면서 총련 조직을 확대하는 '동포되찾기 운동'을 강화하고 기층 조직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리수용 외무상 첫 외유…중동·아프리카 순방(5/2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4일 리 외무상이 중동과 아프리카 국가를 순방하기 위해 북한 대표단을 이끌고 평양을 떠났다고 보도함.
- 통신은 리 외무상이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개최되는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다고 전했지만, 그가 방문하는 나머지 국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음.

● 북한·일본, 내일 스웨덴서 정부 간 공식 협의 재개(5/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26일부터 3일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정부 간 공식 협상을 재개한다고 연합뉴스가 25일 보도함.
- 협상에는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리수용 외무상, 5월 1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스페인 외무 및 협조성대표단과 담화(5.19,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미국이 '프랑스-베트남전쟁' 시기 핵공격을 제안했던 사실을 영국 BBC방송이 보도 한 것 관련 '미국이야말로 인류를 항시적인 핵공포 속에 몰아넣는 핵위협의 장본인, 군비경쟁의 주범'이라고 비난(5.19,중앙통신)
- 김영남, 5월 20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세계식량계획 집행국장(어서린 카즌)과 담화(5.20,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 20일 주북 쿠바 대사 및 몽골 대사와 각각 담화(5.20,중앙통신)
- 차드 수상(칼제베 빠히미), 5월 15일 주차드 北 대사 '정영철'과 담화(5.21,중앙통신)
- '미국의 反北정책은 파탄을 면할 수 없다'며 "우리(北)는 앞으로도 사상의 위력으로 미제와 대결할 것이며, 미국을 파멸에로 몰아넣는 일대 결사항전을 벌릴 것"이라고 호언(5.21,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공식추진 방침(5.15, 총리 기자회견 등)'에 "흉악한 야망, 유엔헌장을 난폭하게 위반하는 범죄행위"라며 "세계 평화와 안전수호의 견지에서 절대로 허용될 수 없다"고 연일 비난(5.21,평양방송)
- 리수용(외무상), 5월21일 駐北 시리아 대사(타맘 술레이만) 면담(5.21,중앙통신)
- 駐챠드 北대사 정영철, 5월 15일 챠드 구국애국운동 총비서 면담(5.22,중앙방송·평양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24일 중국 신장(新疆) 위구르자치구 수도 우루무치(烏魯木齊)시에서 발생한 폭탄테러로 수 십명이 숨진 데 대해 중국 정부에 위로 전문(5.24,중앙통신)
- 조선총련 24일부터 이틀간 도쿄 조선문화회관에서 제23차 전체대회 개최(5.25,조선신보)
- 日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겠다'는 공식 발표에 대해 "자살적 망동"이라며 '일본을 과거처럼 침략을 하는 나라, 전쟁을 하는 나라로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난(5.23,중앙통신·노동신문)
- 미국이 세계 각국의 통신 및 컴퓨터망에 예산을 지출 한 것을 거론하며 '미국은 인터넷을 세계제패 야망실현의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인터넷을 통해 목표국가들에 정치적 타격을 가하고 정부 전복을 획책하고 있다'고 주장(5.23,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北 신문, 핵보유 정당성 강조…"美가 떠밀어 핵개발"(5/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미국 때문에 핵개발을 하게 됐다는 내용의 글을 4건이나 게재하면서 핵보유의 정당성을 거듭 피력함.
- 신문은 19일 '핵보유국으로 누가 떠밀었는가'는 글에서 "우리가 핵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든 것은 다름 아닌 미국"이라며 미국이 6·25전쟁 때부터 핵위협을 하고 '키 리졸브', '독수리연습' 등의 한미군사훈련을 계속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의 뿌리깊은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우리에 대한 노골적인 핵위협 소동이 우리나라를 핵보유국으로 떠밀었다"고 주장함.

● **北리용호 6자수석 방중…북중채널 접촉 가능성(5/20,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북한 외무성 부상이 20일 베이징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교도통신은 이와 관련, 리 부상이 몽골에 가는 길이며 방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20일 보도함.

기타 (6자회담(북핵))

- 美국방성 산하 방위정보국 보고서(北이 대륙간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하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관련 '미국이 우리(北)의 그 무슨 위협을 떠들며 핵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하는 조건에서 우리는 절대로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위협(5.19,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美 행정부가 내년도 예산에 핵무기 개량 및 현대화를 위해 '77억 8,000만 US$'의 예산 배정(2014년 대비 11.6% 증가) 한 것을 거론하며 '현 美 행정부의 세계제패 야망이 매우 위험한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5.20,중앙통신·민주조선)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朴대통령 세월호 대국민 담화 비난…"민심 우롱"(5/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발표한 대국민 담화가 민심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함.
- 조평통 서기국은 19일 발표한 '여객선 세월호 참사 진상고발장'에서 "박근혜와 그 패당이 '대국민담화'요 뭐요 하며 눈물까지 쥐어짜면서 민심과 여론을 우롱하는 노죽(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부려도 반인륜적 대범죄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이 전함.

● **北 '세월호 추모' 6·15공동행사 제안…정부 "불허"(5/21, 연합뉴스)**

- 6·15민족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는 최근 6·15 남측위와 해외측위에 6월 15일 개성에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열고 세월호 침몰의 슬픔을 함께 나누기 위한 공동 추모행사도 진행하자고 제안했으나 북측위의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실무 접촉도 어렵다며 불허 입장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1일 보도함.

● **北, 지방선거 앞두고 연일 '정권심판' 선동(5/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반역패당에게 두 번 다시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 등을 '기만놀음'으로 규정하고 "새누리당의 선거공약을 절대로 믿지 말아야 한다"고 전함.
- 신문은 새누리당의 지방선거 공약들이 "세월호 침몰 대참사를 빚어낸 저들의 용납 못할 죄악을 가리고 선거 참패를 모면하기 위한 교활한 술책일 뿐"이라며 "남조선의 각계각층 인민들은 반역패당의 민심기만 책동에 각성을 높이고 반(反) 박근혜, 반 새누리당 투쟁의 불길을 지펴올림으로써 최악의 위기에서 헤어나려고 발악하는 자들에게 참패를 안겨야 할 것"이라고 선동함.

● **北, 南해군 서해 함포사격에 "군사적 타격" 위협(5/21, 조선중앙방송)**

- 북한군 서남전선 사령부는 21일 '공개 보도'에서 "지금 이 시각부터 첨예한 서남전선 열점수역에 나와 제멋대로 돌아치는 크고 작은 괴뢰해군 함정들은 예외 없이 우리 서남전선군 사령부 관하 모든 타격수단들의 직접적인 조준타격 대상으로 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전함.
- 방송은 "남조선 괴뢰 해군은 우리 측 서남해상수역에서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던 아군 함선과 평화적인 중국 어선들에 무작정 총포사격을 가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아군의 해상경비계선과 서해 5개 섬 주변에서 벌어지는 사소한 도발도 포착되는 즉시 경고 없는 군사적 타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함.

● **北, '간첩조작사건' 재심 무죄 거론하며 南 정부 비난(5/2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2일 '남조선해방전략당' 사건으로 처형된 경제학자 고(故) 권재혁 씨가 최근 재심에서 무죄선고 받은 일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를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통신에 의하면 조평통은 22일 '서기국 보도'에서 이 사건에 대해 "과거 파쇼 도당이 조작한 간첩사건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어처구니 없는 것인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산 증거"라고 주장함.

● **北, 연평도 우리 초계함정 인근에 2발 포격(5/22, 연합뉴스)**

- 북한군이 22일 오후 연평도 근해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해군 유도탄 고속함 인근에 2발의 포격을 가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합참의 한 관계자는 22일 "오늘 오후 6시께 연평도 서남방 14㎞ 지점, 서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우리 측 해역에서 초계임무를 수행 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적 포탄 2발이 떨어졌다"며 "우리 군도 적 함정 인근에 즉각 수발의 대응사격을 했고 우리 군의 피해는 없다"고 밝힘.

● **북한군 "포격설은 날조…南 함정이 선불질"(5/23, 연합뉴스)**

- 북한군은 23일 전날 우리 해군 초계함에 대한 포격이 사실이 아니라며 오히려 남측에서 '선불질'(서투른 총질)을 했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23일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보도'에서 "(남측에서) 5월 22일 오후에 우리가 연평도 근해에 있는 제놈들의 함정에 포탄을 발사하였으며 그에 대한 맞대응으로 제놈들이 대응사격을 가한 것처럼 없는 사실을 꾸며대며 떠들어대고 있다"고 밝힘.

● **北매체, 노 前 대통령 "자살 아닌 정치적 타살" 주장(5/23,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3일 조국통일연구원 김승혁이 기고한 글에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부에 의한 '정치적 타살'이라고 규정하며 "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타살을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은 오직 남조선과 같은 최악의 정치 후진사회에서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밝힘.
-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북남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주장하고 정의를 지향하다가 불우하게 생을 마쳤다"라며 이에 반해 전두환 전 대통령은 큰 저택에서 골프와 바둑을 즐기며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南, 선거 前 '북풍'조작 책동…간과하지 않을 것"(5/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3일 박근혜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조작 책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를 "절대로 간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힘.
- 조평통 대변인은 23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최근 세월호 참사로 최악의 위기에 몰린 보수패당이 '북풍' 조작에 더욱 발악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라며 "여론의 시선을 분산시켜 현 위기를 모면하며 보수세력을 규합해 지방선거 정세를 역전시켜보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주장함.
- 특히 "군부 깡패 불한당들은 서해 5개 섬 수역에서 매일과 같이 총포 실탄 사격훈련을 벌여놓던 끝에 정상적인 경계근무를 수행하는 우리 해군 함선과 중국 어선을 향해 총포 사격을 가했다"고 주장함.

● **6·15남측위 "통일대박론 발목잡는 5·24조치 해제해야"(5/24, 연합뉴스)**

- 24일 연합뉴스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는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 조치 4주년을 맞은 24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박근혜 정부는 전임 이명박 정부의 5·24 조치에 스스로 발을 묶어놓고 정작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제대로 시작도 못하고 세월만 허송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는 '드레스덴 구상'을 제대로 실행에 옮기려면 5·24 조치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함.

- 이어 북한이 23일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겠다고 밝힌 것은 "남북관계 개선에 매우 중요한 기회"라며 "이 기회를 잘 살리기 위해서라도 대결주의 정책의 상징으로 그 시효가 이미 끝난 5·24 조치를 과감히 해제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통일대박론'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라고 덧붙임.

나. 경제·사회·문화

● 北, 드레스덴 선언 후 南 인도적 지원품 잇달아 거부(5/21, 연합신문)

-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 이후 정부가 반출을 승인한 인도적 지원 물품을 모두 거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21일 연합신문이 전함.
- 21일 통일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등에 따르면 한 대북지원단체는 4월 초 통일부로부터 반출 승인을 받고 북한에 의약품을 보내려 했지만 북측 민족화해협의회(민화협)가 거부 입장을 통보해 아직 준비한 물품을 보내지 못하고 있고, 민화협이 보낸 서신에서 "지원을 정치적으로 농락하는 것은 인도적 지원이 아니다"라며 "사전합의 없이 보내는 물품은 받지 않겠다"고 밝힘.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공식 발표(5/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올림픽위원회는 평화와 단합, 친선을 이념으로 하는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성원국으로서 오는 9월 19일부터 10월 4일까지 남조선 인천에서 진행되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조선선수단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힘.

● 교황 집전할 8월 명동성당 평화미사에 北천주교 초청(5/25, 연합뉴스)

- 25일 천주교에 따르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와 서울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지난 18~19일 중국 선양에서 북한의 조선천주교협의회 관계자들

을 만나 8월 18일 교황 프란치스코가 서울 명동성당에서 집전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미사에 참석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기타 (대남)

- 통일대박론 관련 '남북관계의 파국을 노린 극악한 반통일대결론, 위험천만한 북침전쟁론'이라며 '뒤집어놓은 전쟁 대박론, 침략대박'이라고 지속 비난(5.19,중앙통신·노동신문)
- 세월호 참사 관련 '썩고 병든 남조선 사회의 집중적 반영인 동시에 박OO패당의 총체적 무능과 반인민적 정치에 대한 가장 적나라한 폭로'라며 '민심을 등진 자들은 인민의 버림을 받기 마련'이라고 연일 대통령 실명거론 비난(5.22,중앙통신·노동신문)
- 새누리당 후보들의 6·4지방선거 공약들에 대해 '기만술책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번 지방선거를 박OO 패당이 저지른 반역행위에 대한 성토장, 심판장으로 전변시키고 반역패당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야 한다'고 선동(5.23,평양방송)
-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관련 대국민담화(5.19)에 대해 "저들의 무능과 무책임을 가리우며 격앙된 민심을 가리기 위한 한갓 기만극"이라며 '6·4 지방선거에서 정권심판' 지속 선동(5.24,중앙통신·노동신문)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5.26-05.31

5월

5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평북 유리공장 시찰…생산현대화 또 지시(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대관유리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유리공장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장정남 인민무력부장, 변인선 총참모부 작전국장, 윤동현 인민무력부 부부장, 박정천 포병사령관, 홍영칠 노동당 기계공업부 부부장 등이 동행함.
- 김 제1위원장은 대관유리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광학측정기재들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김정은, 연일 평북 군수공장 방문…'현대화' 지시(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 소재 군수공장으로 알려진 '허철용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이 공장의 총조립장을 비롯한 여러 시설을 둘러보면서 생산한 기계의 구조와 성능, 기술적 특성을 파악한 후 "우리 식의 현대적인 기계들을 더 많이 생산하자면 공장에서 생산공정의 현대화를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고 말함.

● **北 김정은, 나흘째 평북 시찰…이번엔 軍산하 술공장(5/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북도에 있는 인민군 산하 룡문술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8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술공장에서 물여과공정, 술생산 및 포장공정, 저장고를 비롯한 여러 시설을 돌아보고 모든 공정이 고도로 자동화됐다며 만족을 표시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내각 부총리에 임철웅 추가 임명(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임철웅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지난 22일 발표됐다고 보도함.
- 북한은 지난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제13기 1차회의에서 내각 간부를 새로 임명하면서 로두철, 김용진, 리무영, 리철만 등 4명을 부총리로 발표했고 같은 달 30일에는 자강도 인민위원장을 지낸 김덕훈을 부총리에 추가로 임명함.

● **北 김정은,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시찰(5/29,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안남도의 명승지 연풍호에 있는 과학자휴양소 건설장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전함.
- 김 제1위원장은 지난 28일 룡문술공장까지 나흘 연속 평안북도 내 군수공장을 방문한 데 이어 지방 행보를 계속하며 작년 8월 연풍호에 과학자, 기술자들의 휴양소를 지어주겠다고 약속했고 올해 1월 평안남도 평성의 국가과학원에 이어 연풍호를 방문해 휴양지 건설을 거듭 강조함.

● **北 김정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 리모델링 지시(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돌아봤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가야금, 서예, 컴퓨터, 수영, 농구 등을 배우는 학생들을 지켜보고 이곳에서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을 키워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 건물을 개건(리모델링)을 지시하고 "궁전의 외부를 화강석과 고급 건재로 다시 시공하며 모든 시설물을 최상의 수준에서 갖추어 주자"고 말함.

김정은동향

- 5/26,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5.26,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5.27,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춘거리 경기관·경기장들과 평양체육관에 체육기재들과 설비들을 전달(5.27,중앙통신·중앙방송)
- 5/27,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체육기재들과 비품들을 전달(5.27,중앙통신·중앙방송)

- 5/28, 김정은 黨 제1비서, 용문술공장 현지지도(5.28,중앙방송·중앙통신·평양방송)
- 5/29,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시찰(5.29,중앙통신·중앙방송)
- 5/29, 김정은 黨 제1비서, 이천군 신당 축산전문협동농장 박연하 등에 감사 전달(5.29,중앙방송)
- 5/31,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5.31,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총리), 삼지연 혁명전적지 혁명사적 보존사업 현지 요해(5.28,중앙통신)
- 리수용(외무상), 5월 28일 '블럭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 외무상회의에서 연설(5.30,중앙통신·중앙방송)
- '혁명전통을 홀시하고 외면하면 사상이 병들고 혁명이 곡절을 겪게 된다'고 '백두의 혁명전통 계승 발전과 제국주의 사상문화 침투차단 위한 혁명전통교양 강화'를 강조(5.30,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일성 저작(조선노동당 건설의 역사적 경험, 1986.5.31) 발표일을 맞아 '당 건설과 당 활동에서 이룩된 고귀한 경험과 업적이 전면적으로 집대성되어 있는 대백과전서'라고 강조하며 '오늘 김정은 영도 따라 최후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해 나가고 있다'고 주장(5.31,중앙통신·노동신문)

나. 경제

● 중국인 대상 北 회령시 버스관광 27일 시작(5/26, 조선중앙통신)

- 중국인을 대상으로 두만강과 접경한 함경북도 회령시를 구경하는 당일치기 버스관광이 이달 27일부터 시작된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전함.
- 통신은 "김정숙(김정일 국방위원장 생모) 동지의 고향인 회령시에 대한 제1차 관광이 27일부터 시작된다"며 "관광은 중국에서 버스로 출발하며 기일은 1일간"이라고 밝힘.

● 北, 식량 증산 총력…"새 농법 도입 열성"(5/26,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6일 평안남도 남포시 협동농장 2곳의 모내기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 농장이 '정보당 10t'의 수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토양 관리와 벼모 기르기에서 실적있는 선진방법을 수많이 받아들였다"고 보도함.
- 이어 조선신보는 "경험이 많은 기존 방식으로 하면 일정한 수확고를 능히 달성할 수 있지만 계속 그렇게 하다가는 정보당 10t을 내기 힘들다"며 "경험이 적은 벼농사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도전적인 일"이라고 강조함.

● **北 '마식령스키장 빨리 가자'…관광교통 개선 '활발'(5/28, 연합뉴스;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지난 22일 북한의 '원산~금강산지구총계획'을 소개하며 철도, 도로 사업을 상세히 소개했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관광도시의 성격에 맞게 원산시의 중심도로를 확장하고 원산과 마식령스키장을 연결하는 25㎞ 도로를 현대적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포함됨.

● **"北, 오스트리아에 2억 달러 빚 못 갚아"(5/28, 미국의소리(VOA))**

- 북한이 오스트리아에 진 빚이 2억 달러(약 2천50억 원)에 달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오스트리아 일간 '디 프레세'를 인용해 보도함.
- 북한은 1987년 오스트리아와 채무조정 방안에 합의하고 1992년까지 760만 달러를 갚았지만 추가 채무상환은 하지 못했다고 VOA가 설명함.

● **북한, 중국인 관광객에 접경지역 속속 개방(5/28, 중국신문사)**

- 북한은 27일 중국 지린(吉林)성 룽징(龍井)시에서 관광버스를 타고 두만강 국경을 넘어 함경북도 회령시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 134명을 맞이했다고 중국신문사가 28일 전함.
- 북·중은 이날 개통된 회령시 당일 관광코스를 놓고 지난해부터 수차례 협상을 벌였으며 북한 국가관광총국이 지난 13일 이를 최종 승인해 중국인들의 관광이 시작되었다고 중국신문사가 전함.

● **北 "작은 광산이 이상촌 됐다"…'조선속도' 본보기(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조선속도로 세계를 앞서나가자'는 제목의 정론에서 "최근 몇 해 동안 초고속상승으로 몇 단계 연속 뛰어오른 3월5일청년광산은 눈덩이처럼 재부를 불쿠고(불리고) 전혀 없던 새로운 공업을 연속 새끼쳐 오늘은 하나의 거대한 첨단수준의 공업개발구로 면모를 완전히 바꾸었다"고 평가함.

● **"아일랜드 NGO, 작년 24억원 대북 지원"(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아일랜드 비정부기구 '컨선 월드와이드'가 작년 북한 주민의 식량·식수개선 사업에 240만달러(약 24억5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컨선 월드와이드'는 전날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작년 대북 지원 비용이 전년보다 30% 증가했다고 밝힘.

● **"中, 대북 임가공품 통관 절차 간소화"(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이 북한과 임가공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전함.
- RFA에 따르면 지린(吉林)성은 중국 기업의 위탁으로 북한에서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는 임가공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며 통관을 간소화한 사실을 밝힘.

● **"北, 함북 회령시 서양인 관광객에도 개방"(5/29,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최근 함경북도 회령시에 대한 중국인 버스 관광을 허용한 데 이어 서양인을 포함한 다른 외국 관광객에도 이 도시를 개방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9일 보도함.
- RFA는 외국인의 북한 관광을 주선해온 중국 베이징의 여행사인 고려투어가 올해 8월 18~26일 육로로 회령시와 청진시, 칠보산을 둘러보는 여행 상품을 내놓고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화학공업성 소금공업관리국 산하 제염소들, 5월 소금생산 성과(작년 대비 1.8배) 선전(5.26,중앙통신)
- 함경북도 청진 뜨락또르(트랙터) 부속품공장에서 '새 기술혁신안들을 창안·도입하여 요즘 매일 생산계획을 1.2배로 증대시키고 있다'고 선전(5.29,중앙통신)
- 강원도 원산제염소의 5월27일 현재 연간 소금생산계획 105% 완수(5.30,중앙통신·평양방송)
- 北 경제대표단(단장: 리룡남 무역상, 北-시리아 경제공동위원회 제9차 회의 참가), 5월29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아사드) 면담(5.30,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총리), 혜산시·대홍단군·백암군·운흥군 등 양강도의 여러 공장·기업소·농장들 현지에서 요해(5.31,중앙통신)
- 北, 마전해수욕장 개건공사(리모델링) 본격적으로 진행(5.31,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北, 평양 근교서 고구려 벽화무덤 또 발굴(5/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최근 평양시 근교에서 고구려 시기의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함.
- 통신은 "최근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 고구려 벽화무덤을 새로 발굴했다"며 "벽화무덤은 평양시 삼석구역 호남리 광대산 남쪽기슭에 자리잡고 있다"고 밝힘.

北 '삶의 질' 개선 선전…"동물원 증축하고 잔디 깔고"(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자에서 4면의 3분의 2가량을 할애해 평양 중앙동물원 보수공사 현장 소식을 이례적으로 상세히 전하며 현장공사 지휘책임자 인터뷰, 공사에 참여한 병사의 충성 맹세, 작업 성과 등 현장 소식을 6개의 기사와 2장의 사진에 담아 보도하며 동물원 재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임.
- 신문은 "공사가 완공되면 중앙동물원은 인민이 즐겨 찾고 인민들의 편의가 최우선·절대시 된 문화정서 생활 거점으로 변하게 된다"며 동물원의 증·개축 공사가 주민을 위한 국가적 배려임을 강조함.

北, 아시안게임 참가 앞두고 체육부문 '수장' 교체(5/27,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를 앞두고 내각의 체육상(장관급)을 교체된 사실이 27일 확인되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체육관 등에 체육기구를 선물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26일 열린 선물 전달 행사에 "최룡해 노동당 비서, 김영훈 체육상"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아시아축구연맹, 평양서 청소년팀 축구감독 교육(5/27, 조선중앙통신)

- 아시아축구연맹(AFC)이 평양에서 17세 미만 청소년 체육단의 감독과 지도교사를 대상으로 감독 교육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국제민간단체, 방북 "배구연수 계획 포기"(5/28, 자유아시아방송(RFA))**
- 체육 지도자로 구성된 국제민간단체인 '국제감독단'(Coaches Team International)이 북한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8일 전함.
- 이 단체의 루크 엘리 대표는 방북단은 대부분 대학교의 여자 배구선수들이라며 "북한의 핵실험 우려와 관광객 억류 때문에 북한을 처음 방문하는 대학생들과 가족의 불안감이 컸다"고 말함.

● **北 학생예술단, 노르웨이 베르겐 페스티벌서 공연(5/28, 조선중앙방송)**
- 북한 학생예술단이 노르웨이에서 열리는 베르겐 국제 페스티벌 무대에 올라 현지 언론과 관람객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8일 보도함.
- 노르웨이 방송·신문들은 연일 북한 예술단의 공연을 보도하며 큰 관심을 나타냈으며 페스티벌 관계자들도 예술단의 세련된 연주 모습에 찬사를 보냈다고 방송은 전함.

● **北, 문학 작품 현상모집 잇달아…창작 열기 높이기(5/29, 문학신문;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문학신문' 최신호(이달 17일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월 15일)을 맞아 열린 '전국 화문학 및 TV극문학, 만화영화문학 현상모집'의 수상자 명단을 게재함.

● **국제하키연맹, 평양서 하키감독 교육(5/29, 조선중앙통신)**
- 국제하키연맹(FIH)이 평양에서 북한 하키 감독을 상대로 강습을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9일 보도함.
- 통신은 "(이번 강습은) 감독들의 실무수준 향상에 좋은 계기가 됐다"고 평가함.

● **北, 연일 과학기술 성과 선전…"생산활동에 도입"(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조선에서 과학자, 기술자들이 우수한 발명성과를 내놓았다"며 여러 분야에서 개발한 발명품을 소개함.
- 통신은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연구사들은 번데기버섯(동충하초), 만년버섯(불로초), 고슴도치버섯(노루궁뎅이) 균실체의 배양방법을 밝혀냈으며 그 배양물을 이용한 기능성 음료를 만들어 냈다"고 밝힘.

● **北 "흡연율 낮추자" 캠페인…담배 가격 '껑충'(5/3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1일 세계 금연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하며 보건성 검열원을 인용,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담배 가격을 마음대로 낮춰 파는 현상에 대한 감독이 심화되고 국가적 조치에 따라 담배 갑당 가격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힘.
- 이 보건성 검열원에 따르면 북한은 최근 담배 관세를 식료품 관세보다 훨씬 높게 책정해 가격을 높이는 방법으로 수입 담배 흡연자 수와 판매량을 줄이고 있음.
- 31일 금연의 날 행사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담배 가격을 높이는 것이 담배 소비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통신은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국제권투 경기대회(러시아 하바롭스크) 참가 北 선수들(금메달 1개, 동메달 3개 획득), 5월 26일 평양 도착(5.26,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아시아축구연맹 주관 C급 감독강습(강사: 김영길·김진국) 진행(5.27,중앙통신)
- 김일성·김정일 형상 모자이크벽화, 평강군·이천군·연산군·문덕군·봉천·영대탄광·강계청년발전소에 각각 건립 및 준공식 진행(5.30,중앙통신)
- 조선축구협회, 5월26일~29일 '축구의료강습(강의: 안정혁·리학철·문시윤 등)' 진행(5.30,중앙통신)
- 北 민족유산보호지도국의 '비물질 민족유산(아리랑·연백농악무, 씨름, 막걸리, 김치담그기 등) 보호·발전사업 전개 및 유네스코와 세계유산목록 등록 추진' 보도(5.30,중앙통신)

2 대외 관계

● **중국, 동해 북한수역 조업 1년만에 재개할 듯(5/26, 중국해양식품망)**

- 26일 중국해양식품망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어업관리 당국은 올해 동해 북한 수역 원양어업을 신청한 선사들을 대상으로 소속 어선들의 출어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지난 22일 지시함.

● **北, 재일동포 '끌어안기'…연일 조선총련 대서특필(5/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김정은 체제 들어 처음 열린 조선총련 전체대회(5월24~25일)에 관한 기사로 전체 지면의 ⅓ 정도를 채움.
- 조선총련은 편지에서 "우리들은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을 온몸으로 간직하면서 세상이 천만번 바뀐다 해도 오로지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만을 믿고 따를 불같은 맹세를 다지고 또 다졌다"고 밝힘.

● **북일, 스웨덴서 협상재개…납치재조사 합의여부 주목(5/26,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3월 말 베이징(北京) 회담에 이어 약 2개월만에 만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26일부터 28일(현지시간)까지 마라톤협상을 벌일 예정으로, 송 대사는 회담에 앞서 "폭넓고 진지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고, 이하라 국장은 "적극적으로 논의해 현안 해결을 위해 조금이라도 진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힘.

● **조선신보 "北, 日과 정부협상서 포괄·집중적 협의"(5/27,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7일 북한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한 북일 간 협상이 26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시작됐다며 "2개월 만에 열리는 정부 간 회담에서 조선 측은 조일 평양선언 이행을 위한 포괄적이고 집중적인 협의를 계속 벌인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함.

● **北 "미군, 판문점서 적대행위 말라" 경고(5/27, 조선중앙통신)**

- 판문점의 북한 측 위수경무장(경비책임자)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최근 미군 측은 예민한 판문점구역에서 때없이 우리를 자극하는 불순한 도발행위에 매달리고 있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함.

● **北 신문 "美 '인권타령'은 언제나 침략전쟁 전주곡"(5/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논평에서 국제공동체가 미국에 '인권재판관'의 자격과 권한을 준 것도 없는데 미국이 다른 국가의 인권을 문제삼고 있다며 "미국의 인권 타령은 언제나 다른 나라들에 대한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을 위한 것으로 침략전쟁의 전주곡이 돼 왔다"고 주장함.

● **"북미 몽골 '트랙2' 접촉에 아인혼 前특보도 참석"(5/28, 미국의소리(VOA))**

- 최근 몽골에서 북한 6자회담 수석대표인 리용호 외무성 부상과 접촉한 미국 민간전문가 중에는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보도 포함됐다고 미국의소리(VOA)가 28일 보도함.

● **북일 정부 간 협상 종료…납북자 문제 등 평행선(5/28, 연합뉴스;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사흘 일정의 정부 간 공식 협상을 마무리했으나 일본인 납북자 문제와 대북 제재 완화 등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 측 협상 대표인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조선총련 건물 문제가 "그 어떤 경우에라도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고 취재진에 설명했다고 전함.
- 이어 교도통신은 28일 첫날과 둘째날 협상이 9시간에 걸쳐 이뤄진 반면 28일 마지막 협상은 약 1시간 만에 끝났다고 분위기를 전하며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협의가 끝나고 나서 "북한이 납치 문제에 관해 논의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세는 아니었다"며 양측이 이 문제를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하고 강조했다고 보도함.

● **北·日, 납치문제 재조사 합의…日 독자제재도 해제(5/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국장급 협의에서 일본 측이 납치피해자와 행방불명자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며 "우리측은 종래의 립장은 있지만 포괄적이며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일본인에 관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힘.
- 통신은 "일본 측은 적절한 시기에 공화국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실시를 검토하기로 했다"며 "일본 측은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재일조선인들의 지위문제를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함.
- 또 "일본 측은 공화국 측과 함께 조일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현안 문제를 해결하며 국교정상화를 실현할 의사를 다시금 밝히고 조일 두 나라 사이의 신뢰 조성과 관계개선을 위한 문제해결에 성실히 임하기로 했다"고 밝힘.

● **"북한, '납북의심자' 생존정보 일본에 전달"(5/30, 마이니치신문)**

- 북한이 납북됐을 가능성은 있으나 일본 정부에 의해 납북 피해자로 공인되지 않은 이른바 '특정 실종자'의 일부가 자국 안에 살고 있다는 정보를 작년 일본 정부에 전했다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30일 보도함.
-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 작년 말 북한이 복수의 경로로 이 같은 정보를 일본 측에 전해왔다고 소개함.

● **북한 송일호 대사 "조속히 납치문제 재조사 착수"(5/30, 연합뉴스)**

-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30일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납치 문제 재조사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협상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송 대사는 30일 베이징(北京) 서우두(首都)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특별조사위의 가동 시점과 관련, "조속한 시일 내에 쌍방이 행동 조치를 할 예정"이라면서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일본 측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자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함.

● **조선신보 "北·日합의는 평양선언 이행의 첫걸음"(5/30,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30일 북한과 일본이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에서 이뤄낸 합의를 "평양선언 이행의 첫걸음"이라고 평가함.
- 또한 조선신보는 스톡홀름 회담에서 북한과 일본이 이룬 합의 내용을 소개하며 "양국은 조일 평양선언에 따라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힘.
- 이어 2002년 평양선언 채택 이후 일본이 납치 문제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대북 제재까지 시행해 북일 간 외교협상을 침체에 빠뜨렸다며 "대북 제재의 해제는 일본과 조선이 협상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지적함.

● **"北 의료진, 러 하바롭스크 연수 추진"(5/3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과 러시아 하바롭스크주(州)가 북한 의료진을 하바롭스크주에서 연수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1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림청일 러시아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는 지난 26일 바체슬라프 슈포르트 하바롭스크 주지사와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함.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방부의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2대 駐日 美 공군기지(미사와) 배치(5월 말)는 '아-태지역에서 군사력증강 기도이며, 對北 적대시 정책의 집중적인 발로'라며 "자위적억제력 강화에 박차" 강조(5.27,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日 정부와 자민당의 '집단적자위권 용인움직임' 관련 전국 여론조사 실시(교도통신), 응답자 51.3% 반대결과를 강조하며 "일본반동들은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위험천만한 정치적 도박놀음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강조(5.27,중앙통신·민주조선)
- 日 하시모토 오사카 시장의 발언(국민이 조금이라도 위안부제도를 알 수 있게 됐다면 다행스러운 일)에 대해 "1년 전의 망언을 되풀이한 것으로 인류를 두 번 다시 욕되게 하고 과거범죄를 또다시 부정하는 망발"이라고 비난하며 '일본은 과거범죄를 깊이 반성하고 사죄와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5.29,중앙통신·노동신문)
- 박창율 쿠바 주재 北 대사, 5월22일 주재국 국가이사회 부위원장(글라디스 마리아 베헤라노 뽀르뗄라)에게 신임장 제출(5.30,중앙방송·중앙통신)
- 미국의 해상 이지스 요격시험 진행 관련 '우리 공화국을 어째 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해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미사일방위체계 수립책동에 광분하면 할수록 본토가 불소나기를 들쓰는 것을 더욱 더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경고(5.31,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북한군 "연평도 근해 포격설은 기만극" 거듭 주장(5/27, 조선중앙통신)**

- 북한군 서남전선사령부 대변인은 지난 26일 '조선인민군' 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북한군 포격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긴급안보장관회의를 소집하고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이 북한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고 말한 것을 거론하며 "(포격이 날조라고 부인한) 우리 군대의 정당한 주장을 우격대면서 2중기만극을 연출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함.
- 대변인은 이어 문답에서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남한의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긴박한 상황에서 발사원점을 확정한다는 현대적인 탐지수단이 '느닷없이 가동하지 않았다'고 하면서도 무작정 '북포탄 발사설'을 내돌리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인천 아시안게임 참가 발표 후에도 대남 비난공세(5/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자 5면 전면을 대남 비난 글로 채웠으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한 남한 언론 매체의 삽화도 실음.
- 이어 신문은 '세월호 정국을 덮어버리기 위한 음모 책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월호 참사로 고조된 반대 여론을 덮기 위해 '북풍 조작'에 열중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현 남북관계 최악…박근혜 정부와 해결될 것 없다"(5/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북남관계에 백해무익한 시대의 오물'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근혜 일당을 두고서는 북남관계에서 해결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통일을 이룩해 민족의 밝은 미래를 개척해나가자면 민족적 재앙의 근원인 박근혜 역도를 단호히 제거해버려야 한다"고 주장함.

● **北 조평통, 김관진 장관 강력 비난(5/29,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박근혜는 군부패당과의 결탁이 큰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29일 김관진 국방장관을 강력히 비난하며 "박근혜는 군부패당과의 결탁이 큰 후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지금 남조선에서 가장 위험한 세력은 군부 패거리"라며 "동족대결과 북침전쟁도발에 미쳐 있는 것도, 대내 통치와 북남관계 문제에서 실권을 거머쥐고 제일 갈개는(설쳐대는) 것도 군부"라고 강조함.

● **北 외무상, 비동맹회의서 韓·美 군사훈련 비난(5/30,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지난 28일 알제리의 수도 알제에서 열린 비동맹운동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 군사훈련을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0일 전함.
- 리 외무상은 연설에서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며 남한과 미국이 북한에 대한 '압살 책동'과 '핵전쟁연습'을 더욱 노골화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남조선에서 벌어지는 광란적인 전쟁소동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여 감행하는 비정상적인 특대형 도발행위들은 한계를 벗어나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천만한 지경"이라고 지적함.

● **김관진 "김정은 예측불가능 통치…北 불안정성 증대"(5/31, 연합뉴스)**

- 연합뉴스에 의하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31일 싱가포르 샹그릴라호텔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 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공식 오찬 연설에서 27개국 국방장관 등 고위급 참석자들에게 한반도 안보상황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설명하면서 "북한이 겉으로 보기에는 체제가 장악된 것으로 보이나 정치·경제적 취약성과 내부 모순, 김정은의 예측 불가능한 통치 스타일로 불안정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밝힘.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억류 南선교사 김정욱에 무기노동교화형(5/31,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억류 중인 남한 선교사 김정욱 씨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선고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1일 전함.
- 통신은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불법으로 입북한 김 씨에 대한 재판이 전날 각 계층의 군중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며 "재판에서는 피소자 김정욱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을 언도했다"고 밝힘.

기타 (대남)

-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관련 대국민담화 발표에 대해 "낯간지러운 수작"이라고 비난하며 '박OO가 계속 집권해 있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 참사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장(5.26,중앙방송·노동신문)
- 우리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한 사건을 거론하며 '비열하고 파렴치한 비인간적 처사'라며 '괴뢰패당은 천하에 둘도 없는 야수의 무리, 초보적인 인륜 도덕도 모르는 악의 집단'이라고 비난(5.26,중앙통신)
- 우리 軍의 '통일을 위한 5단계군사전략(4세대 전쟁 개념, 「합참」 주최 제4차 합동성 강화 대토론회)'은 "범죄적인 북침통일각본, 체제통일을 노린 전쟁각본"이라고 비난(5.27,중앙통신·노동신문·민주조선)
- 우리 당국의 '6·4지방선거를 겨냥한 북풍조작책동(北, 4월 핵실험설·국지도발가능성 등) 강화'를 주장하며 이는 "세월호 참사 책임 등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해보려는 것"이라고 선동 지속(5.27,중앙통신·노동신문)
-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의 회담(5.23 서울)에서의 '北 포격도발' 발언 관련 '날로 무분별해지는 대결망동을 철저히 제압하는 것은 평화와 민족의 안전을 담보하는 선결조건'이라며 '멋없이(하는 짓이나 모양새가 격에 어울리지 않고 싱겁게) 까불어대다가 가차 없는 징벌을 면치 못한다'고 위협(5.28,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국방부 대변인 기자회견 시 對北발언(역사 퇴행적인 나라) 관련 세월호사건과 전동차 충돌사고 등을 함께 거론하며 '사회의 모든 것이 거꾸로 흘러가게 만든 괴뢰패당의 궤변'이라며 '역사 퇴행적인 것은 남조선이고 박OO패당'이라고 왜곡 비난(5.28,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논평] 세월호 참사 관련 재차 '우발적인 재난이 아니라 박OO정권에 의해 감행된 특대형 학살만행'이라며 '모든 병폐와 후진성, 반인민성과 반인륜적 정체 등을 고스란히 집중적으로 드러낸 총체적 악의 산물'이라고 지속 비난(5.28,중앙통신)
-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잠수부들 일당 100만원, 1구 인양 시 500만원)에 대해 '잠수부들을 우롱하는 황당한 궤변'이라며 "괴뢰패당은 돈밖에 모르는 추물들로 모인 집단"이라고 비난(5.29,중앙통신)

06.01-06.08

6월
1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아동절' 맞아 김정은 '어린이 사랑' 부각(6/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일 2면에 실린 '세상에 부럼없어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우리 어린이들에게는 세상에서 제일 자애롭고 위대한 아버지가 계신다"라며 "원수님(김정은)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분은 세상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또 김 제1위원장이 고아원 원아들에게 물고기를 매일 공급하기 위해 수산사업소를 만들도록 하고 허약한 고아들을 군인 전용 병원인 대성산종합병원에 입원시켜 보살피도록 했다고 전함.
- 신문은 1일 4면에도 평양시 중구역 대동문유치원 방문 기사와 평양 3월3일탁아소를 소개하는 기사 등을 실으며 아동절 분위기를 띄움.

● **北 김정은, 평양 쑥섬 방문…'과학기술전당' 건설 지시(6/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평양 대동강의 쑥섬을 방문해 이곳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할 계획을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을 '쑥섬 개발사업' 현지지도에서 "과학기술지식 보급에 대한 수요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당에서는 인민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쑥섬에 현대적인 과학기술전당을 일떠세우기로(건설하기로) 결심했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부부, 과일농장·공장 시찰…"수확고 높여야"(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부인 리설주와 함께 평양의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을 현지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5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농장에서 더 많은 과일을 생산해 인민들에게 보내줌으로써 장군님(김정일)의 영도 업적을 길이 빛내나가야 한다"며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자면 과일의 정보당 수확고를 부단히 높여야 한다"고 독려함.

- 또 “과수와 축산, 축산과 과수의 고리형 순환생산체계를 효과적으로 이용해 과수원의 지력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며 “농장과 과수 연구 부문의 역할을 더욱 높여 과일 생산의 과학화, 현대화, 집약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윤정린 호위사령관 ‘상장’으로 강등(6/6, 조선중앙TV; 연합뉴스)

- 조선중앙TV는 5일 저녁 김 제1위원장의 증조부인 김형직의 묘에 헌화하는 행사를 방영했고 행사에서 윤정린이 상장 계급장을 달고 다른 간부들과 참석한 장면을 보도함.
- 중앙TV를 인용, 연합뉴스는 윤정린 호위사령관의 계급이 대장(별 4개)에서 상장(별 3개)으로 강등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6일 전함.

● 北 김정은, 만경대혁명학원서 ‘눈물’ 보여(6/7,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조선소년단 창립 기념일(6·6절)을 맞아 ‘혁명 유자녀’ 교육기관인 평양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해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만경대혁명학원 교직원, 학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걸음을 옮기던 김 제1위원장은 아이들이 울며 ‘아버지 원수님’, ‘아버지’라고 외치자 걸음을 멈추고 손수건으로 눈가의 눈물을 닦았다고 통신은 전함.

김정은동향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아동절(6.1)’을 맞아 평양애육원을 방문(6.2,중앙통신·중앙방송)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쑥섬개발사업 현지지도 및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 물미끄럼대 관람(6.2,중앙통신·중앙방송)
- 6/2, 김정은 黨 제1비서, 쑥섬개발사업 현지지도 및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 물미끄럼대 관람(6.2,중앙통신·중앙방송)
- 6/3,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5.16~17)에 모란봉악단의 창작자·예술인들을 내세워 준 것 관련 ‘문학예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예술인들이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을 바라는 뜻과 기대가 어려 있다’며 ‘주체100년대를 주체문학예술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6.3,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 6/3,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꾼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는 감사전달 모임, 6월 3일 진행(6.3,중앙통신)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 시찰(6.5,중앙통신·중앙방송)

- 6/5,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5일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에게 '대통령 再選' 축전 발송(6.5,중앙통신·중앙방송)
- 6/7,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여 교직원·원아들과 기념 촬영 및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찾아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구와 농구경기 관람(6.7,중앙통신·중앙방송)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호소문 발표('13.6.4) 1주년을 맞아 김정은의 호소문은 '천만군민을 끊임없는 대혁신, 대비약 속도창조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전투적 기치'라며 '전체 군대와 인민은 조선속도 창조의 불길 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을 더욱 힘있게 다그쳐 나가야 한다'고 강조(6.4,중앙통신·노동신문)
- '보천보전투 승리'('37.6.4) 77주년을 맞아 '보천보전투는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뒤통수를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였다'며 '보천보의 총성은 조선의 영원한 승리의 메아리로 울려가고 있다'고 주장(6.4,중앙통신)
- 블록불가담운동(비동맹운동)은 "반제자주역량"이라며 '성원국들의 단결과 연대성에 기초한 공동행동 강화의 反帝투쟁' 주장 및 '우리(北)는 블록불가담운동 강화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 다할 것' 피력(6.5,중앙통신·노동신문)
- 박봉주(내각총리), 평양육아원과 애육원 건설정형 현지에서 요해(6.6,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내년 黨 창건기념일 맞춰 대형사업 완료 독려(6/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북한 강원도 세포군 일대에 들어설 대규모 축산단지인 세포등판 건설 현황을 소개하며 "내년에 맞이할 당 창건 70주년까지 모든 건설을 끝낼 계획"이라고 보도함.
- 김기남 당 비서는 지난 4월 10일 평양시 군중대회에서 "당 창건 70돌까지 청천강계단식발전소와 세포지구 축산기지를 훌륭히 완공해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선물을 마련해야 한다"고 독려했다고 신문은 전함.

● "北 5월 식량 배급량 소폭 감소"(6/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당국이 지난달 주민에게 배급한 식량이 4월보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함.
- RFA는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을 인용해 지난달 북한 주민 1인당 하루 배급량이 410g으로, 전월 대비 10g 감소했다고 전함.

● **"北 쌀값 5개월 만에 가파른 상승…춘궁기 원인"(6/3, 데일리NK)**

- 3일 데일리NK의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7일을 기준으로 평양과 신의주, 혜산의 쌀값은 4월 중순과 비교해 1㎏당 각각 400원, 800원, 900원씩 대폭 오른 4천200원, 4천700원, 4천900원으로 나타남.
- 데일리NK는 북한 내부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농사가 잘되고 배급도 이뤄져 쌀 가격이 일시적으로 내리기도 했지만, 지금은 식량이 떨어져 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쌀 가격이 오르는 것"이라고 설명함.

● **"회령 가니 평양 온 기분"…北, 국경관광 연일 선전(6/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일 함경북도 회령시를 방문했던 관광객 인터뷰 기사를 싣고 "잘 꾸며져 평양에 온 기분", "유치원 어린이들의 공연에 경탄을 금치 못했다", "중국 사람들의 주요 관광 대상이 될 것"이라고 치켜세우며 이 관광상품을 크게 홍보함.

● **北에서도 도로사용료 징수…어떻게 하나(6/4,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4일 입수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14년 1호·1월20일 발행)는 '부동산사용료 계산의 과학성 보장에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라는 논문에서 독립채산제 기업소에 부과하는 농업토지, 건물, 어장 등의 부동산사용료를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고 강조함.
- 특히 도로사용료 계산이 중요하다며 "독립채산제 기업소들에서 도로사용료는 국가가 도로사용료를 납부하지 않기로 따로 제정한 자동차들을 제외하고는 기업소에 등록된 차종별 대수에 해당한 사용료 기준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뉴스는 밝힘.

● **북·중, 백두산 국경관광 2년 만에 재개(6/4, 연합뉴스)**

- 북한과 국경을 맞댄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허룽(和龍)시에서 출발하는 백두산 동파(東坡) 코스 관광이 2년 만에 재개된다고 4일 연합뉴스가 보도함.
- 4일 옌볜주 관광업계에 따르면 중국 허룽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북한 양강도 대홍단군, 삼지연군, 백두산 동파 코스를 둘러보는 중국인 단체관광이 6월 중순 다시 시작될 예정이라고 뉴스는 전함.

● **HP·IBM 등 美기업 68곳, 북한 중앙은행과 거래(6/4, 블룸버그통신)**

- 미국기업 68곳이 경제제재 대상인 북한의 조선중앙은행과 거래하며 미국 내 상당수 기업이 북한산 금을 자사 제품에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4일 전함.
- 통신은 4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거래상대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라는 금융개혁법(도드-프랭크 법안)에 따라 미국기업 1천277개사가 전날 마감시한까지 관련 보고를 했으며 이중 67곳이 북한 조선중앙은행과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함.

● **"올해 1~4월 북미 교역 급증…대부분 대북 지원품"(6/5, 자유아시아방송(RFA))**

- 올해 들어 북한과 미국의 교역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5일 보도함.
- RFA는 미국 상무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1~4월 북미 교역액이 1천793만 9천 달러(약 183억7천만 원)로 집계됐다고 전함.

● **중국 칭다오-북한 평양 전세기 관광 다음 달 개시(6/5, 청도신문망)**

- 중국 산둥(山東)성 칭다오(青島)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발하는 북한 4, 5일 관광이 다음 달 시작된다고 현지 인터넷 매체인 청도신문망이 5일 보도함.

● **"유엔공업개발기구, 北에 5개 환경지원사업"(6/6,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가 북한에서 5개 환경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6일 전함.
- 이 기구는 지난 4일 공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에 대기오염 줄이기 위한 기술 지원 등 5개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힘.

● **중국 단둥시, 북한 황금평 관광코스로 개발하기로(6/6, 연합뉴스)**

- 중국 내 최대 대북교역 거점인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가 단둥과 접경한 북한 황금평 경제특구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고 연합뉴스가 6일 전함.

- 뉴스에 의하면 판솽(潘爽) 단둥시 부시장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단둥 북·중 종합박람회는 이전 행사보다 관광협력과 문화교류의 비중을 크게 늘릴 것"이라며 "단둥관광산업 발전을 위해 박람회를 최대한 활용하고 황금평 관광과 북한 자가용 관광을 개시해 외지 관광객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러시아에 접경지역 다리 건설 제안"(6/7, 자유아시아방송(RFA); 연합뉴스)**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러시아 극동 연해주 정부를 인용해 리룡남 북한 무역상이 6일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주지사를 만나 북한 두만강역과 러시아 하산역 사이에 차량용 교각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전함.
- 한편 리 무역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연해주 지방에 건설자재를 공급하고 연해주에서 생산되는 유류제품과 농업가공품, 경공업원료 등을 수입하는 방안도 제안했으며 미클루셰프스키 주지사는 연해주 농업기술단지 건설 사업에 북측이 참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7일 연합뉴스가 전함.

● **"北, 내달 초 평양~상하이 직항노선 개설"(6/7, 미국의소리(VOA))**

- 북한 고려항공이 내달 초부터 3개월 동안 평양과 중국 상하이를 잇는 직항노선을 운항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7일 보도함.
- VOA에 의하면 이 노선은 다음 달 6일부터 10월 5일까지 일주일에 두 차례씩 운항하며, 매주 목요일 여객기가 푸둥(浦東) 공항을 떠나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하며 일요일에는 다시 상하이로 돌아가는 방식임.

● **중국 옌볜대, 북한 나선특구 개발 참여(6/7, 연합뉴스)**

-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볜대학이 북한 나선 경제특구 개발에 인력과 기술,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보도함.
- 옌볜대는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4일 '북·중 나선경제무역구 공동관리위원회'(이하 공동관리위)와 협력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7일 밝힘.
- 옌볜대는 박영호 총장과 공동관리위 왕융강(王永剛) 주임이 서명한 이번 합의서에 따라 나선특구 개발 수요에 맞는 인재 양성 및 교류, 기술 협력, 법률 서비스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중국 관광객들(40여 명, 올해 8회차)의 5월31~6월2일 '나선일대 자가용차관광(비파섬 등 탐승노정, 나선대흥무역회사·나진항 등 경제대상들 참관)' 진행(6.2,중앙통신)
- 사리원방직공장 노동자들 속에서 '5월말 현재 270여 명의 연간계획 완수자 - 상반년계획 완수자들 배출 및 4월말 현재 연간계획 101.5%초과 수행' 선전(6.2,중앙방송)
- 北 각 부문, 5월 인민경제계획 초과 수행(6.3,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北 교수 6명, 내달부터 캐나다서 연수"(6/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 대학교수들이 다음 달부터 캐나다에서 연수한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전함.
- 김일성종합대, 인민경제대, 원산경제대, 평양외국외대 등의 북한 교수 6명은 7월부터 6개월간 캐나다 밴쿠버의 브리티시컬럼비아대(UBC)에서 경제, 경영, 무역, 금융을 배울 예정이라고 RFA가 전함.

北 노동신문 "모란봉악단 창조기풍 따라 배우자"(6/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3일 북한판 걸 그룹으로 알려진 모란봉악단을 또다시 문화예술인들의 '본보기'로 치켜세움.
- 신문은 3일 1면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달 열린 예술인대회 연단에 모란봉악단 구성원들을 세운 것은 "모든 창작자, 예술인들이 모란봉악단을 적극 따라 배워 문학예술 창작·창조활동에서 근본적인 혁신을 일으켜나갈 것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밝힘.

北신문 "모든 소년단원은 김정은만 믿고 따라야"(6/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조선소년단 창립 68주년인 6일 1면에 실은 사설 '소년단원들을 주체혁명의 계승자들로 튼튼히 준비시키자'에서 "모든 소년단원들을 경애하는 김정은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결사옹위하는 선군시대의 소년혁명가, 소년근위대로 철저히 준비시켜나가야 한다"고 독려함.

北, 아동복지단체 '어린이후원협회' 설립(6/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아동복지를 위한 비영리단체인 '조선어린이후원협회'를 설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7일 보도함.
- 통신은 조선어린이후원협회가 "어린이들의 근본 권리를 옹호하고 건강, 영양, 지능발육, 생활 관련 봉사를 개선하며 그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 강성국가의 담당자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정부의 사업을 방조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고 있다"고 소개함.
- 또 협회는 최고결정기관인 '성원 총회'와 그 아래 '집행이사회'로 구성되며 "중앙급 옥류아동병원과 각 도 안의 육아원(고아양육시설)과 탁아소를 단계별 계획에 따라 후원한다"고 설명함.

"FAO, 향후 5년간 北 가축방역체계 개선"(6/7, 미국의소리(VOA))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앞으로 5년 동안 북한의 가축 방역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을 북측과 논의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7일 보도함.
- 샌드라 페라리 대변인은 FAO가 최근 이탈리아 로마에서 북측 관리들과 여러 차례 접촉하며 '북한 방역체계 개선 5개년 계획'을 설명하고 이를 위한 양측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VOA는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청춘거리 체육촌(평양시 만경대구역)의 '종합적인 체육문화기지로 개건·운영(종목별 경기관들과 축구경기장·체육인식당 등 면모일신, 체육기자재 구비 등)' 선전(6.2,중앙통신)
- 北 의학과학원 약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의약품들 소개(실리마린간염알약・노발간염수액, 간염・간질환치료제) 등 "보건실천에 기여" 선전(6.5,중앙통신)
- 北 축구선수, 2014년 아시아축구연맹 14살 미만 여자 지역별 선수권대회(5.30~ 중국 하북성) 1위 쟁취(6.5,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비영리단체 '조선어린이후원협회' 설립(6.7,중앙통신)
- 北 박진향 선수, '2014 아시아주니어 레슬링선수권대회'(몽골) 여자자유형 44kg급 경기에서 금메달 획득(6.7,중앙통신)
- '김정은 지시 관철' 만경대학생소년궁전 교직원들 궐기모임, 6월7일 김진하(평양시 黨 위원회 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6.8,중앙방송)
-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눈보라창작단, 다부작 예술영화 '포성없는 전구' 제1~5부 창작 발표(6.8,중앙통신)
- 김현경(女 자유형 48kg급)·신철우(男 자유형 50kg급) 선수, 6월7일 2014년 아시아청년 레슬링선수권대회(몽골) 우승·동메달 입상(6.8,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납북자 재조사 협의차 北당국자 방일 추진"(6/2, 교도통신)**

-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북한 당국자가 일본을 방문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2일 보도함.
-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북자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이후 북한 당국자를 일본으로 불러 실무자협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 **조선신보 "北日, 국교정상화 지향은 괄목할만한 일"(6/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일 스웨덴 스톡홀름 회담 합의를 계기로 "일본이 북한에 일방적인 요구만 해온 불합리한 구도가 청산될 것"이라고 주장함.
- 신문은 2일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납치문제만을 내세우며 대북 고립정책을 펴 온 일본 보수정권이 이번 합의에서 북한의 외교적인 노력을 인정하고 국교 정상화를 지향한 것은 '괄목할만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함.
- 또한 "합의에 재일 조선인 지위문제를 포함한 것은 일본 정부가 총련·재일동포에 대한 탄압을 강화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조선인 강제연행 피해자 조사 등 과거청산 문제도 논의할 수 있게 됐다"고 지적함.

● **일본 외무상 "납치문제 해결위해 총리 방북도 검토"(6/3,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외무상은 3일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 답변을 통해 "납치문제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과정에서 (아베 총리의) 방북 건에 대해서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다만 아베 총리의 구체적인 방북 시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덧붙임.

● **北 송일호 "北·日,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행동해야"(6/3, 조선신보)**

- 북한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가 "양국이 포괄적인 범위에

서 합의를 이룬 만큼 할 수 있는 문제부터 행동에 옮겨 관계 개선 분위기를 더 고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가 3일 전함.

- 그는 "일본의 일부 언론들이 합의된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억측 기사를 내보내고 있다"며 "합의정신과 상반된 논조가 여론화되면 북일 관계 개선에 장애물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함.

● **"북한, 납치재조사 협상 때 일본에 쌀·의약품 요구"(6/4, 교도통신)**

- 북한이 지난달 납북 일본인 재조사 문제를 협상하면서 일본 정부에 쌀과 의약품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4일 보도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비정부기구(NGO) 등 민간 차원의 인도적 물자 수송을 용인하는 수준에서 합의를 시도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밝힘.

● **北매체, 중러 친선 부각…"美패권주의에 타격" 주장(6/4~5,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노동신문은 4일 '관계발전을 추동한 중러수뇌상봉'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지난 5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상하이 정상회담을 높이 평가함.
- 신문은 중러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 관계를 보다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전망을 열어놓은 의의 있는 계기"라며 중러 간 대규모 천연가스 공급 계약, 해군 합동군사훈련 등의 협력 내용을 소개했다.
- 조선중앙통신도 5일 '객쩍은 허세'라는 논평을 통해 최근 미국이 밀접해진 중러관계에 대해 '놀라운 일이 아니다'며 의미를 애써 경시하고 있다고 주장함.

● **조선신보 "북일 합의, 양국 간 '고유 문제'에 관한 것"(6/5,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5일 북일 간 납북 일본인 재조사 합의가 양측의 '고유한 문제'에 관한 것이라며 북한 핵·미사일 문제가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함.
- 신문은 5일 관계개선의 로드맵, 조일(북일) 정부간 합의의 의미'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등이) 핵과 미사일 문제에서 미·일·남조선이 보조를 맞출 것을 요구하면서 조(북)일 관계의 진전에 쐐기를 박으려고 할지도 모른다"며 "반론의 유효한 수단은 '조선과 일본에는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고유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밝힘.

● **송일호 "조사위구성 조정 중…책임감 있게 준비"(6/5, 교도통신)**

-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는 북한과 일본의 합의에 따라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전면 재조사할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위한 내부 조정이 이미 시작됐다고 밝혔다고 5일 교도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송 대사는 납치 피해자를 포함해 관련된 모든 일본인을 대상으로 시행되는 이번 조사가 "예전의 (납치문제) 조사와 성격이 다르다"며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과 일본 사이에 정보를 공유하면서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조사위원회의 발족 시기나 조사 기간에 관해서는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음.

● **北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출범 환영"(6/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출범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내각 총리 명의의 축전을 보냈다고 5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팔레스타인 민족 통일정부 수립을 환영하며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한 민족 해방운동과 이슬람교 항쟁 운동의 노력을 평가한다"고 밝힘.

● **"북·러 나진항에 러시아 보조함대 주둔 논의"(6/5, 러시아의소리)**

- 북한과 러시아가 나진항에 드나드는 대형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러시아 보조함대를 항구에 주둔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5일 보도함.
- 북한은 러시아 극동 국경지역인 하산과 나진항을 잇는 철도와 관련 "24시간 철도 안전과 북한을 거쳐 제3국으로 운송되는 화물 보호를 위해 필요한 모든 대책을 취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고 방송은 전함.

● **"파나마 검찰, 北 청천강호 선장에 징역 8년 구형"(6/6, 미국의소리(VOA))**

- 파나마 검찰이 불법 무기밀매 혐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장과 선원 2명에게 각각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전함.

● **北 "미국인 에드워드 포울레 억류" 발표(6/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6일 "지난 4월29일 관광객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들어온 미국 공민 제프레이 에드워드 포울레는 체류기간 관광의 목적에 맞지 않게 공화국법을 위반한 행위를 감행하였다"고 밝혔음.
- 이어 "공화국 해당 기관에서는 그를 억류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임.

● **美국무부 "미국 시민 북한 여행하지 말라" 강력 권고(6/7,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북한이 지난달 방북한 미국인 관광객을 억류한 사실을 공식 확인하고 미국 시민들에게 북한을 여행하지 말 것을 강력히 권고했다고 연합뉴스가 7일 전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마리 하프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에 억류된 미국시민은 이번이 세 번째"라며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시민의 안녕과 안전이 미국 정부의 최고 우선순위"라고 밝힘.

● **일본정부 "'납북 의심자' 명단 북한에 제출"(6/8, 교도통신)**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8일 후지TV 프로그램에 출연, "특정 실종자 명단도 포함해 (납북 피해자 명단을) 외교 경로를 통해 북한에 제출했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함.
- 아울러 스가 장관은 납치 문제의 해결을 향한 작업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를 실시하더라도 북일협의를 계속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고 통신은 보도함.

기타 (대외 일반)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5월 31일 알제리 외무상(람단 라맘라)과 알제리 외무성청사에서 회담 진행(6.1,중앙통신·중앙방송)
- 리수용 외무상(北 정부대표단 단장), 6월1일 쿠웨이트에서 아시아올림픽이사회 위원장 및 쿠웨이트 아랍경제개발기금 총국장과 각각 회담(6.2,중앙방송·중앙통신)
- 北, 6월 2일 韓美의 '인권유린행위'를 주장하는 자료들을 유엔총회와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공식문건(A/68/869-S/2014/321호)으로 배포(6.3,중앙통신)
- 北 정부 대표단(단장: 리수용외무상), 6월 2일 쿠웨이트 추장계승자·민족회의 의장·내각사업담당 국무상을 各各 만나 담화(6.3,중앙통신·중앙방송)
- 일본이 '고노 담화' 검증을 위한 검증팀 만들고 첫 회의를 개최한 것에 대해 '역사의 진실과

정의를 뒤집고 군국화, 우경화를 다그쳐 재침야망을 실현하려는 흉악한 기도의 발로'라고 비난하며 '과거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촉구(6.4,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온 세계의 자주화는 '인류자주 위업의 당면한 투쟁목표'라며 '자주적이고 진보적인 나라 인민들은 온 세계의 자주화를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나가야 한다'고 주장(6.4,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오바마 대통령의 對北 '전략적 인내' 정책은 "어리석은 망상으로 한계점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며 美 북핵 전문가 등 '北과 대화재개 추진' 전언 및 '對北정책 전환' 지속 주장(6.5,중앙통신)
- 다른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원조 관련 '군사적 장악·통제와 신 식민주의 지배를 실현하려고 획책하는 이기적 목적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검은 속심을 절대 감출 수 없다'고 비난(6.6,중앙통신·노동신문)
- 리수용 외무상(北 정부대표 단장)↔감비아 외무상(아부바카르 아브둘라흐 쎈고르) 회담, 6월5일 감비아 외무성 청사에서 진행(6.8,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화 전시회(김정일 黨 사업 시작 50주년 관련), 6월1일~5일까지 중국 랴오닝성 대련시에서 진행(6.8,중앙통신)

나. 6자회담(북핵)

● 北통신, 美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은 "어리석은 망상"(6/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5일 '조선과의 핵대결에서 시간에 쫓기우는 미국'이라는 글에서 "미국이 '전략적 인내'라는 어리석은 망상을 고집한다면 북미 핵대결의 최후 승리는 정의의 핵을 틀어쥔 조선에 있다는 역사의 이치가 미국의 종말로 증명될 것"이라고 주장함.
- 통신은 또 북한의 1~3차 핵실험과 올 초 미사일 발사훈련을 언급하며 "(북한은) 핵보유국으로서의 대국적인 자세로 미국의 강경에는 초강경으로 대응하면서 여유 있게 대화와 평화의 기치를 더 높이 들었다"고 주장함.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지방선거 개입 노골화…"새누리당에 표 주지 말자"(6/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인민을 우롱하는 자들에게는 앞날이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새누리당은 이번 지방자치제 선거에서 인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모면하고 집권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발악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김관진 새 안보실장 또 비난…"대결에 맨 앞장서"(6/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일 '섶을 지고 불 속에 뛰어드는 망동'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우리 군이 최근 북한에 대한 '도발'을 거듭하고 있다며 "남조선 호전광들의 반공화국(반북) 대결 망동의 맨 앞장에는 극악한 군사깡패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 역도가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 자는 최근 언론들이 청와대 안보실장 후보로 자기를 거론하자 더욱 기세가 올라 박근혜에게서 점수를 따려고 물인지 불인지 모르고 헤덤비고 있다"고 비난했으나 김 장관의 국가안보실장 임명 사실은 언급하지 않음.

● **北 매체, 안보실장·국방장관 인사 비난…"대결 의지"(6/4,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4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과 한민구 전 합참의장의 국방장관 내정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반공화국(반북) 대결' 기조를 고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난함.
- 우리민족끼리의 '편집국 논평원'은 4일 기자와의 문답에서 "김관진 역도가 김장수의 뒤를 이어 국가안보실장 자리에 올라앉은 것을 두고 내외 여론은 박근혜가 계속 반공화국 대결과 전쟁 책동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여놓겠다는 흉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은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주장함.

● **北, 김관진 안보실장 임명 비난…"남북관계 개선 없다"(6/4,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4일 김관진 국방장관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임명으로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가 악화할 것이라고 경고함.

- 통신은 4일 '또 하나의 기만극'이라는 논평에서 "현실은 남조선에 김관진과 같은 악질 대결광신자들이 있는 한 북남관계가 민족의 기대에 맞게 개선될 수 없으며 조선반도의 정세는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것을 뚜렷이 보여주고 있다"며 "박근혜는 극악무도한 대결광신자를 청와대 안보실장으로 지명한 것으로 하여 초래되는 모든 후과(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함.

● **北 "南 지방선거, 집권세력에 경종"(6/7,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7일 지방선거 결과를 전하며 "분노한 남조선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이번 선거 결과는 집권층을 비롯한 보수정치권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고 주장함.
- 방송은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광역시·도 17곳 가운데 과거보다 1곳 늘어난 9곳을 석권했다며 "서울시장 선거에서 큰 차이로 이기고 서울시 25개 구청 가운데 20곳에서 후보를 당선시켰으며 호남 지역과 남조선 강원도 지역을 계속 차지했을뿐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으로 돼온 충청도 지역을 탈환했다"고 강조함.

● **北, 6·15선언 연일 부각…"남북관계 발전의 초석"(6/8, 평양방송)**

- 평양방송은 8일 "6·15공동선언은 민족의 대단합으로 나라의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원칙과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고 있다"며 "북남공동선언이야말로 북남관계 발전의 초석"이라고 강조함.
- 이어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과 민족공동의 번영을 바란다면 6·15공동선언을 옹호하고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덧붙임.

나. 경제·사회·문화

● **정부, 北에 김정욱씨 송환 강력 촉구(6/1, 연합뉴스)**

- 정부는 1일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형식적 재판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우리 국민에게 '무기노동교화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번 조치가 국제규

범은 물론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도주의 정신을 심히 위반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비판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어 정부는 "북한은 지금이라도 우리 국민을 조속히 석방해 우리측으로 송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아울러 송환되기까지 북한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김정욱씨 가족과 우리측 변호인이 접견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힘.

● 北 신문 "北인권사무소 한국 설치는 정치적 도발"(6/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4일 '인권유린자들의 모략 소동은 통할 수 없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유엔 북한 인권사무소의 한국 설치에 대해 "우리 공화국(북한)의 존엄높은 영상(이미지)을 흐려놓음으로써 동족 대결을 더욱 격화시키고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반공화국 적대행위이며 우리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정치적 도발"이라고 주장함.

● 北 '귀순 의사' 선원 2명 송환 촉구…"부당하게 억류"(6/5, 조선중앙통신)

-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는 5일 대변인 담화에서 남측이 표류 선원 2명을 돌려보내지 않고 있다면서 "선원 전원을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결과)에 대해 남측이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북측은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해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 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관례"라며 "선원들을 직접 대면도 못하게 하면서 돌려보내지 않는 것은 반인륜적 만행"이라고 비난함.

기타 (대남)

- 대통령을 풍자하는 포스터 발견(5.21, 강릉시 포남동)과 관련해 경찰의 수사에 대해 '불리한 선거 정세를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방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다'고 비난(6.1,평양방송)
- 서울고등법원의 故 김근태 전 의원 무죄 선고와 대법원의 '납북어부 간첩조작 사건' 재심 무죄 판결(5.29)을 거론하며 '과거 파쇼 독재정권시기 조작된 모략사건들이 완전히 날조된 것이라는 사실이 연이어 밝혀지고 있다'고 주장(6.1,중앙방송)
- 우리 군부의 '反北 도발소동확대(NLL 침범 北 경비정 등에 경고 사격 등)' 왜곡 주장과 함께 '맨 앞장에는 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가 있다'며 "괴뢰호전광들을 징벌해야 한다"고 위협(6.2,중앙통신·노동신문)

- 세월호 참사에 분노한 각계층의 반정부 투쟁 등 관련 '박OO패당이 반정부투쟁 열기를 막기 위해 발악할수록 멸망을 더욱 재촉하는 결과만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6.3,중앙통신)
- 용인시에서 일어난 미군의 성추행 사건(5.31) 등을 거론하며 '미군 범죄행위는 하루도 그칠새 없이 감행되고 있다'고 비난 및 '박OO와 같은 친미분자들이 사대매국정치를 하고 있는 한 미군 범죄행위는 절대 근절될 수 없다'고 주장(6.3,중앙통신)
- 北 적십자 중앙委 대변인 담화(6.5), '귀순의사 표명' 北 선원 2명에 대한 남한 당국의 "부당한 억류"를 주장하며 '즉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위협(6.5,중앙통신·중앙방송)
- 우리 정부의 '북풍 조작책동(北, 4월 핵실험설・국지도발 가능성 등)'을 지속 주장하며 이는 "세월호 대참사의 판세를 돌려보려는 악랄한 정치적 음모의 일환"이라고 비난(6.5,중앙통신 논평)
- 미국에서 진행되는 韓美 합동군사훈련(6.9~7.1, 美 캘리포니아 주)과 우리 동해에서의 연합해상훈련을 거론하며 '남조선 호전광들은 대참사로 궁지에 빠져들게 되자 전쟁소동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미제와 야합하여 핵선제 공격연습에 발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고 비난(6.7,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전제된 한국이 주도하는 통일' 구상을 "반민족적인 체제통일 망상을 실현하기 위한 간특한 요설, 북침핵전쟁도발 기도"라고 왜곡 비난(6.8,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

06.09-06.15

6월
2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장마철 앞두고 기상수문국 첫 시찰(6/1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기상수문국(우리의 기상청)을 찾아 기상관측과 예보의 정확성을 강조했다고 10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그는 기상관측에 오보가 많다고 지적하며 "기상관측과 예보사업을 잘해야 이상기후 현상에 의한 재해로부터 인민의 생명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부문에서 자연피해를 제때에 막을 수 있다"고 강조함.
- 또한 김 제1위원장은 "단기·중기·장기 예보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계 여러 나라와의 과학기술 교류사업을 활발히 진행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자연지리적 특성과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각종 관측망을 잘 배치하고 기상관측 설비들의 현대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푸틴에 축전…"전통적인 관계 강화 확신"(6/12,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러시아 국경절을 맞아 1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김정은 제1위원장은 축전에서 "친선과 협조의 오랜 역사를 가진 조-로(북-러)관계가 두 나라 인민들의 이익에 부합되게 확대발전되고 있는데 대해 기쁘게 생각하며 이 전통적인 관계가 쌍방 사이에 합의된 공동 문건들의 정신에 맞게 앞으로 더욱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한다"고 밝힘.

● **北 김정은, 동해 전방 섬 초소 여도방어대 시찰(6/13,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동해안 전방초소인 여도방어대를 시찰하고 부대 지휘관들을 표창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여도방어대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첫 시찰 이후 지난 2년간 "싸움준비 완성과 전투력 강화를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방어대의 면모를 새롭게 일신시켰다"고 소개함.

- 이어 김 제1위원장은 과수나무로 둘러싸인 병영 구내길을 걸으면서 “휴양소에 온 것만 같다”고 치하했고 오리, 거위, 토끼, 칠면조 등을 키우는 동물사에 들러서는 “마치 동물원 같다”며 만족을 표시함.

● 北 김정은, 해군 부대 시찰…실전같은 훈련 강조(6/14,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인민군 제863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4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의 시찰에는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이 동행했으며 해군 제597연합부대 부대장인 진철수 소장(별 1개) 등 부대지휘관들이 이들을 맞음.
- 김 제1위원장은 부대 내 혁명사적 교양실과 연혁실을 둘러본 뒤 군부대의 작전계획을 검토하고 실전 상황에서의 역할과 임무를 강조하면서 “연합부대의 전투임무 수행에서 이 군부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며 “모든 전투원을 다병종화, 다기능화된 진짜배기 싸움꾼, 백두산 호랑이로 준비시켜야 한다”고 지시함.

김정은동향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새전문 협동농장 현지지도(6.10,중앙통신·중앙방송) ・황병서, 최룡해, 한광상 동행
- 6/10, 김정은 黨 제1비서, 기상수문국 현지지도(6.10,중앙통신·중앙방송)
- 6/13, 김정은 당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여도방어대 시찰(6.13,중앙통신·중앙방송)
- 6/14,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863군부대 시찰(6.14,중앙통신·중앙방송)
- 6/14, 김일성의 청진항(함경북도) 현지지도('74.6.13) 40주년 기념보고회, 6월 13일 전승훈(함경북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6.14,중앙방송)

나. 경제

● 北, LED 생산공장 대대적 선전…에너지 절약 독려(6/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9일 ‘최첨단에로 도약하는 록색 에네르기 제품 생산기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최근 완공돼 가동 중인 광명 LED·태양전지 공장을 자세히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기술 연구부터 제품 개발, 생산, 판매 등의 기능이 일체화된 '녹색 에너지 제품 생산기지'로 소개하며 "100W의 백열등 한 개를 10W 레드등으로 교체해 절약되는 전력량은 수십만t의 석탄과 맞먹는다"며 "몇몇 나라들의 독점물이었던 녹색 에너지 제품이 우리나라에서 꽝꽝 생산된다는 것은 자랑할만한 일"이라고 치켜세움.

● **中 훈춘-北 나선 육로국경 일요일도 출입국 허용(6/9, 중국신문사)**

-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가는 중국 관문인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 취안허(圈河) 통상구와 북한 원정리 통상구는 중국인 관광객의 나선특구 방문 편의를 위해 일요일도 근무하기로 합의하고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신문사가 9일 보도함.

● **외자 유치 목마른 北, '장롱 달러'에 눈독(6/10,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연합뉴스)**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2014년 1호·1월20일 발행)에 실린 논문 '김일성-김정일 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재정관리의 기본방향과 자금문제 해결 방도'는 방대한 국방·경제 건설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으로 '유휴화폐 자금의 동원'을 들었다고 연합뉴스가 10일 전함.
- 논문은 "일부 화폐 자금은 정상적인 생산과정이나 유통통로에서 벗어나 일시적으로 기관·기업소·주민들의 수중에 머물러 있게 된다"며 "유휴화폐 동원은 국가의 자금 수요를 충족하는 보충적 원천으로 재정수입을 늘려준다"고 설명함.

● **"北 주민, 10가구 중 8가구 식량 부족"(6/10,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의 북한 현지 조사결과 주민 10가구 중 8가구가 식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0일 보도함.
- RFA는 WFP가 발간한 '대북지원사업 2014년 1분기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 주민 160가구 중 36%가 식량 부족상태였고 43%는 식량 부족 직전 상황이었으며, 45%는 친구·친지에게 식량을 빌리거나 값싼 음식으로 식단을 바꿔 식량 부족 위기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함.

● **북한, 압록강 접경지서 중국 농산물 위탁생산(6/10, 길림일보)**

- 북한이 중국 접경지역에서 고부가가치 농산물을 위탁생산하는 경제협력을 시도하고 나섰다고 중국 길림일보(吉林日報)가 10일 보도함.
- 자강도 중강군과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중국 지린성 린장(臨江)시의 한 농업회사는 올해 북한 측에 목이버섯 생산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함.

● **석유수출국기구 "北 식량상황 따라 올해도 지원 검토"(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2013년도 하반기, 11년 만에 대북 식량지원을 재개했던 석유수출국기구(OPEC) 산하 국제발전기금(OFID)이 올해 북한의 식량상황에 따라 추가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가 11일 보도함.
- RFA는 11일 OFID의 아르아 우시스 홍보국장을 인용해 이 기구가 지난해 하반기 대북 식량지원을 위해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에 40만 달러(약 4억 원)를 기부했다고 전함.

● **"北 아리랑 공연 취소로 중국인 관광객 감소"(6/11,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올해 대규모 집단체조인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 탓에 북한을 관광하고자 하는 중국인들이 감소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함.
- 영국의 루핀 여행사는 오는 7~8월 북한 관광상품 예약 실적이 과거보다 저조해 북한이 올해 아리랑 공연을 취소한 이후 중국인의 약 40%가 북한 관광상품 예약을 취소했다며 "북한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가운데 아리랑 공연 관람이 목적인 사람은 90%나 된다"고 RFA에 설명함.

● **국제적십자사, 이달 25일 영국서 대북지원 연례회의(6/11, 미국의소리(VOA))**

- 국제적십자사연맹(IFRC)이 이달 25일부터 이틀간 영국에서 북한 조선적십자사와의 대북지원 협력 증진을 위한 연례회의를 개최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11일 보도함.
- 회의에는 스웨덴·호주·영국·중국·덴마크·핀란드·독일·이란·노르웨이 등

9개국 적십자사 관계자가 참석해 사업 성과와 문제점,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北협동농장 포전담당제, 개인분배량 최대 4배 차이"(6/11, 중국중앙TV)**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 농업 증산을 위해 일선 협동농장에 보급 중인 '포전담당제'가 효과를 보고 있다고 중국중앙(CC)TV가 11일 보도함.
- CCTV는 평양시 순안구역의 조중친선 택암협동농장을 현장 취재한 리포트에서 2012년 북한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시작돼 점차 확대 시행되고 있는 포전담당제가 농민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고 전함.

● **北, 연일 서해 수산실적 선전하며 증산 독려(6/1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1일 1면 사설에서 서해 몽금포중심어장의 군인들이 지난달 말까지 2개월여 동안 잡은 '건뎅이'가 과거 한 해 실적의 약 5배에 달한다고 소개함.
- 신문은 김 제1위원장이 지난해 12월 방문한 동해의 8월25일수산사업소에 이어 서해에서도 '승전 포성'이 터졌다며 이는 "수산업을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보조타격방향으로 정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의 현명한 영도의 결실"이라고 주장함.

● **北 유일 보험사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홈페이지 개설(6/11,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11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 인터넷홈페이지(www.knic.com.kp)에는 회사 소개와 서동명 총사장의 보고, 회사 구조, 재정자료 등이 올라와 있다고 소개함.
- 홈페이지는 회사의 최고경영관리기구인 경영집행위원회에 소속된 서동명 총사장 등 7명의 사진과 담당업무와 재산보험국, 생명보험국 등 부서별 업무도 간단히 설명했으며 2012년 총보험료 수입이 북한 화폐로 489억500만원이고 순소득은 55억4천400만 원으로 나타났다고 뉴스는 전함.

● **세계기상기구 "北 요청 있으면 관련 지원 검토"(6/12, 미국의소리(VOA))**

- 세계기상기구(WMO)가 기상관측의 현대화와 관련해 북한의 요청이 있으면 지원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2일 보도함.

- 크리스티언 블론딘 WMO 대외담당 국장 겸 사무총장 비서실장은 최근 기상관측 사업의 현대화를 지시한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VOA가 전함.

● **北, 러·중과 철도관광 확대…평양-모스크바 노선도 추진(6/12, 내나라)**

- 북한의 대외용 포털사이트인 '내나라'는 12일 국제여객수송업 분야에서 홍콩 국제투자유한공사와 합작하고 있는 '조선국제철도여객합작회사'를 소개함.
- 지난 2012년 4월 설립된 조선국제철도여객합작회사는 현재 평양과 단둥·베이징·선양 등 3개 노선에서 여객열차를 운행하고 있다며 가까운 시일 내에 러시아와 협력해 평양과 블라디보스토크·하바롭스크·모스크바를 오가는 여객열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힘.

● **'노동관광'에서 건축관광까지…北, 이색관광상품 출시(6/12,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2일 북한이 다양한 전문관광상품들을 선보였다며 이를 자세히 소개함.
- 신문은 지난달 말 독일, 영국, 미국 등에서 온 등산애호가들이 금강산에서 9박10일간의 등산관광을 했으며 스위스인 등산애호가들은 묘향산에서 2박3일의 등산관광을 진행했다고 전함.

● **北, 원산·금강산 일대에 '국제관광특구' 설치(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강원도 원산과 금강산 일대를 아우르는 대규모 경제특구인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설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통신은 이날 북한이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산-금강산 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대한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정령이 11일 발표됐다고 전함.

● **北 건설붐에 가구업체 급성장…"대외시장에도 진출"(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지난달 초 재개장한 원산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가구들이 모두 영광가구합영회사 제품이라고 소개함.
- 이어 이 회사가 마식령스키장 호텔과 평양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 살림집(주택), 류경구강병원, 옥류아동병원, 문수물놀이장에도 납품했다고 전함.

● **"北, 시리아와 과학기술·미디어 협력 강화 합의"(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이 지난달 말 시리아와 과학기술 및 미디어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3일 시리아 언론을 인용해 전함.
- 시리아 언론에 따르면 시리아 문화부 청사에서 열린 경제공동위원회에서 북한과 시리아는 산업·무역·투자·은행·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합의함.

● **북·중, 두만강서 유람선 운항 추진(6/13, 연합뉴스)**

- 북한 나선특별시와 접경한 중국 지린(吉林)성 훈춘(琿春)시의 정부기관 관계자는 13일 "북·중 국경인 두만강의 하류에서 내년부터 유람선을 운항하는 방안을 북한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면서 "두만강에서의 선박 운항은 양국이 합의해야 가능하며 중국 측 강변에 부두를 설치해 관광객을 맞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 관계자는 "두만강 하류의 얕은 수심과 좁은 강폭을 고려해 30인승 규모의 소형 선박을 운항할 것"이라고 말함.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1)] 강원도 원산-금강산지구에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를 내오기로 결정(6.12,중앙통신)
  - 원산-금강산국제관광지대는 원산지구, 마식령스키장지구, 올림폭포지구, 석왕사지구, 통천지구, 금강산지구가 포함되며 해당 지역과 대상에 따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경제개발구법, 외국투자관련법규들이 적용됨.
- 함경남도 북청군에 수백정보의 청춘과수원 새로 조성(6.13,중앙통신)

다. 사회·문화

● **北, 김정은 '영화혁명' 촉구 후 첫 시리즈 영화 제작(6/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9일 "조선예술영화촬영소 눈보라창작단에서 다부작 예술영화 '포성 없는 전구' 1~5부를 창작해 내놓았다"며 장편소설 '포성 없는 전구'를 영화화했다고 밝힘.

- 방송은 이 영화에 대해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위해 적구(적지역)에서 미제의 침략전쟁 모략을 밝혀내며 용감히 싸우는 조국의 장한 아들딸들의 투쟁모습을 진실하게 형상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대표 예술단체 줄줄이 지방 순회공연…왜(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남자 군인들로 구성된 공훈국가합창단이 자강도에서 순회공연을 시작했다고 10일 보도함.
- 신문은 모란봉악단의 양강도 순회공연이 끝난 바로 다음날 이 공연이 "사상일꾼대회의 기본정신과 경애하는 원수님(김정은)께서 제시하신 강령적인 과업들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관철한 장엄한 음악 포성"이었다고 강조함.

● **북한, 아리랑 인류무형유산 등재 신청(6/10, 연합뉴스)**

- 10일 문화재청과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에 따르면 북한이 'Arirang Folk so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아리랑 민요)라는 이름으로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신청한 아리랑에 대한 등재 여부가 오는 11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제9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전함.

● **北에서도 출산 적극 장려…다산모에 '영웅' 칭호(6/11, 연합뉴스; 조선중앙방송)**

- 자녀를 10명 가까이 낳은 다산모(多産母)를 '모성영웅'이라 부르며 사회적으로 우대하고 지원해주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전함.
- 조선중앙방송은 최근 한 모성영웅이 10번째 자녀를 출산해 북한 사회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고 보도하고 평안북도 천마군 서고리에 사는 박금옥(44)씨가 지난달 26일 평양산원에서 딸 아이를 순산했다며 신생아의 몸무게는 3.78㎏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함.

● **"北 나선지역에 러시아·체코 식당 등장"(6/12,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나진·선봉 지역에 러시아·체코 등 유럽식 식당이 들어서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싱가포르의 대북교류단체인 '조선 익스체인지'를 인용해 12일 보도함.

● **북한도 10~11일 곳곳 우박…최대 지름 2.5㎝(6/12, 조선중앙통신)**

- 북한 곳곳에서 지난 10~11일 우박과 폭우가 쏟아졌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2일 보도함.
- 중앙통신은 11일 오후 평안북도 천마군에서 직경 10㎜의 우박이 떨어지고 폭우가 내려 강수량도 40㎜에 달했다고 전함.

● **"'토크쇼 출연' 北김정은 암살"…美영화 예고편 화제(6/13, 미국의소리(VOA))**

- 미국 컬럼비아 영화사가 김정은을 주인공으로 설정해 만든 제작비 3천만 달러 규모의 코미디 영화 '인터뷰(The interview)'의 예고편이 공개되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3일 전함.
- VOA에 따르면 이 영화는 미국의 한 TV 토크쇼 사회자와 연출자가 김정은과의 인터뷰를 성사시키면서 시작된다고 전함.

● **백두산 천지에 빙어도 산다…北, 서식 어종 확대(6/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백두산 천지에 물고기 자원이 또 늘어나게 되었다"며 "최근 백두산천지종합탐험대에서 수정된 빙어알을 백두산 천지에 넣어주었다"고 밝힘.
- 이어 "천지에 산천어를 넣어 자래운(기른) 경험에 기초하여 원봉저수지에서 빙어를 옮겨 천지에서 서식시키기 위한 집중적인 연구사업을 진행하였다"며 백두산 천지종합탐험대가 1980년대 초 천지에 산천어를 널리 퍼뜨린 사례를 소개함.

● **北 "과학기술 배우자"…곳곳에 '기술 보급기지'(6/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내각 산하 발명총국에 최근 발명권, 특허권을 받은 과학기술성과를 보급하는 지적제품전시장이 새로 설치됐다고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류철호 발명총국 처장은 전시장의 역할에 대해 "지적제품 유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명백하게 주고 새로운 기술의 교류, 유통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김현경 선수,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열린 2014 아시아청소년레슬링선수권대회 여자 48kg급 경기에서 1위(6.9,중앙방송)
- 제17차 정일봉상 전국 태권도선수권대회, 6월 9일 태권도전당에서 개막(6.9,중앙통신)
  - 최룡해(黨 비서), 김경호(태권도위원장, 개막사) 등이 참가
- 국가나노기술국에서 개발한 '소독수 제조기(소금물을 전기분해하여 복합 소독수 생산)가 사용자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선전(6.10,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순회공연, 6월 14일 희천시에서 진행 및 6일간의 자강도 순회공연 성과 선전(6.14,중앙방송·중앙통신)
- 전국 청소년학생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답사행군대원들, 6월 15일 백두산밀영 고향집을 방문하고 김정은에게 보내는 편지 채택모임 진행(6.15,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조선신보 "北·러시아는 전략적 이익 동반자"(6/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9일 '메아리' 코너에서 북러 간 경제협력 관계가 빠른 속도로 진전되고 있다며 무역 대금의 루블화 결제 합의 등 최근 양국 간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며, 러시아가 북한의 채무 중 90%를 탕감하기로 한 데 대해 "푸틴 대통령의 이 파격적인 조치는 2001년 조로 수뇌회담(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모스크바 선언 정신에 따른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함.

● **싱가포르, 北청천강호 사건연루 혐의 해운사 기소(6/10, AP통신)**

-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10일 북한으로 무기를 수송하는 데 연루된 자국 업체 친포해운과 주주 겸 이사인 자국민 시민 탄 후이틴(50)을 기소함.
- 통신에 따르면 친포해운은 지난해 7월 8일 파나마 소재 해운 업체에 7만2천달러를 송금했으며, 이 자금은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 관련 활동에 쓰였을 것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음.

● **"日, 北납치조사위 김정은 직할조직화 요구"(6/12, 산케이신문)**

- 일본이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납치문제 재조사를 위해 구성될 북한의 특별조사위원회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할 조직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정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2일 보도함.

● **일본 "납치조사 실행하면 대북제재 3가지 동시해제"(6/12, 연합뉴스)**

- 일본 정부가 북한이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일본인 납북자 재조사를 실행하면 약속한 제재 3가지를 동시에 해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2일 전함.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대북 독자 제재 해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조사위원회가 출범하면 그 조직 전체에 관한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구체적인 조사라는 것을 실행한

다"며 "그런 것을 판단한 단계에서 발표한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다고 생각한다"고 말함.

● **北, 북일 합의에도 '日 과거사 왜곡' 계속 비난(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일본은 내일을 생각해야 한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일본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을 언급하며 과거사에 대한 왜곡된 관점을 지적함.
- 신문은 일본이 과거 죄악의 역사를 전혀 뒤돌아보지 않는다며 "과거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는 일본이 생각하듯이 역사가들이나 할 일도 아니며 우긴다고 하여 달라질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함.

● **北, EEU 창설에 깊은 관심…"反서방 동맹 출현" 기대(6/1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2일 '강력한 국가건설을 전략적 목표로 삼고'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EEU를 소개하며 "러시아는 일방주의와 힘의 행사를 반대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협조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밝힘.
- 신문은 이어 "EEU는 각국의 자주권을 완전히 수호하면서 보다 긴밀하고 통일적인 경제적 협력을 보장할 것"이라며 "참여국들을 근본적으로 새로운 수준의 통합으로 이끌어 갈 것"이라고 전망함.

● **일본 채권정리기관, 조선총련에 70억 원대 소송(6/13, 산케이신문)**

- 채무불이행으로 본부 건물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가 또 소송을 당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13일 전함.
- 신문에 따르면 파산 금융기관의 채권 정리 등을 담당하는 일본 정리회수기구(RCC)가 조선총련 교토부(京都府)본부를 상대로 7억 2천800만 엔(약 72억 6천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교토지법에 지난달 15일 제기함.

● **"AFP통신, 올해 말까지 평양지국 개설"(6/13, 자유아시아방송(RFA))**

- 프랑스 뉴스통신사인 AFP가 올해 북한 평양지국을 설치할 것이라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프랑스 언론을 인용해 13일 보도함.

● **"러, 北총영사관 舊대학 건물로 이전 제안"(6/14, 자유아시아방송(RFA))**

- 러시아가 나홋카 소재 총영사관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전하려는 북한에 옛 극동연방대학 건물을 이전 장소로 제안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연해주 공식 홈페이지를 인용해 1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미클루셰프스키 연해주 주지사는 최근 림청일 나홋카 주재 북한 총영사 일행을 만나 이같이 제안함.

● **다루스만 인권보고관 "北인권문제 국제법 관점에서 다뤄야"(6/14, 미국의 소리(VOA))**

- 마르주키 다루스만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조사위원회(COI)가 인권을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국제법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4일 보도함.
- 그는 COI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인권침해가 국제법상 반인도 범죄에 해당한다는 점이 확인됐으며 앞으로 국제 인권법과 국제 형사체계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함.
- 다루스만 특별보고관은 오는 18일 유엔 인권이사회 북한인권관련 상호대화(Interactive Dialogue) 회의에 참석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라고 VOA는 전함.

● **美 "北 미사일 요격시스템, 일본에 배치할 것"(6/14, 미국의소리(VOA))**

- 미국 군 당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일본에 북한 미사일 요격시스템을 배치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방송이 14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해군 중장인 제임스 사이링 미국 미사일방어청장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위원회 국방소위 청문회에 출석, 북한 미사일이 동맹국인 한국에 매우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며 이같이 밝힘.
- 사이링 청장은 "북한이 매년 도발을 반복하며 장거리 미사일 역량을 과시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북한 미사일이 위협적이라는 판단은 "과장이 아니다"라고 강조함.

● **"북일, 6월 하순 정부 간 협의 개최 조율 중"(6/15, 교도통신)**

- 북한과 일본 정부는 조만간 외무 국장급 정부 간 협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조율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함.

- 일본 측은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전후인 6월 하순 개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와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참석하며 개최지는 제3국으로 중국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통신은 전함.

기타 (대외 일반)

- '국제적으로 미국을 규탄·배격하는 목소리가 급속히 높아가고 있다'며 '미국은 시대착오적인 강권과 전횡, 부당한 내정간섭책동이 반미투쟁을 부르는 도화선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한다'고 지적(6.12,중앙통신·노동신문)
- 日 유신회 공동대표인 오사카 시장의 위안부 관련 발언과 정객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언급하며 '이 모든 행위를 보면 일본이 과거 죄악의 역사를 전혀 뒤돌아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과거범죄를 반드시 결산하려는 국제사회의 의지를 똑바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6.12,중앙통신·노동신문)
- 北 정부대표단(단장: 리수용 외무상)과 모잠비크 외무 및 협조상의 회담, 6월 11일 모잠비크에서 진행(6.13,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北 "韓美日 군사정보 공유 논의는 MD체계 수립 기도"(6/10, 조선중앙통신)

- 10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은 한·미·일 3국이 군사정보 공유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완성을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비난함.
- 통신은 10일 '미사일방어체계 수립을 위한 유치한 기만설'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공유 정보를 '북한 핵·미사일 정보'로 한정한 것은 "미사일 방어체계 수립에서 장애물이 되는 한일 간 마찰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함.

北, 美 MD체계 '南 배치' 비난…"핵억제력 강화할 것"(6/13, 조선중앙통신)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는 13일 남한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고 시도한다며 핵억제력 강화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13일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 단체는 13일 대변인 담화에서 "THAAD의 남조선 배비(배치)와 괴뢰들의 미국 미사일방위체계 가담 책동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선제 공격을 노린 위험천만한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고 통신은 전함.

● **北, 美 MD체계 '南 배치' 연일 비난…"극악한 범죄"(6/14, 조선중앙통신)**

-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14일 남한이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를 배치하려 한다며 이는 핵전쟁을 위한 범죄라고 강하게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비난함.
- 이 단체는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THAAD의 남조선 배치는 조선 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핵전쟁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극악한 범죄행위"라고 거듭 비난했다고 통신은 전함.
- 이어 "남한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특등 핵전쟁 하수인·돌격대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만천하에 그대로 드러냈다"며 남한은 핵전쟁의 발원지가 될 것이라고 위협함.

기타 (6자회담(북핵))

- '美 합동참모본부 부의장의 對北발언(北 미사일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미국 미사일방위의 최우선 목표) 관련 '공화국의 전쟁억제력을 걸고드는 것은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구축 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유치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비난(6.9,중앙통신·노동신문·중앙방송·평양방송)
- 미국이 韓·美·日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더라도 '北 핵, 미사일 정보에 한정될 것'이라는 발표에 대해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또 하나의 궤변"이라며 '미국이 추진하는 3자 군사정보 공유는 亞·太지역에서 미사일 방위체계를 더욱 다그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이라고 비난(6.10,중앙통신 논평)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신문, 6·10항쟁일 맞아 "반독재 투쟁" 선동(6/1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0일 6월 민주항쟁 기념일을 맞아 "남조선 인민들은 독재 반대투쟁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운동을 선동함.
- 신문은 10일 '6월 인민항쟁 열사들의 고귀한 넋은 살아있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6·10 민주항쟁을 "남조선 인민들의 반미·반파쇼투쟁사에 아로새겨질 정의로운 전민 항쟁"이라고 주장함.

● **6·15북측위, '공동행사 불허' 南 정부 비난(6/10,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이하 북측위)는 10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정부가 6·15 공동행사와 세월호 참사에 관한 개성 실무접촉을 막았다며 "괴뢰패당의 방해책동으로 내외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 속에 추진해 온 6·15민족공동의 통일행사와 공동추모행사는 끝내 실현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북측위는 이어 "박근혜 패당은 '통일대박'이니, '드레스덴 구상'이니 하는 따위의 반통일대결 궤변을 내들면서 북남공동선언들을 난폭하게 짓밟고 반공화국 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뛰고 있다"고 비난함.

● **北, '억류 김정욱 선교사' 관련 남북접촉 제의 거부(6/12, 연합뉴스)**

- 통일부는 12일 "지난 10일 오후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김정욱 선교사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당국간 실무접촉을 오는 17일 판문점 우리측 지역 '평화의 집'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북한은 12일 오전 "김정욱은 목사의 탈을 쓰고 반공화국 적대행위를 감행하기 위해 비법적으로 우리 지역에 잠입했다가 적발체포돼 우리 법에 따라 처리됐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이 못 된다"라고 우리측에 답신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문창극은 동족대결론자…남북관계 악화할 것"(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유신 독재의 전면부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문창극 후보자가 "우리(북한)를 악, 테러집단으로 매도한 동족대결론자, 히스테리적인 극우익 보수분자"라며 "박근혜가 문창극을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한 것은 북남관계를 파국에로 몰아가는 극악한 동족대결책동"이라고 주장함.

● **北, 6·15 공동행사 불허 거듭 비난…"공동선언 유린"(6/1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민족의 통일 지향에 대한 도전'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통일부의 공동행사 불허를 "6·15 북남공동선언과 민족의 통일지향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이라며 남측이 6·15 행사를 6년째 따로 개최하면서 통일을 주장하는 것은 "우롱이며 철면피한 기만행위"라고 비난함.

● **北 조평통, '대화록 유출' 수사결과 비난(6/12,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가 12일 검찰이 최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 등을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 정상회담과 그 결과물인 10·4 선언에 대한 '우롱'이라고 비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신문, 6·15 맞아 '우리민족끼리' 강조(6/1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6·15 공동선언 기념일을 앞두고 13일 개인 필명의 논설에서 6·15 공동선언을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고 평화번영의 이정표"라며 "통일문제를 겨레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해결하려면 외세를 배격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해야 한다"고 주장함.

● **北, 6·15선언 14주년 맞아 "南, 남북관계 파국 몰아"(6/1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1면의 사설 '6·15의 기치 높이 반통일세력의 도전을 단호히 짓부시자'에서 2000년 남북 간 첫 정상회담으로 6·15공동선언이 채택된 데 대해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위업 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특기할 사변"이라고 주장함.
- 특히 "남조선 집권자는 그 무슨 '신뢰프로세스'니, '드레스덴선언'이니, '통일대박'이니 하는 것들을 내들고 외세와 공조하여 북남관계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으면서 북침전쟁책동에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함.

- 사설은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따라 북남관계를 개선하고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히고 북한의 '자위적 핵억제력'이 민족공동의 재부라고 주장함.

● **6·15 남·북·해외위 "통일 위해 공동선언 이행해야"(6/15, 조선중앙통신)**

-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와 북측위원회, 해외측위원회는 6·15공동선언 발표 14주년을 맞은 15일 공동으로 발표한 '해내외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지난 6년간 '반통일세력'에 의해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민족의 화해, 단합, 공동번영 사업이 중단됐다며 "6·15공동선언을 부정한 결과는 대결과 적대의 악순환"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이어 "이제 전쟁의 위기를 걷어내고 화해와 협력,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유일한 출로는 오직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존중하고 이행하는 외에 다른 길은 없다"고 강조함.

나. 경제·사회·문화

● **北, 유엔 北인권사무소 南 설치에 "무자비한 징벌" 위협(6/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9일 대변인 성명에서 북한인권사무소 설치에 대해 "미국의 식민지 주구에 불과한 괴뢰패당 따위가 신성한 인권을 입에 올리면서 그 누구의 있지도 않은 인권문제를 걸고 광란적인 모략소동을 피우고 있는 것은 참으로 가관"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개성공단에 남북 함께 쓰는 잔디 축구장 들어서(6/1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개성공단에 남북협력기금 3억4천만원을 투입, 잔디가 깔린 정규 축구장을 조성했다"며 "우리측 기업 주재원들과 북측 근로자들이 함께 이용하게 된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北어선 독도 근해서 침몰…선원 5명 전원 구조(6/15, 연합뉴스)**

-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지난 13일 오전 해경이 독도 동북쪽 60여㎞ 지점에서 북한 어선이 침몰 중인 것을 발견, 안에 탄 5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선원들은 20~40대 남성들로 합동신문 과정에서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정부는 16일 판문점을 통해 이들을 모두 북측에 돌려보낼 계획이라고 뉴스는 전함.

기타 (대남)

- 우리 당국이 '세월호참사 유가족 등에게 유신통치와 다를바 없는 악행을 감행하며 박OO 독재통치의 본성을 똑똑히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며 '각계층 인민들은 단결의 힘으로 유신독재의 부활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반정부투쟁 선동(6.9,중앙통신·노동신문)
- 우리 육군 정예부대원들을 미국에서 진행되는 韓美 합동군사훈련(6.9~7.1, 美 캘리포니아 주)에 파견한 것과 관련 '박OO는 호전광의 본색을 만천하에 드러냈다'며 '박OO 패당이야말로 동족대결에 환장한 미치광이 무리들'이라고 비난(6.10,중앙통신·민주조선)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일본에 받을 필요가 없다 등)에 대해 "일제의 과거죄행을 찬미하고 묵과하려는 그 어떤 행위에 대해 추호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6.13,중앙통신)
- 6·15남북공동선언 발표 14주년 즈음 사회단체들(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委·조선민주법률가협회 등) 연합회의, 6월 14일 평양에서 김정숙 의장(조선평화옹호전민족위원장)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6.15,중앙통신)
-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국제회의 기조연설에서 한 對北발언 관련 '우리의 핵 억제력은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의 위험을 막고 나라와 겨레의 운명을 지켜주는 민족의 보검'이라며 '나라의 통일위업이 시련을 겪고 있는 것은 핵문제 때문이 아니라 괴뢰패당의 반통일적 대결정책 때문'이라고 비난(6.15,평양방송)

06.16-06.22

6월
3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 김정은, 잇단 동해함대 시찰…이번엔 잠수함부대(6/16,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잠수함 부대인 제16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함.
- 김 제1위원장은 수중 종합훈련실에서 어뢰돌격훈련 등 다양한 실내 훈련을 참관한 뒤 748호 잠수함에 승선해 실제 훈련을 점검하고 항해술 등도 직접 지도함.
- 이어 "모든 해병을 만능 해병으로 준비시켜 적 함선의 등허리를 무자비하게 분질러 놓으라"고 강조하고 "해병들이 조국땅을 멀리 떠나 망망대해 작전수역에 가서도 당과 혁명을 목숨바쳐 사수하는 바다의 결사대로서 사명을 다하기 위한 정치사상 교양사업을 강화하라"고 지시함.

● **北, 김정일 '黨사업' 시작 50주년 맞아 노동당 부각(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1면에서 "장군님(김정일)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각지 당조직에서는 장군님의 당 건설 업적을 빛내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전개해나가고 있다"라며 모범적인 당조직 간부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을 대대적으로 소개함.
- 신문은 2면에 실은 '무궁토록 빛나라 조선노동당기여'란 제목의 글에서는 김 위원장의 당사업 시작일(6월 19일)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과 나란히 "노동당 역사에 금문자로 아로새겨질 행운의 날, 영광의 날"이라고 치켜세움.

● **北, 김정일 당사업 시작 중앙보고대회…김정은 참석(6/18,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18일 녹음실황 중계를 통해 중앙보고대회가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렸으며 김 제1위원장이 참석했다고 보도함.

● **김정일 '黨사업' 50주년…北 "인민 이익 최우선" 강조(6/1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9일 1면에 실은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주체적 당 건설 사상과 업적을 만대에 빛내여 나가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김정일 위원장의 뜻을 받들어 “전당과 온 사회에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과 헌신적 복무정신이 차넘치게 하려고 한다”며 “모든 당조직과 일꾼들은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절대시하고 군중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 군중 속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풀어줘야 한다”고 주문함.

● **北, 내각 부총리에 ‘남북회담’ 참여 최영건 임명(6/1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최영건을 부총리에 임명하는 ‘정령’(결정)을 발표했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올해 62세인 최영건은 김책공업종합대학을 졸업하고 평안남도 순천시멘트연합기업소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으며 금속공업부 책임지도원, 건설건재공업성 국장을 거쳐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건재공업성 부상을 지냄.

● **北 김정은, 과학자 주택 건설현장서 “품질 보장” 강조(6/20,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과학자 주택단지인 평양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장과 능라도의 5월1일경기장 개보수 현장을 현지지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함.
-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장을 찾은 김 제1위원장은 “놀라운 건설 속도가 창조되고 있다”고 만족을 표시하며 올해 10월 10일 노동당 창건기념일까지 건설을 마무리할 것을 독려하였으며, 장마철 전까지 나무 심기와 산책길 조성 등을 마무리하고 대지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해 온실과 주택 사이에 각자가 재배해 소비할 수 있는 개인 텃밭을 만들라고 지시함.

● **처형설 돌았던 리수용 北 외상, 스위스 방문(6/20, 르 텅(Le Temps))**

- 스위스 일간지 ‘르 텅’(Le Temps)은 리수용 북한 외상이 오는 27일 스위스 베른에서 이브 로시에 스위스 외무차관을 예방한다고 20일(현지시간) 보도함.
- 르 텅에 따르면 스위스 외교부는 리수용 외상의 로시 외무차관 예방 사실을 확인하고, 리 외상은 개인적 이유로 스위스를 방문하며 스위스는 북한과 정기적으로 정치 대화를 갖는 등 정상적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고 밝힘.

北, '張숙청'으로 공석 된 말레이시아 대사 임명(6/21,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말레이시아 주재 대사에 강철이 임명됐다고 보도함.

김정은동향

- 6/16, 김정은 黨제1비서 잠수함 부대 제167부대 시찰(6.16,중앙통신)
- 6/18,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6월 18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 진행(6.18,중앙통신·중앙방송·평양방송)
- 6/20,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과 5월1일경기장 개건현장 현지지도(6.20,중앙통신·중앙방송)

기타 (대내 정치)

- 박봉주(내각 총리),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현장 현지요해(6.16,중앙통신)
  - 총리는 세포지구 축산기지에서 집짐승 수를 늘리고 축산물 생산을 활성화하려면 축산연구소와 수의방역소 건설을 선행시켜 완공하여야 한다고 강조
- 김정일 저작(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과 민족성을 고수할 데 대하여) 발표(6.19) 17주년 즈음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성을 견지하고 민족성을 살림으로써 사회주의 위업을 승리로 전진시켜 왔다'고 호도(6.17,중앙통신·노동신문)
-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을 맞아 '김정일은 천재적인 예지와 비범한 영도로 당을 필승불패의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시킨 걸출한 정치가'라고 칭송하고 '김정은 영도따라 김정일의 사상과 업적을 빛내이며 강성국가 건설 위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 나가자'고 호소(6.19,중앙통신·노동신문)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64.6.19) 기념 행사

- 국립교향악단 음악회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6월 19일 김영남·박봉주 등이 참가한 가운데 모란봉극장에서 진행(6.19,중앙통신·중앙방송)
-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보고대회 및 보고회, 각 도·시·군에서 진행(6.19,중앙통신)
- 공훈국가합창단, 6월 19일 평안북도 예술극장에서 공연 진행(6.19,중앙통신)
- 조선우표박물관,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우표집중전시'(170종 우표 4개 부문 전시) 진행(6.19,중앙통신)
- 만수대예술단 음악무용종합공연 '당을 따라 일편단심', 6월 19일 동평양대극장에서 진행(6.19,중앙통신)
-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 6월 19일 각지에서 진행(6.19,중앙통신)
- 청년중앙예술선전대 경축공연, 6월 19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6.19,중앙통신)
- 「직맹」일꾼들과 「직맹」원들의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 답사행군, 6월 11일부터 18일까지 진행(6.19,중앙통신)
- 외국선박 선원들의 경축집회, 함경북도 청진항에서 진행(6.19,중앙통신·중앙방송)
- 타지키스탄 공산당 위원장, 6월 12일 김정은에게 축전(6.19,중앙통신·중앙방송)

나. 경제

● 北, 50년 넘은 '만경봉호' 유람선 개조사업 중단(6/16, 연합뉴스)

- 북한이 지난 1971년 취항한 화객선 '만경봉호'를 유람선으로 개조하는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금난 등으로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16일 전함.
- 중국의 대북소식통들은 "만경봉호가 워낙 낡아 유람선 개조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면서 사업이 삐걱댔다"면서 "사업이 전격 중단되면서 북한이 계획했던 나진-블라디보스토크 해상관광코스의 연내 개통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말함.

● 北, 이모작 작물 증산 위한 '과학농법' 연일 강조(6/1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5일 농업성 책임부원 류명선이 기고한 '영농시기별에 따르는 기술적 요구'란 제목의 글을 통해 후작으로 심은 벼의 소출을 높이는 '큰모재배' 방법의 우월성을 소개함.
- 신문은 큰모재배에서는 김이 다 자란 논이나 전작을 수확하고 난 밭을 모두 갈아엎고 모내기를 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칠 필요가 없으며 큰 모를 내어다 심는 시기가 해충 발생 이후여서 살충제는 모판 재배단계에서만 필요하고 따라서 살충제도 훨씬 절약된다고 설명함.

● '제3회 북·중 박람회' 10월 단둥서 개최(6/16, 단동일보)

- 북한과 중국 간 유일한 종합박람회인 '제3회 중·조(북한) 경제무역문화관광박람회'가 오는 10월 16일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개막한다고 현지 매체인 단동일보가 1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해 단둥 박람회에서 총 93건, 16억 달러(약 1조 7천억원) 상당의 무역·투자의향서(LOI)가 체결됐다고 발표함.

● 北 노동신문 "전사회적 절약투쟁 강화해야"(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1면의 사설 '전사회적으로 절약투쟁을 강화하자'에서 황해북도 연탄군이 공장, 기업소, 학교, 협동농장 등에서 유휴자재 수집함을 설치해 절약사업을 활발히 하고 있다며 "연탄군의 경험은 모든 시,

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본받아야 할 모범"이라고 치켜세움.
- 사설은 또 "절약하고 절약하고 또 절약하여 조국의 부강발전에 이바지하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 근로자들이 들고나가야 할 애국의 기치"라고 주장함.

● **北 "올해 어황 전망 밝다"…수산업 증산 독려(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주목되는 동서해의 어황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올해 동·서해 수온이 평년보다 1.5~2도 높다며 "이런 현상은 물고기들의 생육 조건에 좋은 영향을 줘 물고기 자원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보도함.

● **北 신문 "러시아의 극동개발 좋은 결과 가져올 것"(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모스크바 특파원이 쓴 '원동(극동)지역 개발에 힘을 넣고 있는 로씨야(러시아)'라는 기사에서 러시아가 올해 원유가스 매장량이 풍부하고 농업, 석탄, 금속공업에 잠재력이 큰 극동지역 발전에 노력하고 있다고 평가함.
- 이어 최근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를 특별경제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한 사실 등을 거론하며 "로씨야에서 원동지역 발전에 힘을 넣게 된 것은 지금까지 서부지역 개발에만 치중한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서"라고 분석함.

● **北, 외자유치·경협 총괄 '대외경제성' 출범(6/1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8일 "무역성에 합영투자위원회, 국가경제개발위원회를 통합하고 무역성을 대외경제성으로 하기로 결정했다"며 이에 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됐다고 보도함.
- 통신은 대외경제성의 구체적인 위상과 업무 등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외경제상이 누구인지도 밝히지 않음.

● **WFP, 대북식량지원 30% 축소…"모금 부진 탓"(6/19,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이 북한에서 진행하는 영양지원 사업의 규모를 약 30% 축소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9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WFP는 작년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2년간 북한의 취약계층 240만여명을 상대로 2억 달러 규모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지원 예산을 6천250만 달러 축소함.

● **중국 옌지-평양 관광 전세기 29일 운항 개시(6/20, 길림신문)**

-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관광 전세기가 오는 29일 운항을 시작한다고 길림신문 등 현지 매체들이 20일 전함.
- 길림신문에 따르면 옌볜 현지 여행사들은 평양 시내와 묘향산, 개성, 판문점, 금강산 등지를 여행하는 4~5일 전세기 관광상품을 1인당 4천80~4천480위안(67만~73만 원)에 판매하고 있음.

● **北, 태권도 애호가 위한 전문여행사 설립(6/20, 조선신보)**

- 북한이 올해 전 세계 태권도인들의 북한 방문을 전담하는 전문여행사를 새로 설립했다고 조선신보가 20일 전함.
- 신문은 "지난 2월 조선국제태권도여행사가 새로 발족해 봉사에 착수했다"라며 "여행사는 전 세계의 태권도인들에게 조선에서의 수련, 토론회, 기술강습 등의 계기를 제공해주고 그들의 관광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고 소개함.

● **"태국 대기업도 백두산 생수 개발 진출"(6/21,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기업들이 주도하는 백두산 생수 개발 경쟁에 태국의 대기업도 뛰어들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1일 보도함.
- RFA는 이날 태국의 화교 자본인 치아 타이 그룹이 지난 7일 지린성 바이산(白山)시와 연간 생산량 1천만t 규모의 백두산 광천수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함.

● **北, '물고기 대풍' 부각하며 김정은 '愛民' 선전(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사회주의 바다향기'라는 제목의 정론에서 "서해의 수산물 대풍은 결코 과학적 발견에 의한 기적도, 물리적 힘이나 역사의 우연에 의한 기적도 아니다"라며 "그것은 사랑의 기적"이라고 주장했다.

- 이어 김 제1위원장이 수산업 증산을 독려하고 올해 1월 초에는 고아와 노인들을 위한 수산사업소 건설을 지시한 사실을 거론하며 "그이는 천만 이 안기는 우리 모두의 위대한 어머니"라고 칭송함.

기타 (대내 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6.11),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시멘트직장 등 22개 단위들에 '모범준법단위' 칭호 수여(6.17,중앙방송)
- 北 도로건설무역회사에서 개발한 내부장식용칠감들(부각장식칠감·다색무늬칠감 등)과 콘크리트 방수재·경화촉진제 등 "마감건재들" 소개(6.17,중앙통신)
- 서해 각지 수산사업소와 수산협동조합,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배 이상의 생산실적을 기록 선전(6.18,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北 탁구 지도자, 인도서 유망주 지도"(6/18, 자유아시아방송(RFA))

- 북한의 청소년 탁구 대표팀 감독 출신 지도자 김성한·안종선 감독들이 인도 주요 도시에서 청소년 유망주를 지도하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8일 보도함.

의약품 부족한 北, "우리 몸에는 한약" 선전(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자 '전국의 본보기 단위로 되기까지'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강계 고려약(한약) 공장을 소개하며 고려약의 우수성을 치켜세움.
- 신문은 2008년 공장을 방문했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고려약은 우리 인민의 생활 습성과 체질적 특성에 맞을 뿐 아니라 약효가 높다"며 "이제는 유럽 사람들도 고려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함.

"수요 독점할 것"…北 '제빵왕' 다짐에 비친 변화像(6/19,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19일 '순수한 맛에 대한 고집'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평양 만경대 구역에 있는 금성식료공장을 소개함.
- 신문에 따르면 이 공장은 평양 시민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새봄'이라는 이름의 빵을 만드는 곳으로 빵 외에도 국수·나물 등 12가지

음식도 함께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밀쌈(다진 고기와 채소를 넣어 밀가루 전병으로 만든 음식)과 두부도 유명함.

● **北 "올 가뭄 2001년 이후 가장 심해"(6/19,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계속되는 가뭄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9일 보도함.
- 통신은 "대부분 지방에서 초봄부터 시작된 가물 현상은 5월 하순경에 약간 해소됐다가 여름철에 들어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며 기상전문가들의 말을 빌려 2001년 이후 가장 심하게 나타난 가뭄이라고 밝힘.

● **北 신문 "죽으나사나 각오로 가뭄 피해 극복해야"(6/2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0일 "온 나라가 총동원돼 가물 피해를 극복하고 올해 알곡 고지를 기어이 점령하자"고 독려하고 나섬.
- 신문은 20일 3면 사설에서 신문은 "지금은 하늘을 쳐다보며 비가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면서 "모두가 죽으나 사나 올해 농사를 잘 짓겠다는 사상적 각오를 가지고 떨쳐나서면 가뭄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강조함.

● **北 가뭄 극복에 비상…民·軍 총동원(6/2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1일 '전당, 전국, 전민이 가물(가뭄)과의 투쟁에 한 사람 같이 떨쳐나섰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농촌 각지의 가뭄 극복 노력을 소개함.
- 신문은 평안북도에서 "매일 수십만 명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농장 포전(논밭)들에서 인민군 군인들과 힘을 합쳐 물주기 전투를 벌이고 있다"고 전함.

● **北, 만화영화 육성 나서…시나리오 현상 공모(6/22, 문학신문;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22일 입수한 북한의 '문학신문' 최근호(6월7일)는 2015년 태양절 경축 '전국만화영화문학 현상모집' 요강을 실음.
- 요강에 따르면 전국의 노동자, 농민, 사무원, 학생 등 각계각층이 내년 2월10일까지 장·단편의 만화영화 시나리오를 '조선 4·26만화영화촬영소' 문학창작단에 내면 된다고 문학신문은 전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2014년 '국내 장애자의 날(6.18)' 연환모임, 6월 18일 김문철(장애자보호연맹 중앙위 부위원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평양학생소년궁전에서 진행(6.18,중앙통신)
- 북한도 스페인 탈락에 '충격' 논평, "스페인 팀의 경기 결과가 세계의 다른 나라,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선에서도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함(6.20,중앙통신)
- 北 선수들, '제16차 아시아청년 육상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1개·은메달 1개·동메달 2개 획득 및 선수권대회 참가 선수들 19일 귀환(6.19,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통신 "日, 위안부 범죄 해결해야" 거듭 요구(6/1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논평에서 "일본군 성 노예 범죄는 일본 당국이 국가권력과 군권을 총발동해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실행한 특대형 범죄"라며 "일본 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심각한 정치적 문제이며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함.
- 또 미국 상원의원들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게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보낸 것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일 압박 움직임을 거론하며 "국제사회의 흐름이 이러하나 일본의 극우익 세력은 아직 일본군 성노예 범죄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과거청산을 극구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함.

● **北 청천강호 변호인 "선원 기소, 일사부재리 위배"(6/17, 미국의소리(VOA))**

- 불법 무기밀매 협의로 기소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선원의 변호인이 "선적 화물 미신고로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 선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이중처벌"이라고 주장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17일 보도함.
- VOA에 따르면 청천강호 선원 변호를 맡은 훌리오 베이오스 변호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는 국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천강호 선장과 선원에게 해당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며 "이들은 숨긴 화물을 파나마 당국에 신고하지 말라는 상부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기 때문에 형사 소추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함.

● **北 노동신문 연일 '美中 갈등' 부각…왜(6/1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8일 '사이버 공간을 둘러싼 중미 사이의 마찰'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 연방대배심이 지난달 중국군 간부 5명을 사이버 범죄 혐의로 기소한 사건을 거론하며 "올해에 들어와 중미 사이의 대립은 더욱 표면화하고 있다"고 논평함.
- 이어 미국이야말로 중국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이버 공격'을 벌여왔다며 중국군 간부들의 기소는 미국의 피해를 부각해 "저들(미국)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적인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을 목표로 강행하는 사이버전을 정당화해보려는 데 있다"고 주장함.

● **中 "北과 군사동맹은 아냐…정상적인 왕래는 유지"(6/19, 연합뉴스)**

-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중국과 북한이 군사동맹 관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어떤 국가와도 군사동맹을 맺지 않는 것이 중국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 중 하나"라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19일 보도함.
- 류 부장조리는 또 '북중 간 고위급 교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중국과 북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정상적인 왕래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주권국가로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북한의 최고 영도자고 우리는 이를 존중한다"면서 "중국과 북한은 여러 가지 왕래를 계속 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 **北 "이라크 사태 악순환 몰아온 장본인은 미국"(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개인필명의 논평에서 이라크 사태의 "원인은 외세의 간섭으로 생겨났고 그 장본인은 바로 미국"이라며 "2003년 미국이 '반테러전'의 미명하에 이라크전쟁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강점한 때로부터 테러와 보복의 악순환이 일어났다"고 주장함.

● **北외무성, '김정은 비판' 인터뷰한 호주 외교장관 비난(6/22, 조선중앙통신)**

- 북한 외무성은 22일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와의 문답에서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이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비판한 것을 거론하며 "우리는 그가 누구든 감히 우리의 최고 존엄을 모독하

고 헐뜯으려는데 대해서는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단호히 대처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함.

기타 (대외 일반)

-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옆 북한 박물관, 개관 지연(6/18,자유아시아방송(RFA))
- 동평양제1중학교에 「모택동 반」 명명(命名) 55주년 기념 친선모임, 6월 17일 서호원(대외문화연락委 부위원장) 및 류홍재(駐北 중국 대사) 등 초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6.17,중앙통신·중앙방송)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6월 15일 카타르 내각 수상(압둘라 빈 나세르 빈 칼라파 알사니) 면담(6.17,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일화’에 2014 청도 세계원예박람회(중국 산동성 청도시) 국제분재경쟁 특별전시상 수여(6.19,중앙통신)
- 北 정부대표단(단장 : 리수용 외무상), 6월 18일 시리아 대통령(바샤르 알아사드)·내각 수상(와일 나디르 알 할키)과 각각 담화(6.19,중앙통신·중앙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한미훈련·美MD체계 또 비난…“핵억제력으로 대응”(6/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 ‘이 땅은 1950년의 조선 반도가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조선 육군과 핵·생화학 무기 제거를 위한 연합훈련이 감행되고 있으며 이는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미국의 무모한 광증”이라고 강조함.
- 신문은 림팩·코브라 골드 등 세계 군사훈련은 재난구조 훈련을 기본으로 하지만 ‘키리졸브’, ‘독수리’ 등 한미 군사훈련은 “북침 전쟁연습”이라며 “군사적 우세로 패권주의 야망을 실현하는 것이 오바마 대외 정책의 핵심”이라고 주장함.

3 대남 동향

● 北 조평통 "문창극 총리 후보 지명 철회해야"(6/19, 조선중앙통신)

-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19일 발표한 서기국 보도에서 "문창극과 같은 자가 총리가 되면 남조선 인민들에게 차례질(돌아갈) 것이란 더 큰 재앙과 수치, 불행밖에 없다"며 "박근혜가 앞날의 운명과 북남관계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문창극에 대한 국무총리 임명을 당장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北, 朴 대통령 겨냥 "기만적 '신뢰' 면사포 벗겨졌다"(6/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기만적인 신뢰의 면사포는 벗겨졌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박 대통령이 최근 북핵포기를 언급한 것에 대해 "세월호 참사 등으로 궁지에 몰리자 여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려보려고 우리에 대한 비방·중상과 각종 도발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본질상 선임자들의 대결정책과 똑같은 것"이라며 "체제대결 흉심에 '신뢰'라는 화려한 면사포를 씌우고 그 교활성과 악랄성에서 선임자들을 훨씬 능가한다"고 비난함.
- 이어 통일부가 최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의 6·15 남북공동행사 참가를 불허한 것을 지적, "괴뢰들이 북남 공동선언을 부정하고 동족대결을 추구하면서 '신뢰'를 떠드는 것은 서푼 짜리 기만"이라고 덧붙임.
- 신문은 또 다른 기사에서는 우리 군 당국이 지난달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한미일 국방장관회담에서 3국 정보공유의 제도화를 논의한 데 대해 "외세와의 북침 공모결탁에 더욱 미쳐 날뛰고 있다"라고 비난함.

기타 (대남)

- 남한 강원도 횡성 등 여러 지역에서 조류독감 확대, 6월 14일 KBS 방송 인용 보도(6.17,중앙통신)
- 정부개각을 위한 인사개편 관련 '박OO의 정부개각은 민심에 역행하는 극악한 정치적 폭거로서 그의 파쇼독재적 대결근성이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사대매국과 파쇼독재, 부정부패와 동족대결책동을 답습하겠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고 비난(6.18,중앙통신)
- 우리 육군 6군단의 작전계획 시행훈련(6.13~19, 경기도 양주 일대) 실시와 정예부대의 미국훈련 참여에 대해 '미국 상전을 등에 업고 이 땅에서 북침핵전쟁을 도발하여 무력으로 공화국을 어째 보려는 무분별한 망동'이라고 주장(6.19,중앙통신·민주조선)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06.23-06.30

6월
4주차

1. 대내 동향
   - 가. 정치
   - 나. 경제
   - 다. 사회·문화

2. 대외 관계
   - 가. 일반
   - 나. 6자회담(북핵)

3. 대남 동향
   - 가. 정치·군사
   - 나. 경제·사회·문화

1 대내 동향

가. 정치

● **北노동신문, 대중 선전선동 독려…"모두 선동원 되자"(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전 당이 선전원, 선동원이 되자'라는 제목의 1면 사설에서 "당 일꾼이건 행정경제 일꾼이건, 중앙의 일꾼이건 아래 단위의 초급 일꾼이건, 모든 일꾼들과 평당원들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다 사상교양 사업, 정치 사업을 해야 한다"고 밝힘.
- 이어 "대중의 정신력이 어떻게 발동되고 우리 당의 결심과 구상이 어떤 결실을 맺는가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일꾼들의 역할에 달려 있다"며 "사업과 생활의 모든 계기와 공정이 사람들을 교양하고 대중의 정신력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김정은, 평양고아원 건설장 시찰…"소외계층 돌봐야"(6/25, 조선중앙통신)**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고아 양육시설인 평양육아원·애육원 건설 현장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5일 보도함.
- 건설 현장을 둘러본 김 제1위원장은 "부모 없는 아이들과 돌봐줄 사람이 없는 노인들은 물론 장애자들도 따뜻이 보살펴줘야 한다"며 "그것이 사회적 기풍으로, 온 나라 대가정의 가풍으로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北, 인민무력부장 현영철로 교체(6/25, 조선중앙방송; 연합뉴스)**

- 조선중앙방송은 25일 평양 과학자주택단지인 위성과학자거리 건설현장에서 24일 열린 군민궐기대회 소식을 전하며 "인민무력부장인 조선인민군 육군대장 현영철 동지"를 대회 보고자로 소개함.
- 연합뉴스에 따르면 1949년생으로 알려진 현영철은 백두산 서쪽 북중 국경지역을 담당하는 8군단장 출신으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부 1인자로 통하던 리영호를 군 총참모장에서 해임한 2012년 7월 그의 후임으로 총참모장에 전격 발탁됐던 인물임.

● **北, 새 전술유도탄 시험발사…김정은 참관(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전술유도탄을 시험발사했다고 27일 조선중앙통신이 밝힘.
- 통신은 27일 "김정은 동지께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지도하시였다"며 김 제1위원장이 중앙감시소에서 전술유도탄의 기술적 제원을 파악하고 직접 시험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함.
- 이어 "순간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전술유도탄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대지를 박차고 하늘로 날아올랐다"며 "시험발사를 통하여 전술유도무기의 과학기술적 성능이 단 한치의 편차도 없다는 것이 실증되였다"고 설명함.

● **'김정은 측근' 마원춘 국장, 베이징 방문(6/27,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측근'이자 김정은 체제의 '신실세'로 알려진 마원춘 국방위 설계국장이 지난 10일 중국 베이징(北京)을 방문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고 연합뉴스가 27일 전함.
- 중국 베이징(北京) 전자과학직업학원은 지난 12일 홈페이지를 통해 "마원춘 북한 국방위 설계국장을 단장으로 한 북한 대표단 21명이 10일 오후 주중 북한대사관 이강봉 참사관의 인솔을 받아 우리 학교 도서관을 방문했다"고 밝힘.

● **北 신문 '자주' 강조…"대국의 압력도 굴복 못시켜"(6/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전 주민에 대한 '주체사상' 교육을 강화해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확립해야 한다며 그 길만이 체제를 수호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함.
- 특히 신문은 "혁명과 건설에서 언제나 자주적 대를 확고히 견지해오신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영도가 있었기에 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강권 책동도, 대국주의자들의 압력도 우리 인민을 굴복시킬 수 없었다"며 "자주·자립·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은 대원수님들의 혁명사상이 안아온 결실"이라고 주장함.

● **北 잡지, 김정은 화법 분석…"핵심은 통속성"(6/29, 문화어학습;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29일 북한 계간지 '문화어학습' 최신호(올해 5월 27일 발간)에 실린 '천만군민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

한 언어표현'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김정은 화법의 핵심 특징으로 '통속성'을 꼽았다고 전함.

- 뉴스는 이어 북한의 '조선말사전'은 통속성을 "말과 글, 그 밖의 표현이 대중에게 쉽게 이해되고 통하는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전하며 칭송 일색이기는 하지만 북한의 잡지가 김 제1위원장의 화법을 분석적으로 조명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힘.

● 北 "전술로켓 발사 훈련"…김정은 직접 지도(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전략군의 전술로켓 발사 훈련을 지도했다며 감시소 정점에 올라 훈련 보고를 받고 발사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함.
- 중앙통신은 김 제1위원장이 발사 명령을 내리자 "천지를 진감하는 폭음소리와 함께 탄도로켓들이 세찬 불줄기를 내뿜으며 하늘로 날아올랐다"고 묘사하며, 이번 훈련이 "적의 개별 목표와 집단 목표 소멸을 위한 정밀유도 및 산포(흩어지게 뿌리는 것) 사격 방법으로 진행됐다"며 "발사 훈련을 통해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만든 전술로켓들의 전투적 성능이 남김없이 검증됐으며 주체적인 로켓 사격 방법이 완성되게 됐다"고 강조함.

김정은동향

- 6/25,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육아원·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6.25,중앙통신·중앙방송)
- 6/27, 김정은 黨 제1비서, 최첨단수준에서 새로 개발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6.27,중앙통신·중앙방송)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방문하고 조업준비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6.29,중앙통신·중앙방송)
- 6/29,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성수(8·28무역관리국 부원) 등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전달(6.29,중앙방송)
- 6/30,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6.30,중앙통신·중앙방송)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은 위성과학자거리 건설 현지말씀 관철 궐기모임', 6월 24일 현영철(인민무력부장/육군 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하고 결의문을 채택(6.25,중앙방송)
- 6·25전쟁 발발 64주년을 맞아 '6·25전쟁에서의 승리는 김일성의 독창적인 군사사상과 주체전법의 빛나는 승리였으며 군대와 인민의 애국심과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의 승리였다'며 '김일성의 불멸의 업적은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주장(6.25,중앙통신·노동신문)

-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즈음 평안남도·함경남도·양강도의 '미국 규탄·反美' 군중대회, 6월 26일 진행(6.26,중앙통신)
- 황해남도·함경북도, 6월 27일 '6·25미제반대투쟁의 날' 즈음 군중대회 진행(6.27,중앙통신)

나. 경제

● **"러, 한반도 상황 나아져야 '北 통과' 가스관 건설"(6/24, 러시아의소리)**

-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알렉산드르 메드베데프 부사장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치 상황이 나아지면 북한을 통과하는 가스관 건설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러시아의소리 방송이 24일 보도함.

● **英 민간단체, 北에 6번째 빵공장 건립 계획(6/24,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영국 대북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 사랑'은 황해남도 해주에 빵 공장을 새로 세우고 오는 9~10월부터 인근 5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지원할 계획임.
- 2001년부터 활동을 시작한 이 단체는 현재 나진·선봉에 2천500여명, 평양 2천500여명, 평안북도 향산 5천여명, 황해북도 사리원과 남포에 각각 5천여 명 등 총 2만여 명의 북한 어린이에게 빵을 지원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유엔, 올여름 北 홍수 대비 구호품 준비"(6/24, 자유아시아방송(RFA))**

- 유니세프를 비롯한 유엔 기구들이 북한에서 올해 여름 홍수에 대비해 각종 구호품을 미리 준비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 보도함.
- RFA에 따르면 이 중에는 1만 가구에 3개월 동안 식수를 제공할 수 있는 정수제와 위생용품, 영양실조 어린이 1천명을 위한 생활필수품, 수재민 1만명이 3개월간 사용할 수 있는 구급약 등이 포함됨.

● **"北 관광상품, 중국 인터넷서도 인기 상품"(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중국 최대 온라인 여행사이트에서 최근 북한 관광상품 판매를 시작하는 등 북한 관광이 중국인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함.

- 최근 중국인을 겨냥한 북한 관광상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중국 최대의 온라인 여행사 세청(携程)이 북한 관광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 사이트에서는 베이징에서 출발해 북한에서 골프와 관광을 즐길 수 있는 5일짜리 여행 상품이 1만2천200위안(199만원)에 판매되고 있다고 RFA는 전함.

● **외국 구호단체들, '모금난' 속 대북지원 이어가(6/25,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5일 비정부 구호단체 '미국친우봉사단'이 지난달 말 북한에 대표단을 보내 농업 기술 전수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고 전함.
- 국제적십자사도 지난 10일부터 3일간 평안남도 순천에서 대규모 홍수 가상훈련을 진행함으로써 북한 실무자와 자원봉사자 120여명이 참여해 홍수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방법을 배웠다고 RFA는 전함.

● **"北 쌀값, 이달 중순부터 안정세…올감자 수확 때문"(6/26, 데일리NK)**

- 26일 데일리NK의 '북한 장마당 동향' 자료에 따르면 6월 20일 기준으로 평양과 혜산의 쌀값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당 각각 100원, 150원씩 오른 4천300원, 5천50원으로 나타남.
- 반면 신의주에서는 쌀값이 4천500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1㎏당 200원이나 내려 이는 지난달 말 1개월 만에 쌀값이 평균 800~900원씩 올랐던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전함.

● **중국인들 이젠 자가용 차량으로 북한관광(6/26, 두만강보)**

- 최근 중국에서 북한 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양국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헤이룽장(黑龍江)성 주민들이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북한 관광에 나섰다고 현지 신문인 두만강보(圖們江報)가 26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관광단을 모집한 하얼빈철도국제여행사 관계자는 "훈춘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자가용 차량을 이용해 북한 관광에 나설 수 있는 도시여서 관광시장 전망이 밝다"면서 "앞으로 이번과 같은 자가용 관광단을 3차례 더 조직할 계획"이라고 말함.

● **EU, 北 병충해 방제에 4년간 11억원 지원(6/27, 미국의소리(VOA))**

- 유럽연합(EU)이 북한의 농작물 보호와 방제 사업에 지난 4년간 약 111만 달러(11억2천만원)를 지원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7일 보도함.
- EU 원조개발협력청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에서 병충해 방제 사업을 벌이는 유럽 정부간기구 농업생명과학센터(CAB international)에 올해 26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2012년과 2010년에도 각각 49만 달러, 36만 달러를 보냈다고 밝힘.

● **北中, 두만강 하구 원정리-中취안허 새 교량 건설 협정(6/27,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 정부와 중국 정부 사이의 원정-권하(취안허) 새 국경 다리의 공동 건설과 관리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이 27일 평양에서 체결됐다"고 보도함.
- 통신에 따르면 북한 측에서 박명국 외무성 부상이, 중국 측에서는 류훙차이(劉洪才) 북한 주재 중국대사가 양측 당국의 위임을 받아 교량 건설 협정문에 서명함.

● **北 나선경제특구서 북중 '낚시관광축전'(6/28, 조선중앙통신)**

- 북한 두만강변의 나선경제무역특구에서 28일 북한과 중국의 낚시꾼들이 참가한 '나선-옌지(延吉) 낚시관광축전'이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번 축전은 나선국제여행사와 지린(吉林)성 옌볜(延邊)구주여행사의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정서생활을 향유하려는 관광객들의 요구를 원만히 충족시키며 나선시 낚시질애호가협회와 길림성 연변조선족자치주 낚시협회사이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자는데 목적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북한서 중국중고차 밀매 성행…"신차수입 감소영향"(6/29, 연합뉴스)**

- 2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해 들어 북한의 중국 신차 수입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북한에서 중국의 중고차 밀매가 성행하고 있음.
- 뉴스는 북·중 접경지역 소식통들을 인용한 기사에서 나선특구를 비롯한 북한의 중국 접경지역에서는 육로국경을 통해 반입한 중국의 중고 승용차와 승합차가 대당 2만 위안(330만 원)가량의 웃돈을 주고 은밀히 거래되고 있다고 밝힘.

● **北도 '2차원 바코드' 도입하나…"연구사업 성과"(6/29,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9일 '상업활동에 적극 이용되고 있는 2차원 부호'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여러 나라들에서는 정보표시능력이 선부호(바코드)보다 높은 2차원 부호를 적극 이용하고 있다"며 2차원 바코드의 장점을 상세히 설명함.
- 신문은 2차원 바코드가 막대 모양의 1차원 바코드보다 정보기록 용량, 정보복원, 위조방지 등의 기능에서 훨씬 뛰어나고 휴대전화 보급으로 2차원 바코드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고 소개하는 한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2차원 부호에 대한 연구사업이 심도 있게 진행되어 좋은 성과가 이룩되고 있다"며 "2차원 부호에 의한 식별기술이 상업 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 도입될 전망이 열렸다"고 주장함.

● **"중국 옌지-평양 전세기 관광 매진 행진"(6/30, 연변일보)**

- 중국 지린(吉林)성 옌볜(延邊)조선족자치주 옌지(延吉)시와 북한 평양을 연결하는 전세기 관광상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고 현지 매체인 연변일보가 30일 보도함.
- 옌지-평양 관광 전세기는 올해 처음 운항한 29일 만석을 기록했으며 다음 운항일인 7월 3일과 6일 항공편도 이미 매진된 상태라고 신문은 전함.

기타 (대내 경제)

- 새로 건설(평양 교외) 조업한 광명레드·태양전지공장의 '건축물(에너지 절약형)·레드등 생산 공정과 일체화된 기업구조 및 3세대 태양전지 개발 진행' 등 "조명산업발전을 추동할 새로운 첨단 제품생산기지"로 선전(6.23,중앙통신)
- 세포지구 축산기지 건설자들의 봄철 풀씨파종계획 131% 수행 및 살림집건설 성과 선전(6.25, 중앙통신)
- 원산수산대학의 "무석축받이합금(8성분) 개발 및 '내구성·내열성' 등 "석축받이합금(바 - 83)을 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축받이합금"이라고 선전(6.26,중앙통신)
- 청진강재공장의 연간 인민경제계획 완수와 평안남도 회창군 지방공업공장들의 상반기 인민경제계획 완수 보도(6.28,중앙방송)
- '나선-연길 낚시관광축전', 6월 28일 나선시에서 진행(6.28,중앙통신)
- 순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6월 25일 현재 상반년 석탄생산계획 105% 초과 수행 선전(6.29, 중앙방송)

다. 사회·문화

北, 평양국제축구학교도 외국인 관광객에 개방(6/23, 연합뉴스)

- 북한이 세계적인 축구선수를 양성하기 위해 세운 평양국제축구학교를 최근 외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23일 연합뉴스가 전함.
- 중국 베이징의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여행사는 23일 웹사이트에 최근 이 여행사의 주선으로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들이 평양국제축구학교를 구경했다며 방문기와 함께 영상과 사진을 게재함.

北, 장애인복지 '박차'…단체 발족·인프라 구축(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에서 작년 12월 '조선농인협회'가 생긴 데 이어 올해 3월 21일에는 '조선맹인협회'가 출범했다고 보도함.
- 맹인협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글자(점자) 정보기술센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조선신보가 소개함.

北서 '축구 드라마' 인기몰이(6/24,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의 축구 꿈나무와 이들을 키우는 처녀 축구감독의 열정을 그린 3부작 TV드라마 '소학교의 작은 운동장'과 관련된 기사를 3꼭지나 실으며 연출가와 주연배우, 드라마의 인기 등을 상세히 소개함.
- 평양영화연극대학 청소년영화창작단이 제작한 이 드라마는 2009년부터 전국의 소학교와 중고등학교에서 운영되는 축구부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면서 감동과 재미를 더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매년 6·25 때 北 주민들이 찾는 곳은 '계급교양관'(6/24,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4일 평양시 중앙계급교양관 관계자를 인용해 "반미공동투쟁 월간을 맞는 요즘 계급교양관으로는 하루에만도 수천 명의 각계층 군중과 청년 학생들, 인민군 군인들이 찾아오고 있다"고 밝힘.
- 방송은 개성시 계급교양관에서 "분계연선지대(전방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미 계급교양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전함.

● **"北, 인천 장애인아시안게임 참가 긍정 검토"(6/25, 연합뉴스)**

- 6월 중순 방북했던 대북지원단체 '푸른나무'의 신영순 공동대표는 25일 "지난 16일 북한 조선장애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고위 관계자들과 논의를 진행했는데 북측이 인천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연합뉴스를 통해 전함.

● **北, 英 문화원과 영어교육·교사강습 MOU 체결(6/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조선에서의 영어교육 및 교원강습계획을 위한 양해문(MOU)이 25일 평양에서 조인됐다"고 보도함.
- 최근 유럽과 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중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1일 교사 체험' 상품을 개발하는 등 원어민 영어 강의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전세계 철새가 평양으로…" 北 '생태환경' 선전(6/26,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6일 '금수산 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나무에 서식하는 중백로와 밤물까마귀(해오라기) 수가 1천600마리 이상으로 늘었다"고 밝힘.
- 신문은 "남방의 더운 습지대에서 번식하는 중백로와 해오라기가 이곳에서 집단 번식하는 것은 이채로운 현상"이라며 "수종이 좋은 나무들이 우거져 서식에 유리한 생태환경이 조성돼 지구 방방곡곡의 새들이 이곳에 보금자리를 편다"고 주장함.

● **"장마피해 막자"…北, 홍수 예방사업 총력(6/28, 조선중앙통신;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지난 시기 침수 피해를 받았던 교훈에 기초해 큰물과 비바람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물, 생산수단,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다양한 홍수 예방사업을 소개함.
- 이어 조선중앙방송은 다음 달 5일부터 15일 사이 북한 지역에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며 함경북도와 나선시의 장마철 대책 모범 사례를 소개하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이라고 촉구함.

● **北에서도 헌혈 독려…"청년들 헌혈 앞장서"(6/24, 조선신보; 6/29, 연합뉴스)**

- 24일자 조선신보는 북한 보건성에서 열흘 전 열렸던 '세계 헌혈자의 날' 행사 소식을 전하며 리현철 보건성 수혈원 원장을 인용해 "조선에서도 청년들이 자원 무보상급혈자(헌혈자) 모집에서 앞장에 서 있다"고 전함.
- 이와 관련 연합뉴스는 29일 북한은 헌혈을 장려하기 위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모범적인 헌혈자들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등 당국 차원의 노력도 기울이고 있는 것은 혈액 확보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함.

기타 (대내 사회·문화)

- 석지동(농업성 부국장), 황해남북도·개성시·강원도 등 가뭄지속으로 "수만정보의 논이 갈라 터져 농작물 생육에 지장" 초래 및 각지 농촌들에서 군민(軍民) 총동원의 "가뭄과의 투쟁·물절약 투쟁" 전개 전언(6.23,중앙통신)
- 北 내각 및 농업성 일꾼들 등, 각지의 가뭄 극복사업(농작물 보호 위한 전투 전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지속 보도(6.24,중앙방송)
- 北 올해 여름철장마, 7월 5일~15일 사이에 시작 예보(6.26,중앙통신 ·중앙방송)
- 北 소프트웨어산업 책임자 몽골 방문(6.28,중앙통신)
- 함경북도, 장마철 피해를 막기 위한 피해대책(배수설비들 정비 보수 등) 강구(6.27,중앙방송)
- 北 역도선수 김수정(女), 2014년 세계 청년역도선수권대회에서 종합1위로 금메달 쟁취(6.27,중앙통신)
- 장마철을 즈음하여 '지난 시기 침수피해를 받았던 교훈에 기초하여 큰물과 비바람으로부터 생명과 시설물, 사회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장마철 피해 방지대책 강구 보도(6.28,중앙통신)

2 대외 관계

가. 일반

● **北, 중동지역 불안은 '미국 탓'…연일 대미 비난(6/23,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3일 '중동 평화과정에 던져진 어두운 그늘'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스라엘이 최근 요르단강 서안지구에서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조직원 약 200명을 체포하는 등 갈등이 격화한 데 대해 "사실들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그릇된 책동 때문에 중동 평화과정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함.
- 신문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통합정부 구상에 반발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와의 평화협상을 중단한 것도 "이스라엘의 영도강탈 책동의 연장선에서 빚어진 결과"라며 "미국이 겉으로는 평화를 바란다고 하면서 음으로 양으로 이스라엘의 망동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난함.

● **北 "日 고노담화 흔들기, 당장 걷어치워야"(6/23,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3일 "역사는 부정한다고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지난 시기 고노담화가 외교적 실수라느니 뭐니 하면서도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며 공식적인 부정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일본이 최근 노골적으로 검증을 운운한 보고서까지 발표하게 된 것은 그들의 그릇된 역사관의 집중적 발로"라고 밝힘.
- 이어 "일제의 성노예 범죄는 역사에 전무후무한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로서 결코 그 누가 부정한다고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며 "오늘날 일본이 성노예 범죄를 집요하게 왜곡부정하는 것은 스스로 국제적 고립과 정치적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통신은 지적함.

● **조선신보 "美 궁극적 목표, 이라크 3개로 지역 분할"(6/23, 조선신보)**

- 조선신보는 23일 미국이 이라크를 종파와 종족에 따라 3개 지역으로 분할하기 위해 이슬람 수니파 반군의 공세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주장함.
- 신문은 23일 '메아리'라는 코너에서 "알말리키 정부가 미국에 군사지원을 요청했지만, 오바마 정권은 이에 응하지 않고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며,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가 "매우 적은 전력으로 이라크 모술을 함락시키고 바그다드로 진격하고 있다"며 "이런 엄청난 일이 쉽게 성사될리 없다는 것을 의심해봐야 한다"고 지적함.

● **"이노키 등 일본 야당의원 6명 다음달 방북"(6/23, 교도통신)**

-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유신회 소속 안토니오 이노키 의원이 다음 달 9~15일 야당 소속 중·참의원 5명과 함께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고 이노키 의원실이 밝힘.
- 이노키 의원 등은 개성공단과 평양 시내 스포츠 시설을 시찰할 예정이며 강석주 북한 노동당 비서와 회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통신은 전함.

● **"작년 난민 인정 탈북자 급감…심사 강화 탓"(6/24, 미국의소리(VOA))**

- 유엔난민기구(UNHCR) 자료를 인용해 작년 한 해 전세계적으로 탈북자의 난민 인정이 모두 7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2012년 341건의 약 21%에 불과한 것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은 탈북자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4일 보도함.
- 탈북자의 난민 인정 건수가 급감하고 기각 건수가 늘어난 것은 세계 각국에서 탈북자의 난민 인정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라고 VOA는 분석함.

● **"일본인 9명, 이달 26일 성묘 위해 방북"(6/24,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4일 일본인의 '성묘 방북'을 지원해온 민간단체 '북유족연락회'를 인용해 2차 세계대전 당시 북한에서 숨진 일본인들의 유족 9명이 이달 26일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함.

● **北 "미국이 6·25 전쟁 도발"…비난기사 쏟아내(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2~6면 지면을 할애해 6·25전쟁 관련 기사를 쏟아내며 남한과 미국을 강하게 비난했다.
- 신문은 6면 '전 조선반도를 지배하려는 침략 야망의 산물'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고 조선전쟁을 도발했으며 남조선과 함께 역사를 덮어버리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함.

● 北, 6·25 맞아 평양시 반미 군중대회 열어(6/25,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25일 오후 6시부터 '6·25 미제반대투쟁의 날 평양시 군중대회'를 생중계함.
- 차희림 평양시 인민위원장은 연설을 통해 "미제는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고 우리 민족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며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백 년 숙적"이라고 주장했다고 중앙TV는 전함.

● "北, 베네수엘라에 대사관 설치 승인받아"(6/25, 미국의소리(VOA))

- 미국의소리(VOA)는 25일 베네수엘라 외교부 관보를 인용해 베네수엘라 정부가 수도 카라카스에 북한 대사관의 설치를 승인했다고 전함.
- 이는 처형된 장성택의 매부인 전영진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가 작년 3월 베네수엘라를 방문해 대사관 개설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북한이 올해 4월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라고 VOA가 설명함.

● 北 외무성 "김정은 암살 영화는 테러행위"…보복 위협(6/25,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25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미국 영화사가 최근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암살을 다룬 영화 예고편을 공개한 것을 '노골적인 테러행위'로 규정하고 영화가 상영되면 보복에 나설 것이라고 위협함.
- 나아가 외무성 대변인 성명에서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해치려는 기도를 공공연히 영화로 만들어 내돌리려는 것은 우리 군대와 인민의 마음의 기둥을 뽑아버리고 우리 제도를 없애보려는 가장 노골적인 테러행위이며 전쟁행위로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북일, 내달 1일 회담…"제재해제 내주 결정" 전망도(6/25,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내달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다고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25일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뉴스에 의하면 기시다 외무상은 협의에서 북한으로부터 납치문제 관련 특별조사위원회 조직, 구성, 책임자 등에 대해 설명을 들을 예정이라고 말함.

● **北, 6·25 맞아 "美, 한반도 전쟁위기 책임 있어"(6/25, 연합뉴스)**

- 북한군 판문점대표부는 25일 '상보'를 통해 한반도 정세는 64년 전 6·25전쟁 때와 다를 바 없다며 "극한계선에서 벗어날 줄 모르는 이 땅의 험악한 정세는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의 연장이며 그 직접적 산물"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이어 "이 땅에서 제2의 6·25가 기필코 핵전쟁으로 되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라며 "오직 강력한 총대만이 조미(북미) 관계를 총결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이고 조선반도 평화와 안전보장의 절대적 담보"라고 강조함.

● **北, '중립국감독위 참여' 중유럽 대표단 방한 비난(6/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은 26일 조선인민군신문사 기자와 문답에서 중유럽 4개국의 협의체인 '비세그라드 그룹' 대표단이 이달 중순 한국과 첫 고위급 정무회의를 하려고 서울을 방문한 데 대해 "미국에 추종하는 일부 나라들이 오래전 사멸된 정전감독기구의 존재를 거론해대며 우리를 함부로 걸고 들었다"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대변인은 비세그라드 대표단이 중감위의 상징성을 강조한 데 대해 "조선반도 정세가 항시적인 긴장 격화에서 벗어나자면 우리가 핵을 '포기'하고 '진정한 변화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수작으로 제 본심을 서슴없이 드러냈던 것"이라고 지적함.

● **"조선총련 의장, 내달초 방북 계획"(6/26, 산케이신문)**

- 허종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이 다음 달 8일 열리는 김일성 주석 20주기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북한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산케이신문이 26일 보도함.
- 허 의장은 지난 5월 북일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북한의 납치문제 재조사가 시작하는 시점에 일본이 취하기로 한 조치의 하나인 인적왕래 금지 해제가 방북 전에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방북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분석함.

● **재미 한인, 유엔 北대표에 '이산가족 상봉 촉구' 서한(6/26, 자유아시아방송(RFA))**

- 미국에 사는 한인 이산가족들이 유엔 주재 북한대표부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상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6일 보도함.
- 상봉추진위는 서한에서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보지 못하고 사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고령 이산가족 상봉을 위해 북한 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고 RFA가 전함.

● **北신문, 서방·러시아 갈등 부각해 '러시아 편들기'(6/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격화되는 군사적 대결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미국이 주도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군이 최근 유럽에서 '세이버 스트라이크-2014'와 '발트옵스-2014' 군사훈련을 벌이고 러시아가 이에 맞서 칼리닌그라드주에서 훈련을 한 데 주목하며 "최근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대결이 격화되고 있다"고 분석함.
- 신문은 "미국이 겉으로는 러시아와의 동반자 관계를 운운하지만 실제로는 러시아를 잠재적인 적수로 간주하고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완전 포위하고 끊임없이 압박하기 위한 일환으로 군사연습들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함.

● **재미 이산가족상봉법 수정안 美하원 외교위 통과(6/28, 연합뉴스)**

- 북한에 가족을 둔 한국계 미국인들의 북한 가족 상봉을 촉구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고 연합뉴스가 28일 전함.
- 공동 발의자 게리 코널리 의원은 자신의 홈페이지에서 "이 법안은 북한 당국에 '재미동포를 포함한 한국 이산가족들에게 제약없는 가족 상봉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주한 호주대사 입국비자 발급 거부"(6/28, 디오스트레일리안)**

- 북한이 빌 패터슨 주한 호주대사 일행의 입국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호주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8일 보도함.

- 주중 북한대사관은 비자발급 거부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지만 최근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의 북한 정권 비판 발언 등으로 양국 관계가 악화한 것이 원인일 것으로 신문은 분석함.

● 北·러시아 군악단, 평양서 합동시가행진(6/29, 조선중앙방송)

- 조선중앙방송은 29일 러시아 국방부 중앙군악단과 북한의 인민군 군악단, 인민내무군 여성취주악단이 전날 평양에서 합동시가행진과 군악 예식을 했다고 전함.
- 방송은 군악단들은 김일성광장에 도착하고 나서 오금철 군 상장, 문철 평양시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알렉산드르 티모닌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 등의 환영을 받았고 군악 예식을 펼쳤다고 전하며 이번 시가행진에 대해 "두 나라 수뇌부들의 각별한 관심 속에 더욱 좋게 발전하고 있는 친선협조 관계를 시위했다"고 평가함.

● 日외무상 "북일 국장급 협의, 변경 생각하지 않는다"(6/29, 교도통신)

- 29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은 북한이 29일 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다음 달 1일 중국 베이징에서 예정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변경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29일 언급함.
- 통신은 기시다 외무상은 미사일 발사 문제를 "정부 간 협의의 장에서 다루겠다"며 이같이 설명했다고 전하는 한편,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일본 방위상은 "국제사회의 위협·우려를 어느 면에서 무시하고 미사일 발사를 반복하는 것은 주변국 등에 매우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함.

● "북한, 북송 일본인妻 조사 착수"(6/29, 산케이신문)

- 북한이 재일 조선인 남편과 함께 북한으로 이주한 일본 국적 아내(북송 일본인 처<妻>)에 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산케이(産經)신문이 29일 보도함.
- 신문에 따르면 납북 일본인 관련 문제를 전면 재조사한다는 북일 합의가 지난달 29일 발표되고 나서 국가안전보위부 지방조직에 일본으로부터의 '귀국자'를 조사하라는 통지가 상부에서 전달되었으며 일본의 대북정보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의 이시마루 지로(石丸次郎·52) 오사카 사무소 대표는 이와 관련해 함경북도나 양강도에서 조사 움직임을 확인했다고 밝힘.

● **北 "억류 미국인 2명 혐의 확정…기소 준비"(6/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사 30일 보도를 통해 '해당 기관'이 억류 중인 미국인 관광객 밀러 매슈 토드(24)씨와 제프리 에드워드 파울(56)씨를 조사했다며 "조사를 계속 진행하는 한편 이미 확정된 적대행위 혐의들에 근거해 재판에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보도는 이들 미국인 2명에 대한 조사 결과 "적대행위 혐의가 증거 자료들과 본인들의 진술을 통해 확정됐다"며 "조사 과정에서의 영사 접촉, 대우 등은 유관국 법들에 부합되게 하고 있다"고 덧붙임.

● **북일, 北미사일 발사에도 내일 국장급 협의(6/30, 연합뉴스)**

- 북한과 일본이 7월 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국장급 협의를 열어 지난달 스웨덴에서 이룬 합의사항의 이행 문제를 후속 논의한다고 30일 연합뉴스가 밝힘.
- 뉴스에 따르면 북일 정부 간 협상의 북한 측 수석대표인 송일호 북일국교정상화교섭 담당대사는 북일 국장급 협의와 관련, "지난 5월 말 조일(북일) 합의의 이행에 관한 문제를 협의할 것"이라고 말함.

● **일본 관방장관 "중일 외무국장급 협의 조정 중"(6/30, 교도통신)**

- 스가 장관은 30일 오후 정례회견에서 북일 정부 간 협의를 위해 베이징에 간 이하라 준이치(伊原 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중국 정부와도 국장급 협의를 갖느냐는 질문에 "현재 조정 중"이라고만 말했다고 30일 교도통신이 전함.
- 양측은 이번 협의에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와 역사인식 문제와 관련, 정부 간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이며, 중국 측에서는 쿵쉬안여우(孔鉉佑) 외교부 아시아 국장이 참석한다고 통신은 보도함.

기타 (대외 일반)

- 김학철(駐페루 北 대사, 77개 집단 수뇌자회의 참가 北 대표 단장), 6월 17일 볼리비아 사회주의에로의 운동 부위원장(꼰셉씨온 오르띠스) 면담(6.23,중앙방송·중앙통신)
- 일제 강점기에 일본이 막대한 지하자원을 약탈한 행위를 거론하며 '일본 반동들은 죄 많은 과거에 대해 사죄하고 배상하기를 한사코 거부해 나서고 있다'며 '그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고야 말 것'이라고 강조(6.24,중앙통신)
- 수전 라이스 美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北의 도발·위협에 대비한 韓美日 3자 안보협력 강조) 관련 '미국의 北 위협설은 제2조선전쟁 도발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미국은 한반도 긴장격화의 장본인'이라고 비난(6.28,중앙통신·노동신문)
- 美 7공군 사령관(잔 마크 주아스)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공해전투(AirSea Battle) 개념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위험한 군사적 움직임"이라고 비난하며 '우리(北)는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력 강화에 계속 큰 힘을 돌릴 것'이라고 주장(6.28,중앙통신)
- 미국의 파키스탄·예멘 등 무인기 공습과 민간인 피해 및 외국 정상들 도청 등 "인권유린행위"를 비난하며 미국의 '2013년 국가별 인권보고서·인권재판관 행세' 배격(6.29,평양방송)

나. 6자회담(북핵)

● 北, 6·25 맞아 선군정치 강조…"핵억제력 다질 것"(6/25,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5일 2~6면에 걸쳐 6·25 전쟁 관련 기사를 쏟아내고 한국과 미국에 대한 비난 공세를 이어감.
- 신문은 2면 '선군의 기치높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의 길을 열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6·25 전쟁 이후 미국의 북침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며 "온 사회에 군사중시 기풍을 확립해 공화국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함.
- 또한 "미국과 남조선은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군사동맹 강화, 미사일방어체계 구축에도 가담해 조선반도를 전쟁 접경에 몰아넣고 있다"며 "선군정치는 침략세력과의 대결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백승의 무기"라고 주장함.

● 北 "南, '북핵위협' 언급말고 민족대결책동 중단해야"(6/25,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비난하며 핵위협을 말하기 전에 '북침 핵전쟁 위협'부터 중단하라고 주장함.
- 통신은 25일 '민족대결책동을 합리화하기 위한 궤변'이라는 제목의 논평

에서 최근 박 대통령의 북핵 관련 발언을 언급하며 “우리의 핵개발과 위협에 대해 떠들기 전에 외세의 북침 핵전쟁 위협부터 제거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 **北, 시진핑 방한 앞두고 “북핵포기는 망상” 주장(6/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북핵 포기는 영원히 실현될 수 없는 개꿈’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제는 괴뢰들이 북핵 포기라는 어리석은 망상에서 깨어날 때가 됐다”며 “우리의 정책과 노선에 그 무슨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것은 하늘이 무너지기를 고대하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주장함.
- 이어 “조선반도에서 핵문제가 근원적으로 해결되자면 미국과 괴뢰들의 핵 공갈과 위협, 북침전쟁 위험부터 제거돼야 한다”며 “침략적인 핵 공갈 정책이 전환되지 않고 북침전쟁 소동이 중지되지 않는 한 우리의 핵 억제력은 날이 갈수록 더욱 확대강화될 것”이라고 덧붙임.

3 대남 동향

가. 정치·군사

● **北 "총대 위에 행복도 있다"…생존 위한 '무장' 강조(6/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이 24일 '문암의 석수소리'라는 장문의 '정론'에서 6·25 전쟁 당시 폭격으로 부모를 잃은 15~16세의 소년·소녀들이 '복수심'으로 자강도 장강군 문암리 소재 지하 군수공장에 들어가 포탄을 만든 사연을 소개하며 생존을 위한 무장의 필요성을 강조함.

● **北 조평통 "韓·美, 6·25전쟁 일으킨 도발자"(6/24, 조국평화통일위원회)**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4일 6·25전쟁 발발일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이 6·25전쟁을 일으켰다는 주장을 재차 밝힘.
- 조평통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최근 남측에서 열린 호국행사와 한미 해병대 합동 전투훈련 등을 비난하며 "미국과 괴뢰 패당의 반공화국 대결소동은 6·25전쟁 발발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조선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의 불집을 터뜨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난함.

● **남북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발전적 정상화 종합점검"(6/25, 연합뉴스)**

- 개성공단 운영 전반을 논의하는 당국 간 협의체인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제5차 회의가 26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다고 25일 연합뉴스가 전함.
- 이번 회의는 지난 2월 한미 연합군사훈련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된 이후 처음 열리는 국장급 이상 남북 당국자 간 접촉으로,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는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남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6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함.

● **北, 정의화 의장 '통일' 발언 비난…"흡수통일 망언"(6/26,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근 통일 대한민국이 북한 지도자들에게 '만델라식 용서'를 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흡수통일 야망'

을 드러낸 망언이라고 비난함.

- 또한 정 의장이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통일국가의 국호에 대한민국 감투를 뒤집어씌우려는 것은 우리나라를 또다시 식민지로 만들려는 천추에 용납 못할 사대매국 행위이며 민족반역의 극치"라고 통신은 비난함.

● **北, 원산 인근서 단거리 발사체 3발 동해상으로 발사(6/26, 연합뉴스)**

- 북한이 26일 오후 원산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단거리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합참의 한 관계자는 "북한이 오늘 오후 5시께부터 원산 북쪽 지역에서 동북쪽 방향으로 3회에 걸쳐 발사체 3발을 발사했다"며 "이 발사체의 사거리는 190여㎞ 정도로 판단된다"고 말함.

● **北 "南, 연평도 해상 포격 도발…보복 준비 완료"(6/26, 연합뉴스)**

- 북한군은 26일 서남전선군사령부 중대보도를 통해 "오늘 괴뢰군부 호전광들은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우리 측 수역을 향하여 포탄을 발사하는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며 "이 무모한 군사적 도발은 우리의 신성한 영해에 대한 고의적인 선불질(서투른 총질)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아보려는 북침 흉계의 노골적인 발로"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이어 "조성된 사태에 대처해 조선인민군 서남전선군 관하 모든 타격집단들은 완전한 보복 태세를 갖추고 섬멸적인 타격 준비를 끝낸 상태에 있다"라며 "남은 것은 오직 하나, 기다리고 있는 최고사령부의 타격 명령뿐"이라고 위협함.

● **北 조평통 "문창극 사태 책임 김기춘 경질해야"(6/26, 조선중앙통신)**

- 조평통은 26일 서기국 보도에서 김 실장이 문 전 주필을 국무총리 후보자로 내세워 비호했다며 "남조선의 각 계층은 구시대의 유신 잔당이 아직 살아남아 청와대의 제왕 노릇을 하면서 온갖 재난과 참사를 다 불러오는 천하의 재앙거리 김기춘을 더이상 그대로 둬서는 안되며 하루빨리 청와대에서 몰아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함.

- 이어 “오늘 북남관계가 심각한 파국에 처하고 정세가 극도로 첨예화되고 있는 것은 김기춘과 같은 악당이 청와대의 중추에 들어박혀 대북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반통일 극우보수세력의 반공화국 모략대결 광란을 총괄적으로 작전하고 지휘하고 있는 데 있다”며 “이런 자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조선 인민들이 오늘의 재앙에서 벗어날 수 없고 북남관계의 파탄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함.

● **北, 동해상으로 스커드미사일 2발 발사…사거리 500㎞(6/29, 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북한이 29일 새벽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2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고 전함.
- 뉴스에 따르면 합참은 이날 “북한이 오늘 오전 4시50분과 4시58분께 강원도 원산 인근에서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는 미사일 각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면서 “사거리는 500㎞에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고 발표함.
-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다음 달 3~4일 방한을 앞두고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기 위한 일종의 ‘무력시위’ 차원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뉴스는 전함.

● **北, 김기춘 실장 경질 또 주장…“재앙 근원 제거해야”(6/30,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30일 ‘재앙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통치위기 때마다 인사교체를 했지만, 오히려 더 큰 재앙을 만들었다며 “남조선에 ‘유신’ 독재가 부활되고 북남관계의 파국과 대결 분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것도 그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주장함.
- 이어 김기춘 실장이 남한 정부에서 제왕 노릇을 하면서 청와대와 행정부의 요직에 자신의 ‘끄나풀’들을 앉혔다며 “이 따위 정상배들 때문에 남조선 사회가 더욱 파쇼화되고 북남 사이의 대결상태가 격화돼 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하는 것은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덧붙임.

● **北, 한미합동군사연습 중단 요구(6/30, 연합뉴스;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30일 남북 간 교류와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한미합동군사연습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중단을 촉구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내달 4일 0시부터 모든 ‘심리모략행위’를 전면 중단할 것과 남한 정부에

'민족대단결의 원칙'에 따른 정책적 결단을 내리라고 요구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함.

나. 경제·사회·문화

● **백범 김구 선생 65주기 '南·北 공동 추모문' 발표(6/26, 연합뉴스)**

- 김구 선생 추모단체인 '피스코리아'(총재 김민하)와 북한의 민족화해협의회(회장 김영대)는 이날 발표한 추모문에서 "김구 선생의 애국적인 한생은 우리에게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주의 주장이 다르다고 해도 민족의 통일대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었다"고 밝혔다고 연합뉴스가 26일 전함.
- 이어 추모문에서는 "우리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대결, 적대의식을 해소하며 특히 젊은 세대들의 통일의식을 높여나가기 위한 사업을 전망성 있게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함.

● **남북, 北산림녹화사업 재개 합의…"병충해 방제 우선"(6/26, 연합뉴스)**

- 남·북 민간단체들이 5·24조치로 중단된 대북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4년만에 재개하기로 했다고 26일 연합뉴스가 전함.
- 뉴스에 따르면 이운식 겨레의숲 사무처장은 26일 개성에서 북측 민족화해협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와 "남과 북이 산림 병충해 과제를 우선 과제로 정하고 산림녹화 지원사업을 재개하기로 했다"며 "평양 대성·용악산, 금강산, 묘향산 등에 병충해 피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해 남과 북이 병충해 방제를 우선 과제로 정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팩스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고 말함.

● **北 교원단체,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비난(6/27, 연합뉴스)**

- 북한 교원단체인 조선교육문화직업동맹(교직동)은 27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민주교단에 대한 교살행위이며 진보민주세력을 말살하고 유신 독재를 되살리려는 극악한 반민주적 망동"이라고 주장함.

- 이어 “남조선 각계층은 참다운 교육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파쇼 무리의 폭거를 반대하고 전교조를 지켜내기 위한 투쟁에 총궐기해야 할 것”이라며 반정부투쟁을 선동함.

기타 (대남)

-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과거 발언 등 해명(6.19, 親日 오해 등)은 “국무총리 자리를 기어이 타고 앉기 위해서”라며 “친일사대매국노, 정치미숙아” 등 비난 지속(6.23,중앙통신)
- GOP 무장탈영병 총기난사 사건 관련 KBS방송을 인용하여 간략히 사실 보도(6.24,중앙통신)
- 우리 정부의 ‘드레스덴 선언·신뢰프로세스’를 “체제통일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교활한 놀음”이라며 ‘6·15 및 10·4선언 이행의 남북관계 개선과 자주통일’ 주장(6.29,평양방송)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Monthly North Korea Review

월간 북한동향

5·6월
북한동향 일지

〈5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5.3,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김일성·김정일 동상 제막과 야영소 준공식 참석
5.3,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5월2일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서 전국 소년축구경기대회 결승경기와 모란봉악단의 축하공연 및 축포발사 관람
5.3,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 개건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267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5.3,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3일황순희(항일혁명투사·조선혁명박물관관장)에게95세 '생일상'전달
5.4,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국제주의전사 '야코프노비첸코' 생일100주년 즈음 화환 전달
5.6,중통·중방	김정은 黨제1비서,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건설에서 위훈을 세운 인민군 제966군부대·제462군부대·제101군부대·제489군부대 군인건설자들과 함께 기념사진 촬영
5.8,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특류영예군인들과 결혼한 배우자들에게 감사
5.8,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선물 전달
5.10,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서부지구작전비행장에서 진행된 '조선인민군항공및반항공군비행지휘성원들의전투비행술경기대회-2014' 지도
5.14,중통·중방	김정은,黨 제1비서, 오중흡 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447군부대시찰
5.14,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1월18일기계종합공장을 방문하고 현대화과업을 제시
5.15,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5월15일 윤석천노인 (함경북도청진시청 암구역거주)에게 '100세생일상' 전달
5.16,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만경봉팀↔소백수팀의남자축구경기관람
5.16,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조선인민군국방체육단↔압록강국방체육단활쏘기 선수들의 활쏘기경기관람
5.17,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천강 계단식발전소등 중요대상 건설지원에 모범을 보인 일꾼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5.19,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성산종합병원 시찰
5.20,중통·중방	김정은·리설주, 5월 19일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 참가자들을 위한 모란봉악단 축하공연 관람
5.21,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2개동 46층 건물) 건설장 시찰
5.22,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18건설돌격대를 적극 지원한 일꾼-근로자들(김해신 등)에게 '감사' 전달
5.23,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총련」 제23차 전체대회(5.24~25)를 즈음하여 재일동포들에게 '축하문' 전달
5.25,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천마전기기계공장 현지지도
5.26,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대관유리공장 현지지도

보도일자	내용
5.27,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허철용이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
5.27,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청춘거리 경기관·경기장들과 평양체육관에 체육기재들과 설비들을 전달
5.27,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체육기재들과 비품들을 전달
5.28,중방·중통·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용문술공장 현지지도
5.29,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과학자휴양소 건설장 시찰
5.29,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이천군 신당 축산전문협동농장 박연하 등에 감사 전달
5.31,중통·중방·평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시찰

〈6월 일지〉

보도일자	내용
6.2,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국제아동절(6.1)'을 맞아 평양애육원을 방문
6.2,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쑥섬개발사업 현지지도 및 인민군대에서 새로 제작한 급강하 물미끄럼대 관람
6.3,중통·노동신문·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제9차 전국 예술인대회(5.16~17)에 모란봉악단의 창작자·예술인들을 내세워 준 것 관련 '문학예술부문의 일꾼들과 창작가·예술인들이 창조기풍을 적극 따라 배워 혁신을 일으켜 나갈 것을 바라는 뜻과 기대가 어려있다'며 '주체100년대를 주체문학예술의 최전성기로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독려
6.3,중통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서해지구 수산단위 일꾼들과 어로공들에게 보내는 감사 전달 모임, 6월 3일 진행
6.5,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리설주와 함께 대동강 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 과일종합가공공장 시찰
6.5,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6월5일 시리아 대통령 '바샤르 알아싸드'에게 '대통령 再選' 축전 발송
6.7,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만경대혁명학원을 방문하여 교직원·원아들과 기념 촬영 및 새로 건설한 종합체육관을 찾아 건설정형을 요해하고 만경대혁명학원과 남포혁명학원 원아들의 배구와 농구경기 관람
6.10,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 남새전문 협동농장 현지지도
6.10,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기상수문국 현지지도
6.13,중통·중방	김정은 당 제1비서, 동해안 전방초소를 지키고 있는 여도방어대 시찰
6.14,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오중흡7연대 칭호를 수여받은 인민군 제863군부대 시찰
6.14,중방	김일성의 청진항(함경북도) 현지지도('74.6.13) 40주년 기념보고회, 6월 13일 전승훈(함경북도黨 책임비서) 등 참가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
6.18,중통·중방·평방	김정일 당 사업 개시 50주년 경축 중앙보고대회, 6월 18일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참가한 가운데 4.25문화회관 진행
6.20,중통·중방송	김정은 黨 제1비서, 위성과학자거리 건설장과 5월1일경기장 개건현장 현지지도
6.25,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평양육아원·애육원건설장을 현지지도
6.27,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발사 지도
6.29,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새로 건설한 갈마식료공장을 방문하고 조업준비를 잘할 데 대한 과업을 제시
6.29,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김성수(8·28무역관리국 부원) 등 "좋은 일을 한" 일꾼-근로자들에게 「감사」 전달
6.30,중통·중방	김정은 黨 제1비서, 인민군 전략군의 전술로케트 발사훈련 지도

통일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